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8권



365열린도서관



B46460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 제8권 |

2013. 7. 1 ~ 2014. 6. 30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차 례

7월 월례조회 .....	9
▶ 2013년 7월 1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	17
▶ 2013년 7월 2일	
중소기업청장 초청 조찬포럼 .....	21
▶ 2013년 7월 4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	24
▶ 2013년 7월 5일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	34
▶ 2013년 7월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	58
▶ 2013년 7월 25일	
기우회 .....	61
▶ 2013년 7월 26일	
8월 월례조회 .....	67
▶ 2013년 8월 1일	
경기도 청년소통한마당캠프 안보탐방 초청특강 .....	74
▶ 2013년 8월 12일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	78
▶ 2013년 8월 22일	
기우회 .....	105
▶ 2013년 8월 30일	
한국시민사회포럼 .....	110
▶ 2013년 9월 11일	
새누리당 정책협의회 .....	126
▶ 2013년 9월 12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	128
▶ 2013년 9월 24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	129
▶ 2013년 10월 2일	
10월 월례조회 .....	144
▶ 2013년 10월 2일	
북부기우회 .....	153
▶ 2013년 10월 10일	
경기도귀농귀촌대학 명사초청 특강 .....	157
▶ 2013년 10월 12일	
서초포럼 특강 .....	167
▶ 2013년 10월 18일	
숙명여대 특강 .....	179
▶ 2013년 10월 30일	
11월 월례조회 .....	195
▶ 2013년 11월 1일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	204
▶ 2013년 11월 6일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	220
▶ 2013년 11월 13일	
기우회 .....	236
▶ 2013년 11월 29일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	240
▶ 2013년 12월 26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253
▶ 2014년 1월 2일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256
▶ 2014년 1월 2일	
KBS 광주방송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특강 .....	258
▶ 2014년 1월 13일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	272
▶ 2014년 1월 15일	
기우회 .....	282
▶ 2014년 1월 24일	
2월 월례조회 .....	285
▶ 2014년 2월 3일	
道 -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	295
▶ 2014년 2월 10일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300
▶ 2014년 2월 26일	

기우회 .....	310
▶ 2014년 2월 28일	
3월 월례조회 .....	314
▶ 2014년 3월 3일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	319
▶ 2014년 3월 18일	
위싱턴 특파원 만찬간담회 .....	333
▶ 2014년 3월 24일	
경기도-이락키스-이랩코리아 투자 MOU .....	335
▶ 2014년 3월 24일	
경기도-OEI 증서 전달식 .....	336
▶ 2014년 3월 30일	
4월 월례조회 .....	338
▶ 2014년 4월 3일	
6월 월례조회 .....	349
▶ 2014년 6월 2일	
기우회 .....	352
▶ 2014년 6월 27일	
찾아보기 .....	354

## 7월 일례조회

일시 2013년 7월 1일 북부청사 대강당

제가 오늘 취임 8년째 됐습니다. 제가 아마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최장수일 것입니다. 그동안 7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열심히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기에 대한민국 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지난 7년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설, 건축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지 개발 지구나 부동산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무한돌봄 등 복지 예산이 취임 이래 14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으나, 국민이 느끼

는 체감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면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 자체가 아직까지 실제로 선진국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이들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장애인 먼저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국민적 합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가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복지 문제를 차분히 하기보다는 선거 때 득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득표가 많은 복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라는 측면에서 누가 가장 어려운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선거 때 어느 쪽이 표를 많이 받느냐에 가다 보니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복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 경기도 대표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금이 아주 많고 복지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세금 내는 것은 반대하면서 복지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없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보다는 정치인의 책임이 더 큼니다. 어느 정치인도 용감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정직한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쥐어짜도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취집니다. 결국 최근 SOC 등 다른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책임도 큼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청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사실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큼니다. 학교도 오후 2시나 3시가 되면 닫는 등, 너무 이용도 낮습니다. 집이 크다면 큰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10명이 근무하는 동사무소도 너무 큼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부분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환승 문제 해결로 대중교통에 대한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러나 GTX,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광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확정됐지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GTX 문제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수단을 복지라 합니다. 우리가 교통지옥이라 하는데, 물론 지방에는 교통지옥이 아닌 곳이 있으나 서울에 직장이 많습니다. 경기도 설문조사 시 50% 이상이 교통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해결 방법은 GTX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잉 SOC

투자가 아닙니다. 경기도로서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50%의 민간 사업자, 나머지 50% 중 25%만 국고 부담이고 나머지 25%는 동탄의 개발 이익금입니다. 사실은 국고가 100%인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과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팔당 수질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질 개선이 있었던 것은 7개 시군의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하수도 보급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임 시의 66%에서 88%를 넘어서 팔당 수질 개선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였으나 지금은 22% 끌어올렸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개선으로, 3조 4천 12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개선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산업단지 유치에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외국에 나가니 경기도가 어디냐고 합니다. 경기도에 삼성 전자 공장이 3개가 있고 연구원만 3만 5천 명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 버립니다.

옛그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안을 다녀왔는데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 초일류 기업을 자기 나라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애플 연구소를 경기도에 유치하면 톱뉴스가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광릉수목원을 다녀온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지만, 미국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일자리가 생기고, 최첨단

기술,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LG전자도 최근 평택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주 LG LCD는 북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에서도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수립 이후 모든 규제 완화를 지난 7년간 많이 했습니다. 그린벨트, 팔당 지역,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 완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때는 여전히 규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규제가 많습니다.

덴마크, 스웨덴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옹아매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웨덴은 국민총생산의 40%를 재벌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은행, 통신 등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많이 냅니다.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엄청 많이 내고, 그만큼 복지를 많이 해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입지를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계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자의 과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눠 갖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흔히 '북유럽은 기업하기 어렵지 않느냐'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유럽은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것을 부자 감세라 합니다.

법인은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를 세금을 비교하여 입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적 합의가 안 되고, 지방은 수도권 때문에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면, 행정에서 경기도는 365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 잠들지 않는 경기도 행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면에서 경기도가 넓고 구석진 곳이 많은데, 찾아가는 경기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세금이 안 걷힌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세금이 9조 이상 올해 안 걷히고, 우리 경기도도 세금이 안 걷혀 감액 추경을 해야 합니다. 국가도 쥐어짜는데,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는 더 짜야 한다는데 더 짤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짜도 마른 수건 짜듯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이번에 북유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高복지·高세금 정책을 펴며, 국민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술집 등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자기 내면의 행복을 찾습니다. (한국인들은) 거기에서 지나친 욕심, 지나친 불만, 지나친 목표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행복을 차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이나 우리 국민의 실력은 굉장합니다. 인천대교 등 모든 SOC도 우리가 월등합니다. 삼성전자가 물건 만드는 것도 앞서 있고, 행정도 앞서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곳도 없고 거의 무료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인터넷으로 업무를 해도 호텔에서 하룻밤 인터넷 연결 시 최하 20달러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속도가 우리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늦게 걸려서 잠을 못 자고 차질이 생기고 애러도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와 여러 가지로 좋은 능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민 스스로가 못 버팁니다. 늘 불만이 많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2위, 출산율은 세계 210등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행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공직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자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 포지션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커브를 거쳐 지금의 포지션에 왔고, 앞으로 어떤 커브를 그릴 것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외형적 발전, 정신적·내면적 성숙의 부족, 국민들 내면의 사회적 공감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7년은 저 개인적으로 행복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앞으로 더 큰 도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라도 우리는 그동안 다 이겨 냈습니다. 지난 65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25 전쟁까지도 다 이겨 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선배님들의 훌륭한 전통, 악조건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공무원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길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경기도의 공무원밖에 없다고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

일시 2013년 7월 2일 여의도 래싱턴호텔

### 지사님 인사말

고희선 도당위원장님, 김태년 의원님 등, 비도 오는데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 재정은 파탄 상태입니다.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도 위기 상태입니다. 지방 재정도 올해 세수 결함이 약 8,000억 이상입니다. 당장 모든 문제가 닥치는데, 중앙에서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습니다. 중앙은 의원님들이 세법을 고치지만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체를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 우리 빚을 짊어질 인구

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원을 빌리면 아이들이 200원을 빌려야 합니다. 사실 기채는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단순히 보육료 문제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재정 전반에 신속, 확실하게 해 여·야당 간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위기입니다. 단순 위기가 아닙니다. 매일 세금도 안 들어오고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50%가 부동산 세수, 나머지 약속한 부분은 복지 등이 많은데 지난 7년간 복지비가 180% 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SOC를 깎는다지만 더 깎아 줄 게 없습니다. 엄살이 아니라 장부상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디 잘 살펴서 신속하고도 초당적인 대책을 살펴 주세요. 저희로서도 지방의 어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국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사님 마무리 인사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가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로, 본회의 있을 때가 아니면 의원님 모셔야 하고 이번에 해외에 일주일 다녀와서 더 늦어진 것입니다.

둘째, 재정에 관해 저희들이 부동산이 나쁜 것을 모르지 않았습  
니다. 부동산에 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합  
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중앙정부에서의 예측보다 더 악화되고, 일본  
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 구조적 침체입니다. 인구적인 원인이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생각하는데,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빨리 나아가  
고 우리는 지체돼서 저성장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GTX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조에서 50%는 민자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금 25%, 자치단체가 조금 부담합니  
다. 국비는 30%, 4조 1,000억 정도입니다.

SOC는 GTX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GTX로 안 되는 곳은 월  
곶~판교 몇 개입니다. GTX가 지역의 노선과 대치할 수 없습니다.  
실핏줄과 대동맥을 바꿀 수 없습니다.

GTX가 저 개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道 전체 차원에서  
고려해 주세요.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점  
잘 살피 주십시오.

경기도에 LH 택지개발 102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개 산단  
이 안 된다는데 중앙이 하는 것은 다 안 됩니다. 국가가 이 지경인데  
도가 무슨 수단이 있겠습니까. 의원님이 질책을 하셔도 도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의원님들밖에 저희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담판을 하라는데, 대통령이 지방의 사정을 잘 아시지 못합니다. 의원님들은 매일 말씀을 듣지만 대통령께서는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도는 0.5할 자치, 1할도 안 됩니다. 중앙은 8할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책임을 몰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점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는 초당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행복하시려면 분권밖에 답이 없습니다. 택지개발, 보육,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청장 초청 조찬포럼

일시 2013년 7월 4일 중기센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오셨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홀에서 한 강연 중에서 오늘이 청중이 가장 많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기업체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정화 청장님 오시는데, 많이 오신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요즘 우리 기업이 어렵기에,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물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물을 마시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의 중소기업청장님 때보다 더 많이 오신 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손톱 밑 가시는 청장님께 맡기면 다 빼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 8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689대 경기도 관찰사중 제가 최장수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지사를 해 보니 힘도, 돈도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를 거쳐 지금은 1인 가족 시대를 거쳤습니다. 전 세계 이혼율 1위, 출산율은 210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1인 가족 시대에 아파트 건물이 잘 팔리겠습니까.

그러니 내수나 뭐나 다 안 됩니다. 출산율 개선을 위해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계에 계신 목사님, 신부님, 스님께 아이 많이 낳아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드려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 왓, '아이 낳고 장가·시집가라' 하는 순간 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 자체가 먹히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강화한다지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하시는지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직원과 팀워크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신화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가업조차도 승계하기도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정화 청장께서 좋은 해법을 주시기를 기대하

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책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경기도도 정부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너무 다양하고 많지만,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일시 2013년 7월 5일 안산 경기도 영어마을

여기 서경석 목사님 와 계십니다. 저와 40년 전에 만났습니다. 당 시에는 학생운동권, 골치 아픈 선배님이셨습니다. 저도 운동권에 들어 가서 함께 활동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쌀밥을 실컷 먹어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코 흘린 걸 빨아먹으면 그게 고소할 정도였습니다. 논밭 개구리 (잡아먹고), 과 수원에서 사과 서리를 했습니다. 사과 서리를 하면, 농약이 뿌려져 있어 그냥 먹으면 몇 년씩 몸이 안 좋을 정도로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소리 해 봐야 표만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꿈이 바로 밥 실컷 먹는 것인데 정말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불만이 가득해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왜 자살하냐고 물으면, 사는 데 대책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으면, 아파트가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아기 키울 능력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아파트, 직업 등) 그런 것들이 다 생긴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런 꼴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65년 이후 꿈도 꾸지 못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절망으로 자살 1위, 이혼율 2위입니다. 출산율은 210등입니다.

지금도 며칠 전 덴마크·스웨덴·독일을 다녀왔는데, 덴마크 대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나라가 소득이 5만 3천 달러가 넘는 놀라운 나라인데, 그분 말씀이 원래 과거부터 바이킹으로 유명한 맹주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술집에서 행복을 찾지만, 지금 덴마크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덴마크 사람들은 안에서 행복을 찾고, 우리는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재벌과 빈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부자한테 빼앗겨서 못살고 권력자들에게 빼앗겨서 잘 못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과거에 교도소를 2년 6개월 갔고, 대학 졸업도 24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도지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689대 경기도 관찰사 중 최장수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지겹겠습니다.

늘 '청렴영생 부패즉사(清廉永生 腐敗即死)'를 말하고, 컴퓨터 마우스패드에 이 문구를 다 써서 나눠 줬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좀 가혹하지 않은가' 하더라고요. 제가 취임할 때 경기도 청렴도가 전국에서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이후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돈보다 귀한 것이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공직자는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승진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면 연금까지 박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청렴을 말하면 지금의 공무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선시대 등은 제도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한반도에서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청렴의 상징을 그려 보라 하면, 한복 입고 수염 그리는 옛날의 공직자가 아니라, 지금의 공무원입니다.

나라의 청렴도도 최하 세계 10위권으로 올려놓아야 행복도가 올라가고 기업의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에 가 보면 공무원용 돈을 따로 마련해 놓아야 할 만큼 썩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우리 건설이나 공개 입찰을 보면, 인터넷으로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을 불러다 '이거 자세히 공개하라'고 주문합니다. '언제 어디를 공사하는데 얼마 정도다'라고, 도청 공무원을 만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잘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찾아내서 줄을 대 만나고 밥을 먹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기업지원팀을 만들어 기업인들이 부르면 달려가서 찾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서류 갖고 도청으로 들어오시오'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된 겁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오셔도 여권부터 필요한 서류를 모두 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0번 전화, 인터넷 민원, 카톡 등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수원역, 의정부역 등에도 도청 사무실을 마련해서 역에서 내리면 바로 기다리는 식으로 행정하고 있습니다. 시골 장날에는 현장을 찾아 민원을 돕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공공의 창구를 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때 공공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렴, 투명, 공개 행정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합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0개 정부의 복지 혜택 중에 누군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으려고 하면 접근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140여 개로 줄여 통합했는데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우

리는 하나로 무조건 통합하고 있습니다.

예로 노숙인이 한 명 누워 있으면, 일단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독립병원에 모셔 치료를 하고, 경상도·전라도 도민이라도 다 해 주고,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다음으로 가정 형편을 알아보고 재결합 방법을 알아보고, 자식이 학교를 그만뒀으면 다시 다닐 방법을 찾고, 얼마간 살 수 있게 현금과 잠자리·식비를 일정하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도우려면 몇 명이 달라붙어 도와야 합니다. 관과 민, 복지를 모두 통합시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45가지 복지 정책 중에 맞는 경우가 없으면 다른 예비비를 돌려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도, 200여 명 계신 노숙인분들을 찾아서 '경기도의 무한 돌봄 제도를 아시는 분들 손들어 보라'라고 하면 10%도 없습니다.

우리끼리의 행정, 공무원끼리의 행정, 실제로 바닥에서 모르는 이 대한민국 행정. 이것 알리는 게 행정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복지와 행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 넘어져서 뼈를 상하고 숨을 잘 못 쉬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 몰랐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119 부를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6천여 명 소방공무원의 책임자가 경기도인데, 이것 아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부르면 5분 내로 달려오는 제도가 바로 119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문제가 세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의 경우 8천억 원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로 대부분 도 세수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경마·경정·경륜 등 사행성 사업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부동산 불황으로 위기입니다.

정부는 법인세가 안 견힙니다. 삼성 빼고는 세금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세금 더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번씩 하면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남발됩니다.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면 1인당 60만 원, 집에서 키우면 4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은 탈세자를 찾아내고 예산을 절감해서 해 보겠다고 당시 대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로 엄청난 복지를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이 김영삼 정부 때 7%,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2.9%였고, 올해는 제로 퍼센트 성장입니다.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성장은 부자가 투자를 하거나, 외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땀을 더 하거나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 대기업은 수도권에 투자하지 못하게 법이 해 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삽니다. 지방에는 공장을 차려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대불공단에 갔더니 수주도 어렵지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인건비도 싸고 노조도 없는 중국을 찾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

도 인건비가 올라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겁니다. 국내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저도 이번에 출장 가서 (투자를) 조금 받아왔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시안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의 중국 시안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는 거의 끊기고 있습니다. 투자가 없고 사람은 노는데 경제성장률은 오를 리가 있습니까.

스웨덴을 보니 인구가 천만인데 어떻게 우리 소득의 두 배인가. 처음부터 모든 기업을 설계할 때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만들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스웨덴어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계속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나요?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면 일본과도 관계가 안 좋고 폐쇄적인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주시는데, 잘될 거라 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훌륭한 수준이지만 반면 허술한 부분도 많습니다. 돈과 시간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요즘 많이 짓는데 직원이 보통 10여 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보세요. 방 한 칸이면 일할 수 있는데 크게 새로 다 지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방과 후 교실을 하고는 있지만,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찾아가는 밤 시간까지 봐 주는 2부제 교사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면 맞벌이 엄마는 안절부절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도, 지금의 각 학교들도,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획기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중고교부터는 기숙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학교에서 맡아서 잘 가르치고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 사교육비도 높은 겁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대학진학률은 50%가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이 마이스터고 활성화입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초임 연봉이 3천에서 최고 4천만 원입니다. 예술계 나온 90% 이상의 학생이 실업자입니다. 반면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 나와서 공장 가서 3~4천만 원 받는 것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편의점 알바를 시키는 게 더 낫다는 일부 부모들의 생각도 잘못입니다. 부모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아이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결혼할 때 무조건 아파트를 구해줘야겠다는 생각. 이걸 바꾸야 합니다.

정부가 바꾸고 공공이 바뀌고 국민 의식도 바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방송부터 바뀌야 합니다. 유익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시청률 때문에 국민들 정서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개혁을 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생깁니다.

독일 사람들을 보면 웃지를 않습니다. 쓸데없이 왜 웃냐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는 천편일률입니다. 누가 뭐 한다면 다들 따라서 성형하고, 패션이든 뭐든 획일적입니다. 웃고 울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는데, 남이 뭐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획일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제와 물질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과거와 같은 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물질로만은 안 되고, 정신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맨 앞에 세금바로쓰기 운동이 있습니다. 서경석 목사님처럼 용기가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고쳐 나가 선진 통일 강국으로 빛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빛이 중국, 시베리아, 온 세계로 뻗어 나가 대동강의 기적으로, 압록강의 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잘 극복하는 희한한 코리안으로 거듭 발전하길 바랍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정치는 희망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 답변

얼마 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벽에 부딪혔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신을 바꾸는 데 세금바로쓰기 운동이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 질문

어떤 식의 세금 줄이기를 실천합니까?

### 답변

공사 예산 줄이기로 (실천한 것이) 지금까지 1조 원 될 것입니다. 길을 닦는데 계약단가 심사제를 통해 구석구석 찾아내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복지는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는 굶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공짜심리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100% 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일시 2013년 7월 8일 동국대학교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강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경선을 했는데 격차도 많이 나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말씀 후 질의응답이나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우 가난해서, 제 꿈이 무어나 물으면 밥을 한번 실컷 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고 배가 나와서 뱃살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집사람은 표 떨어지는 소리 한다고 하며

젊은이들에게 잘 맞는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배불리 먹어서 뱃살을 뺄 정도의 지금의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배불리 먹는 나라가 됐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저 어릴 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흥남질소비료공장, 수풍댐부터 좋은 게 더 많았지만 남한은 고무신이나 방직공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한 데에 놀랍니다. 지금도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세계 곳곳을 가면 새삼 우리나라의 발전을 더 느낍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서당에 가서 명심보감, 논어를 배웠습니다. 서로 참아야 집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심보감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화를 준다(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였습니다.

논어도 첫 구절이 '배우고 익힘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였습니다. 제 머리에 유교적인 가치관이 박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집에서는 저 외에는 유학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7남매 중 여섯 번째인데, 제가 유학을 간다니 우리 집에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집 뒷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가가기 전까지 15년 이

상 자취를 했습니다.

그 후 대구 경북고를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3선 개헌은 잘못된 것이라 나왔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것은 잘못이라 명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같이 2·18탑에 가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전교생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은 저보고 반성문을 쓰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문을 왜 쓰냐, 교과서에 쓰여 있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왈 '이 답답한 친구야, 그걸 써야 봐주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옳은 일을 해서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술도 한 잔 하고 담배도 피우면서 대학 입학시험은 다가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봐주겠으니 다신 하지 말라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니 서울말이 잘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TV나 라디오가 없어서 서울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서울말을 쓰는 게 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선배가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대학을 왜 들어 왔느냐. 출세하려고 고시 공부하러 왔냐. 이 나라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출세를 위해 들어 왔느냐. 우리 함께 이 나라를 함께 구해 보자'라고 선동하는데 제가 거기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심재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모두 운동권입니다.

저는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청계천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곳의 판잣집을 철거해서, 광주 국유 산림지에 텐트 하나 던져 놓고 빈민들에게 살라 했습니다. 그때는 버스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빈민들을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때 반재벌, 반독재, 반일, 반외세 등을 계속했는데 2학년이 되니 바로 제적이 됐습니다. 민청학련 때 다시 제적이 됐습니다.

1970년에 전태일 씨가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노조 위원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한글로 된 책이 없어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민청학련 때 수배 중에 있었는데, 살짝 형님에게 전화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였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타니 보여 줄 데가 없더라고요. 딸은 초등학교 6학년, 집사람은 고졸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산소에 졸업장을 가져와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효도도 때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장에 7년 다니면서 노조위원장도 하고 제지공장 보일러공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중에 제가 학생 운동자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노조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봉급 자체를 안 줄 때였습니다. 지금은 현대나 기아나 잘나가는 사람이 노조를 하지만, 그때는 봉급이 안 나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1980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나와 투쟁을 했습니다. 1986년에 다시 5·3 인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서울노동연합에서 참석을 했는데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 6개월 생활을 하고 88올림픽 이후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2년에 민중당으로 총선에 나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을 해산해야 할 정도로 득표를 못하고 당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구로공단에서 권인숙이라는 분이 노동인권회관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해 오던 차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치권에 들어오라 해서, 부천 소사구 지역구 조직을 1994년 8월에 맡았고, 2년 뒤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 상대 후보가 박지원 대변인이었습니다.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천 소사구에 밀고 들어 왔습니다. 또 박규식이라는 국회의원, 토박이분이 있었는데 명문 토박이로서 재산 순위 1등이었습니다.

그 둘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가 싸웠습니다. 다들 저보고 3등이라고 했고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지역에서는 빨갱이

고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긴 사람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저는 또 토박이도 아니었습니다. 부천은 호남 30%, 충청 30%, 경상은 1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표를 깨 보니 제가 1위였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니 당시 당대표가 김인환 의원이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김 형, 당신 왜 객지에 와서 정치하냐. 고향에 가야 재미 있지. 대구나 영천의 지역구로 옮겨 주겠다'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집사람에게 '당대표가 이런 제의를 하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남자가 배은망덕해서야 되겠느냐. 이 지역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고 뽑아 줬는데 당선되자마자 옮기려고 하니,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정치인이 욕먹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부천에서 삼선을 했습니다. 부천에서는 그때 당시 재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투 자체가 경상도 말투니 경북에 가서 도지사 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고쳐 보려고 개인 교습도 받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자' 해서 해 봤는데, 마침 경기도민들이 뽑아 줬습니다.

제가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최장수입니다. 지금 8년 차 임기에 들어 왔는데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4년 이상 한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올해 도지사 8년 차가 되니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미리 물난리 날 곳을 찾고, 가뭄 날 곳을 찾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17배, 홍콩보다 8배 넓습니다. 서울·대전·세종시 인구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만큼 넓고 다양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바다와 최전방, DMZ와 도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오래하니 어디에 가면 일자리가 있는지 대충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실컷 밥 먹는 것이고 통일 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약소국이라서 늘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야 하나, 그 점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통일 강국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독일이 분단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 독일의 분단 지역, 동독 작센 주 등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입니다. 히틀러는 자살하고, 전범들은 재판관을 통해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범 국가가 일본이고 패전 국가도 일본입니다. 한국은 전범 국가도 아니고 패전 국가도 아니고 그냥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반으로 잘랐습니까.

죄 없이 반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르려면 일본을 잘라야 합니다. 왜 일본은 가만히 두고 일본 왕을 폐위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전범국이기엔 히틀러 외에 다 참살을 시켰습니다. 일본 왕이 그대로 있고, 나라도 분단이 안 됐고, 우리나라만 분

단됐습니다.

국제 사회가 한반도를 잘못 판단시켰습니다. 판단시키려면 전범국 일본을 판단해야 하는데, 일본이 당할 짓을 우리가 당하고 희생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는 한반도를 통일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강국, 특히 제조 부분에서 강국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 외에는 코리아는 아는데 경기도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세계 최대의 삼성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원만 35,000명이고 경기도는 삼성 공장만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대단하다, 알겠다' 하더라고요. LG도 경기도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파주, 평택, 오산 등에 다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세계 최대의 연구소가 있다고 하면 정말 경기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성이 세계적입니다.

경기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로컬, 제가 말하는 기업은 글로벌입니다.

우리 군도 강군이고, 농업도 세계 10위 내입니다. '강남 스타일'도 세계적이고, 김연아도 많이 압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앞서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이 제조 부분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에 덴마크 대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덴마크는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어떻게 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대사 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 나라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과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이유가 집이 없고 직장이 안 좋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결혼을 해야 아파트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말합니다.

설사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행복의 절반 이상은 저는 집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부인도 없이 행복한 남자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기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의 절반은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만 있고 남편과 자식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집사람이 표 떨어지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실감합니다. 제 집안도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제사 때 친인척들을 만나 보면 여성들은 마흔이 됐는데도, 남성은 오십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합니다. 명절 때 세뱃돈을 준비했는데 세배하는 아이들은 다섯 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다른 집도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왔다가, 지금은 1인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고령화가 되고, 이

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1인 가정이 행복한 모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대가족 이상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과제와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고 뒷산 나무는 어떻게 심고 하천의 물을 어떻게 깨끗이 쓸 것인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1인 가정이 되어 관심이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 공동체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중앙은 8할, 지방은 2할 자치입니다. 독일과 우리는 다릅니다. 독일은 7할 이상이 지방자치입니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치가 5할 가까이입니다. 미국도 6할 자치입니다. 중국도 거의 6할 자치입니다.

독일의 주는 16개입니다. 5개 주는 동독 주인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주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서 다시 주를 부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지만,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강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약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우리와 비슷한 곳이 일본과 그다음 미국입니다. 독일은 우리와 먼 나라입니다.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학진학률이 50%도 안 됩니다.

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행복국가'를 만들자고 하는데 슬로건은 좋습니다.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다 쥐고 있으면 절대 대통령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80%의 재정은 국가 재정이고 20%는 지방인데, 시군이 13%, 도나 광역은 7%입니다. 전부 국가의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돈을 전부 지방에 다 줍니다.

우리 경기도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곳이 102개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한 시군에 3개 이상을 국가가 직접 다 합니다. 지방은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도장 찍으러 중앙에 가야 합니다.

권한을 나눠 줘야 지방도 발전되고, 대통령도 행복해집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비가 많이 안 와도 대통령 때문이라 탓합니다. 그만큼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대통령이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절대 권력을 가지기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행복한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권한과 재정을 분권해야 합니다. 2할 자치를 4할로, 그다음 5할, 6할로 차차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분권과 자치가 안 된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장관과 총리, 즉 내각의 임기제를 해야 합니다. 경찰총장과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인데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과 총리도 임기를 줘야 합니다. 약 2년 반 임기제를 뒤서 대통령 임기 중 두 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1년이라는 임기라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루살이 장관이 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장관들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에 주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분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빙자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투명하지도 않고, 원천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강국,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분권을 해야 합니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국회와 중앙 언론이고, 제 생각과 반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초단체장, 시장군수와 시의원·군의원을 정당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도의원은 국회의원의 완전한 밥입니다. 시장·군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가 국회의원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잘립니다. 그들은 절대로 경쟁자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자는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줘야 국회의원도 잘될 수 있습니다. 공천제도 저

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국민 참여 완전 경선제로 가야 하는데, 부작용은 많을 것입니다. 그 지역 토착인들, 위로만 바라보지 않고 뿌리가 대지에 박힌 꽃이 아름답고 향기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대통령 두세 번 더 지나가면 미국 대통령이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유럽계 미국인이 아닌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흐름을 지원하는 노력에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Can do' 정신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루어 냈습니다.

다만 아이를 좀 낳아야 합니다. 자원은 없어도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사람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서는 강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인류 중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코리아를 보세요. 코리아는 베트남, 아르헨티나, 멕시코보다 더 못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대단한 나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정신만이, 대한민국이 전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글로벌화 돼야 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사람들은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너무 작은 나라이기에 처음부터 모든 교육을 영어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TV도 영어로 듣습니다. 모국어와 영어를 같이 배웁니다.

우리는 전부 내셔널하게 돌아갑니다. 글로벌한 것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덴마크는) 글로벌 마켓에서 지금 어떤 성공을 할지 설계, 디자인부터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많이 하는 것인데, 경제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 재벌의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투자를 안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코리안의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미국 주류 시장으로 진출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도 미국 시장도 모르니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성공을 1년에 10개 이상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볼륨 자체가 작고 소량입니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수원이 본사인데 연구동에 만 명씩의 연

구원을 채용합니다. 80%는 국내 젊은 우수 인재들을 연구 인력으로 채용합니다.

경기도에는 전통시장도 186개인데,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에 안 들어갑니다. 경영 상담해 주고, 디자인 필요시 가게도 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안 갑니다.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것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지난 구정에 삼성이 2천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광명 KTX 역사 앞에 코스트코가 들어왔는데 광명, 안양, 수원, 부천,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인천에서도 이곳에 몰려옵니다. 코스트코는 공부를 하고 젊은이들이 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좋고 훌륭한 아이템과 제품을 만들어서, 이마트는 중국에 진출해서 실패했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유통·판매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세계의 소비자들, 세계 글로벌 마켓을 디자인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류가 없어서 좀 뒤쳐진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농업은 카타르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IT, 로봇, 여러 소재 등이 자동화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모든 게 결합된 '버티컬 팜(vertical farm·수직농장)'이 진출했습니다. 카타르, UAE 등으로 우리 농업이 뻗어갈 것입니다. 물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기술이 뻗어 나가

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장을 가서 덴마크 돼지 축산을 봤는데, 우리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돼지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세계 선인장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경기도에 사막이 그렇게 많으냐고 합니다. 저는 선인장을 사막에서 키우지 않고 온실에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수경재배하고 접목하는 육종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인장을 만들어 50센트 내로 수출을 합니다. 100%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땅이 넓어서 농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어가 제일 장벽입니다.

둘째, 내셔널리즘에 빠져 자기 방어, 스스로가 장막과 장벽을 쳐서 자기를 줄이면 안 됩니다. 글로벌한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월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100명 가까이 있는데, 유태인들은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알려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나라, 잘하는 곳과 손을 잡으면 제조업에서 성공한 것 이상으로 나머지 서비스·금융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역대 대선을 보면 항상 시대에 맞는 그 시대 국민에 맞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 시 새누리당에서 차기 선두로 꼽히는데,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개인적으로 어떤 슬로건을 가질 계획이신지?

### 답변

저는 통일 강국,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기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저는 이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강국도 관심 없고, 박 대통령처럼 국가가 강한 것보다는 국민이 행복해야 하고 행복은 정신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인간관계, 가족 제도 등 모든 면에서 물질 위주에서 정신 위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개혁을 해야 합니다.

### 질문

우리나라가 전범 국가가 아닌데 분단됐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우리가 통일 강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핵 문제나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 교류나 지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인데, 엇그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된 게 있는데 북한과의 교류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몇몇 사람들이 통일 전에 계속 교회에 모여서 통일 기도를 하는데, 장벽을 무너뜨린 원인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니, 당시 동독은 꽤 좋은 사회라 생각하고 안망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독 주둔 소련군이 많은 때는 50만 명에서 나중에는 10만 명으로, 서독에 주둔하는 미군보다는 동독에 소련군이 많이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망한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동독이 서독보다 차이는 났지만 경제력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자신 있어서 서독의 TV와 라디오도 듣게 했습니다. 그게 서구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독 공산당이 약간의 여유를 갖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북한은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해 보라 합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중국처럼 하면 자기들은 넘어져서, 핵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불안하고 동독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 통일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특이한 것은 북한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식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불안을 약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개성공단처럼 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핵무기 자금줄 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다만 국방상 핵이 너무 세고, 핵이 비대칭입니다. 핵, 미사일, 잠수함, 생화학무기 등은 우리가 북한보다 약한데 그것을 보완할 길은 미군밖에 없습니다. 미군에서 B2 등 강력한 무기를 때리면 베이징까지 날아갑니다. 미군 없이 우리가 과연 방어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군은 빈 라덴을 10년 이상 따라가서 처단했습니다. 미국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조금 흐지부지합니다. 지금도 KAL기 폭발을 누가 했냐고 군에서 논쟁합니다. 이런 것이 국방에 가장 마이너스입니다. 우선 국론 통일이 안 됩니다.

국방은 정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NLL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서부터 우리는 합의가 안 됩니다. 국방 안보에 한미동맹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경기 북부로 말라리아 모기가 날아옵니다. 오늘도 임진강 물이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북한 시체도 떠내려 옵니다. 그래서 임진강 관리도 남북이 같이 해야 합니다. 북한이 댐을 막아서 3분의 1을 예성강으로 유로 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모기도 피해지의 60%가 경기도입니다. 강화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등 DMZ 따라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약에 10억을 2년 밀어주니 환자가 반 이상 줄어들었

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약해져서 또 주춤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남북이 싸우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교류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북한에 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도가 개성공단에 교류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도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는 철저히 하고, 나머지 인도적 지원은 충분하고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 질문

요즘 언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정원 개혁에 대해 해외정보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 답변

저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인데 요즘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가 정보기관에 많이 붙잡혀 있어 봤는데, 이분들이 목표물이 움직이면 그 친구가 누구고 뭘 먹고사는지 다 파악하고 몇 수 앞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정보 파트는 정치와 철저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력이

약해집니다. 철저하게, 어떤 대통령이든 누구로부터도 정치적인 개입이 안 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CJ그룹 상무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으로 기업들이 곤란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에 때리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양극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골고루 잘사는데 실제로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해결책 하나와,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가 고령화 저출산인데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 답변

첫째, 국가와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 '세금을 안 올리고 돈 다 줄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양극화의 책임은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으로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주민등록도 만들어 주고, 옷도 주고 임시 주거도 마련해 주고 생활비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첫째 임무가 그런 것입니다. 노숙인, 서민 등의 사람들을 돌봐 줘야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의 교육이 첫째 잘못이고 우리 언론도 잘못입니다. 제가 목사님, 신부님, 스님에게도 결혼하라고 설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안 됩니다. 종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남편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생각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여성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여성들에게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데, 국가에서 보육을 해 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집으로 보육교사를 보냅니다. 출산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고 시 경기도가 1억 보상을 하고 교재를 나눠 주는 우수한 가정 파견 보육교사를 보냅니다.

경기도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3교대가 8,000명 이상이 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부지를 우리 도가 하나 구해서 시도와 국비로 3교대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굳이 회사 나올 때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잔 후 찾아가도 됩니다. 인기가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들어오겠냐 했는데, 지금은 너무 모자라 또 짓고 있습니다. 3교대가 여성 경찰관, 여성 소방관, 병원의 간호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최우선으로 그것부터 해 줘야 합니다. 교사들이 기피하여 안 할 것이라 하지만, 아파트 주고 수당도 더 주고 해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도 안 돼서 귀가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디가 있냐고 물으니, 선생님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다 맞벌이입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가 물어보면 엄마가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도청에 만들었습니다. 공부 외에

피아노, 바이올린 등도 가르치며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아 가르칩니다. 학교라는 좋은 시설을 왜 누구나 이용하지 못합니까.

엄마에게 맞춰 주는 맞춤형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는데, 교대 졸업 후 대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는 기숙학교를 지지합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기숙학교를 만들어 과외 필요 없이 기숙학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엄마의 걱정은 아이 교육의 비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노인들이 오래 사시는 추세인데 그분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좋은 역량들이 사장되지 않고 공익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질문

통일 한국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대국들이 분단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통일 한국을 하겠는가 의문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안보와 남북에 원칙적인 입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답변

첫째, 중국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이 무조건 북한 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추락 중 승객이 대부분이 중국인이었고 한국, 미국인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서비스가 좋습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도 기분이 좋고 값이 싸입니다. 값싸고 서비스 좋고 안전하다면 중국인들이 한국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한국이 멋있는 나라가 되고 편리하고 친절하며 값싼 제품과 서비스를 준다면 중국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에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고의 상품이라는 평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한국인들은 양심적이고 상대도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좋은 인식을 준다면 강대국과 국제 사회도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 외교 문제는 잘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서 외교와 남북관계에서 표를 잘 얻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CJ 이재현 회장님도 잡아가고 SK 최태원 회장님도 잡아갑니다. 국가에서 경기도시공사에게 돈, 세금 추정금 1,500억을 달라고 합니다. 서울의 SH에도 2,500억을 때립니다. 공기업도 때리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때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경제 내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도에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는 가축 염색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 조절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일시 2013년 7월 25일 화성시 동탄역 GTX 추진 현장

우리 황우여 대표님 외 주요 당직자 여러분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생 정당이자 경제 정당입니다. 우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지방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지방이 어렵습니다.

며칠 전 취득세를 반으로 줄인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지방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0%입니다. 이 세원을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저에게는 전화 한 번, 회의 한 번 없었

습니다. 도지사 7년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중앙이 삽니다. 부동산을 살려야 민생이 삽니다. 지금 집 가진 사람은 집값이 떨어졌고, 대부분 집도 안 사고 전세로 삽니다. 부동산 안 살리고 민생, 내수가 살겠습니까.

살리려면 취득세를 낮추는 것보다 양도세를 바꾸는 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국가, 국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직 국회,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반대, 법률문제를 말하지만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다수 정당의 의석을 드리고 대통령도 뽑아 줬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을 살려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많은 노하우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이상으로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LH에서 택지개발 102군데 사업을 하지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가 너무 셉니다.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는 경기도시공사에 세금을 1,000억 이상 규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세금을 많이 냈는데 올해도 이렇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세무조사를 한다면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기업의 기를 살려 줘서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 자본을 들여와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본이 국내 투자보다 7배 이상입니다.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대기업 일자리를 좋아하는데 대기업을 계속 때리니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중소기업에는 빈 자리가 많아도 안 갑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일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업을 살리고 첨단기술, 자본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GTX 관련해서, GTX는 수도권외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행복철도입니다.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GTX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민자가 50%를 차지하고, 동탄 지역에서도 광역부담금으로 주민들이 이미 돈을 다 내봤습니다. 국비는 30%만 들어가면 됩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1년 8개월을 끄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빨리,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일부터 해결하고 정의로운 민생 경제가 필요합니다. 황우여 대표님 외 새누리당 지도자 여러분들, 조속히 통쾌하고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 기우회

---

일시 2013년 7월 26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반갑습니다.

지난달 제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상당히 강한 나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득은 5만 3천 달러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잘살더라고요. 땅이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지만, 강대한 바이킹 국가로서 북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니 글로벌한 생각을 갖는 나라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된 공중파 방송이 계속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도록 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볼보, 이케아, 발렌베리 등 세계적인 그룹이 많이 있

는데 전부 문어발 기업입니다. 금융, 가구, 자동차 등 모든 부분에 손을 대는데, 그러면서도 사회봉사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그룹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그만큼 기업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웨덴 발렌베리 기업은 금융, 제조, 유통,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을 다 장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나라가 잘나가고 강한 나라를 유지하는 비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어와 네트워크를 글로벌화하고 다양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문어발 경영을 하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전 세계에서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소득이 4만 6천 달러로 두 배가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일본에 교환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중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20년의 침체를 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기업을 만나 보면 큰 장기 침체를 이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지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는 폭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치산치수를 많이 생각했는데, 4대강을 한 여주 지역의 남한강 지역은 (원래)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위가 3m서 6m로 낮아져서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치수는 기본적으로 강을 준설하고 독을 만들어야 치수가 됩니다. 이번에 임진강은 북한에서 한강댐을 갑자기 열었는데, 과거에는 임진강이 범람했지만 군남댐을 3년 전에 만들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댐을 만들어야 결국 재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치산은 아시다시피 산림녹화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분입니다. 사방댐을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개 이상 만들어서 앞으로 1,000개 이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방댐을 만들면 산사태가 일어나도 민가까지 오지 않고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강만 2천 6백 개가 넘는데, 이제 겨우 4대강 사업을 북한강 일부와 남한강 일부만 했습니다. 나머지 2,500개 이상의 수많은 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독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보와 댐으로 물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우처럼 1년에 오는 비가 하루 만에 오는 대참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몬순 기후의 나라는 치산 치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요즘 경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우리 세금 중에서 50%가 취득세인데 그것을 반으로 자르면 도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는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지나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전화나 회의를 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살리겠습니까. 민생은 대통령 혼자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재원의 절반을 깎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살려야 민생이 삽니다.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 부분에서 획기적인 폐지를 하거나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집이 남습니다. 2015년 까지 260만 호를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을 살리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민생 살리기에 이어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온갖 법을 만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지만 나가서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조금밖에 못합니다. 삼성이 고덕에 투자 한 번만 하면 우리나라가 전국에 다 하는 투자보다 더 큼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보다 우리 자본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4배가 넘습니다.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외국 자본은 물론 복잡해서 잘 오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자본을 외국에 못 나가게 하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왜 나갑니까. 최근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1,000억 이상 세금을 때렸습니다. 작년은 1,400억 이상 냈습니다. 서울의 SH 공사도 2,500억 세금을 때렸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려 줘도 신통찮은데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수도권 규제도 일본은 20년 전에 다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수도권 규제를 합니까. 시대착오적인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제 천국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경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혁파해야 기업이 증축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와 중앙정부와 지방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찾아서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최근 너무 세수가 어려워서 경기도 예산 1억을 깎으니 민원이 최하 1,000명 이상이더라고요. 8,600억 이상을 깎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으로 줄이니 아마 1조 이상을 깎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해 주세요.

어제 발표를 보면 경제가 약간 나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나아져서 道 전체나 기업이나 가게가 활기차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8월 월례조회

일시 2013년 8월 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복절이 돌아옵니다. 68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되기 직전까지도 광복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모르는 상태에서 큰 해방과 광복이 왔습니다.

제가 독일도 가서 보니 라이프치히에서 강력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시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의 대표자들도, 서독에서도,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큰 역사적 사건은 매우 가까이 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생활에 바빠서 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 못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줄 아는 미국의 어떤 외교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안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8·15를 맞이하여 건국의 달이 왔습니다. 건국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 민족적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평화통일의 과업이 남았습니다.

둘째, 우리도 선진 강국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코리아가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도 주변국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선진 강국의 대열로 들어 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바로 국방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확고한 국론 통일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땅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국가 수호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론의 통일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렵습니다. 남북이 다른 체제가 대치해서 우리 내부에도 친북, 중북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당, 야당이 있지만 성조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미국 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극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념의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60년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해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 없다면,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 과연 소련과 중국과 접경하는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 생각하면, 통일은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국민 인식이 국민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가 앞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38배 경제력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경제력) 격차가 5배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못 살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가 안정되겠습니까. 불만도도 굉장히 높는데, 모두가 불만 속에서 산다면 과연 이 체제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동독은 미국 군대의 두 배 이상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이후에

소련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기에, 바로 동독은 붕괴됐습니다. 동독이 붕괴된 것은 바로 소련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동독에 소련이 미치는 영향만큼 매우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매우 변화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굳건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면서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있을 때만 우리의 통일이 가능합니다. 매우 어려운 방정식이지만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3천 달러고 일본은 우리보다 두 배 많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는 5만 달러 이상입니다. 선진국이 대체로 4만 달러 이상에서 5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우리와 비슷하다가 우리보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됐고 GDP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세금도 안 걷히고,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가 보면, 그 정도 인구를 가지고는 땅속에 기름이 나오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머리를 짜내고 뭉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헝그리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지금 헝그리 정신이 없는데 무슨 정

신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까.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만 3천 달러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러시아도 기름, 가스가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암만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몸속에 자원이 있는데 몸에는 정신력이 있습니다. 이 정신은 물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강력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매일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북한의 강원도 고성 민가에 가 보니, 안방에도 김일성·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 너 장을 방마다 다 걸어 놨더라고요. 달력은 없을지언정 사진은 다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하나로 다 뭉쳐 있습니다. 좋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이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보고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핵심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안에 개인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가족이고, 크게는 나라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방이라는 경기도 수원시가 있지만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확고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PD 한 분이 자살했는데 빗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빗은 못 갠아도 교도소에 가 있다가 갠으면 되는데 자기 목숨과 빗을 바꿔 안타까웠습니다. 또 아이들이 성적이 나빠서, 또는 취업이 안 돼서, 또는 연애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너무 경시돼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위대함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이 사람을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게 모시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평화통일과 선진 강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공무원에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물건을 잘 만들어 팔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공동체가 잘 유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 68년이 됐지만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전쟁도 쳐서 자기 짓값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도 23년 전에 통일됐습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침략도 학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식민지를 했다는 이유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질고 힘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주체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존재가 공무원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해방된 대한민국이 건국된 8월을 맞이해서, 국가적인 큰 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천 년 만 년 갈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사명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내다보시며 일상에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 청년소통한마당캠프 안보탐방 초청특강

일시 2013년 8월 12일 평택 2함대 사령부

많이 덥죠? 오늘 복날인 것 아시죠? 말복이 제일 더운 것 아시죠? 말복이 제일 더운데 말복 중에서도 올해 말복이 제일 더운 날, 핫한 날에 청춘의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사령관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별이 부사령관님까지 합쳐 세 개 뻗습니다.

특히 해군의 별은 제독이라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육해공군 중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순신 제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별 4개, 해군참모총장에 이르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독이라고 답해 주셨던 학생에게 함께 오신 박재광 위스콘신대 종신교수님이 모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하고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나 여쭙 보면, 조국이 그림고 걱정돼서 돌아왔다 하십니다.

미국에는 한국 사람이, 즉 코리안 아메리칸이 약 250만 명에 이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케냐 사람인데, 어떻게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요?

앞으로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최하 몇십 년 이내에 한국 사람 중에 미국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혼 뒤 오바마를 혼자 키우다 인도네시아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등, 오바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대통령만 꿈꿀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몇 개로 나뉘졌을까요?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하나씩 나눠 가져 4개로 갈라졌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 중심인 히틀러는 어떻게 나치 제국을 건설하게 됐을까요? 쿠데타로 됐을까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나요?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국민들이 찍어서 뽑아 준 사람입니다.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몰아넣었고,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등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히틀러와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 패전 국가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전쟁에서 이긴 4개 나라가 독일을 4개로 쪼개서 나눠 가졌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역시 2차 대전을 일으키고도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굴 괴롭히거나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왜 분단이 됐을까요. 아는 학생 발표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착한 나라이고, 전 세계 250개 국가 중 가장 토끼 같은 순한 나라였습니다. 식민지가 된 이유도 바로 군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군이 약해서, 강한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일본이 부산으로 들어와 파죽지세로 침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2함대 사령부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수고하시는 2함대 사령부 장병에게 박수를 쳐 드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 해군의 3배에 이르는 강한 해군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십여 년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서 미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은 가까워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독도, 백두산, 마찬가지입니다. 황해 바다가 어디까지입니까. NLL보다 더 많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행스럽게 태평양 건너 있어 싸울 일이 별로 없고 관계가 좋습니다. 결국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가면서 가급적 일본과도 잘 지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 우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우고 함께 주장해 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외교는 친구, 이웃과 힘을 합치는 일입니다. 이 세계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법입니다. 확고한 땅과 국민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하고, 여러분은 오늘 그래서 온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 봅시다. 2함대 사령부 파이팅!

##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일시 2013년 8월 22일 국회 귀빈식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 시골 출신입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밥을 한 번 실컷 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많이 먹거나, 죽도 멀건 죽을 많이 먹어 늘 배가 고파 밥을 제대로 먹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요즘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배도 많이 나와 운동 중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도 보건소도 병원도 약국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료 수준 자체가 워낙 앞섰습니다. 미국의 교포까지도 한국에 와서 건강 검진도 받고 암 진단을 할 만큼,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험제도, 의료 기술 자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며칠 뒤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에 가는데, 우리 병원이 그쪽에 건강건강센터를 여는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도 로스앤젤레스에 원격 지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에 개업하는 메디컬 닥터 수만 1만 8천 명이 넘고 의과대학 학생도 3,0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의료 측면에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서당에 다니면서 명심보감, 사서삼경을 읽고 자랐습니다. 전기는 30대 돼서야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3선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인데 잘못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해도 개인의 권력 연장을 위해 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18 탑에 가서 성명문을 읽고 왔는데, 선생님이 와서 반성문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못된 게 없고 교과서에 봐도 3선 개헌이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왜 쓰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 집 문간방에서 사촌들과 살았는데,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막막해서 친구들과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 학교에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니 우선 제일 어려운 점이 서울말이 잘 안 들리는 것이더라고요. 당시 라디오가 없어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에 판잣집이 많은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어릴 적 살던 판잣집과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심한 판잣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잣집을 전부 철거를 해서, 빈민들에게 광주 국유 산림지에 텐트를 주고 거기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권 서클에 들어갔는데 '후진국 사회연구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누가 오면 반일 데모를 하고, 반일·반미·반정부·반재벌을 하며 대학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70년에 들어갔는데 전태일이라는 젊은이가 분신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의 어머니 집이 창동 판잣집이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청계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근로기준법은 모두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초등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는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안에서는 '저놈이 공부도 좀 하고 서울에서 집안의 별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빨갱이가 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정보부 보안대 대공담당 형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평화시장 옆 동문 상가에 나지막한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에 통행금지를 할 때까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어린 여성 근로자들이 계속 와서 울더라고요. 울 데가 없어서 화장실 외에는 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녀가 같이 쓰는 공중화장실에 와서 울더라고요. 정말 이런 데도 있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유신시대 때입니다. 유신 반대를 하고 민청학련 때 수배가 돼 또 도망을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민청학련 수배 중 임종할 지경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시골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유언이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니'였습니다. 가슴에 너무 맺히더라고요. 그 유언을 듣고 20여 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졸업장을 땀는데, 어디 보여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에 놓고 절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민청학련 끝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공장을 다녔습니다. 공장 생활 7년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사, 원동기취급기능사, 보일러기능사 등 자격증을 따니 당시 청계천 봉제·재단보다 봉급이 5배가 많아지더라고요.

한일도루코에 들어갔는데 봉급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공장 생활을 하다가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키보드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프리포즈를 했는데 관심 없다고 자르더라고요.

1980년에 교도소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급진적인 혁명 노선을 걷는 것 아니냐 해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을 엄청 당하고 당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40일 조금 넘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나와 보니, 당시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 노조 활동을 했던 50명이 다 잘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파업을 해서 제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민주화운동 중 저는 또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가 돼서 복직을 하기 위해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이야기가 '김문수, 며칠 시골 갔다 와' 하더라고요. 그때가 계엄 상태인데,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을 텅텅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는데, 더 이상 피해 다닐 곳이 없어서 집사람 동생들 뺑집 뒤 다락방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계엄 끝나고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순천 여자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결혼을 하니 먹고살 게 없더라고요. 대학 졸업장도 없고 공장에도 못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봉천동에 작은 책가게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봉천중앙교회의 교육관에서 했습니다. 저는 청첩장

도 안 만들고, 예식장도 예복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이라고 생각한 형사들이 닭장차를 5대 끌고 와서 결혼식을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주례 보는 사람은 대한전선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1986년 5·3 인천 직선제 개헌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유신 시대 아니냐며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군 보안사령부에 가서 고문당하고 교도소에 보내졌습니다. 2년 6개월 교도소 생활 후 1988년 올림픽 끝나고 석방됐습니다.

그 당시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개혁·개방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소련이 잘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무역을 하는데, 한심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독일도 무너지고 보니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이 어느 정도 평등하다, 동독도 평등하다, 자본주의 시대는 잘살아도 불평등하지만 막상 보니 거기가 더 불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민주주의인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민중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해 보니 1992년 당시 다 떨어지고 당이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로공단 오거리에 권인숙이라는, 성고문을 당한 여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받은 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저에게 맡아 달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등을 과감하게 해서 지지율이 92%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민자당에 들어와서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민 개혁이지만 보수 집권당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1994년에 입당해서 1996년에 부천 소사구에서 조직책을 맡았습니다.

선거 당시 후보가 박지원 대변인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의 박재환 장관의 집안 조카가 현역 국회의원 두 번째를 하고 있었고 재산등록 1위였습니다. 그 둘을 상대로 선거를 하니, 사람들이 저보고 다 '당신은 3등이야, 알고 왔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불만 나면 불자동차 뒤에 따라가서 다친 데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세를 사는 신혼부부가 많은데 저지대라 비가 와서 잠기니 화가 엄청난데, 제가 도와 드릴 게 없냐고 했습니다. 시장, 대통령이 먹을 욕을 저한테 실컷 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

선거 3일 전에 제가 1등이 돼서 15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최대 이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보다 잘생기지 못하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호남이 30%, 충청이 30%, 나머지 경기도가 20%, 경북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되자마자 당시 김인환 당대표가 와서 하는 말씀이 '김 형, 왜 거기 가서 국회의원을 하나. 정치는 고향에 와서 해야 재미있다. 대구 영천에 가서 하라' 하면서 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사람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정색을 하며 하는 이야기가, '당신,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야 되겠느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선이 됐는데 된 지 며칠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 국회의원 배지가 안 부끄럽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지역은 두 번 연속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 다 거기서는 안 되고 다른 살길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내더라도 사람이 신의 있게 해야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선거 때가 돼야 코빼기를 보이지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 둘째,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 셋째, 국회의원들의 말은 거의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코빼기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그다음 날 역곡, 소사, 부천, 송내역 등 5개 전철역에 가서 새벽부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직 선거가 안 끝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를 하는데, 박지원 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화부 장관이 됐습니다. 실세가 됐습니다. 설욕전을 하는데 열심히 지역구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열심히 해서, 마지막

조사를 했는데 제가 1위를 했습니다. 최고 득표율을 가지고 득표율 1위가 됐습니다.

세 번째 하고 도지사로 나섰습니다. 도지사로 나서니, 사람들이 '경상도 말투가 남아서 어떻게 경기도지사를 하나. 경상도지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 10년을 했지만, 사실 경기도 본토 토박이가 볼 때 그렇게 느끼겠다 싶어 서울말을 배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그냥 도지사에게 도전했는데, 지금 8년째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최장수입니다. 4년 이상 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공무원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지켜올 것입니다. 매일 보니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하다 보니 경기도 구석구석, 아 지금 같으면 어디에 물난리가 나고 오늘 밤 어디에 산사태가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경기도 구제역 때 살처분을 한 곳에 침투수가 되지는 않을까, 땅속에 묻어 둔 소·돼지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름에 북한에서 시체가 떠내려오는데, 북한은 독이 없고 수리 시설이 안 돼 비만 많이 오면 민가를 휩쓸어서 시체가 떠내려옵니다. 북한에서는 말라리아모기도 많이 와서 군 장병들을 물어뜯습니다. 파주, 고양, 김포, 연천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데 대한민국 말라리아 환자의 절반 넘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모기장, 모기약도 주고 말라리아 환정 진단키트도 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북한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

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들, 농민들, 노동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연장근무 수당을 위해 파업을 합니다. 저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 연봉이 거의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와 비슷한 수준인데 계속 파업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노동자들은 보통 포천·양주·연천·동두천의 염색 공장, 가구 공장, 도공 공장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도 못 구해서 17만 명 일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 조건을 낮게 해 주는 여러 가지 능력이 중소기업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봉급을 조금 동결해 놓고, 자기 봉급 올라가는 만큼 올리지 않고 중소기업에 하청 단가나 세금을 올려서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도 짓고 식당도 짓게 도와야 합니다. 자기 할 것 다하고 말로만 중소기업 도와주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저는 밥을 많이 굶었기 때문에 밥 굶는 아이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밥 굶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무상급식을 하다 왜 안하느냐 하는데 결식아동, 한부모 아이들은 다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칸막이가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맡아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무상급식은 도와 시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결식 아이들에게 합니다. 또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시와 도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교육청에 넘기는 게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국가도 세금이 상반기 9조 넘게 안 들어오고, 우리 도도 2천억이 안 들어오고, 올해는 5천억이 안 들어옵니다. 추경을 짚는데 3천억 이상을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를 짓는데 학교 부지 용지를 사는 돈의 절반을 도가 대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청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 용지 부담금, 우리가 건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인데 줘야 하지만, 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줄 여력이 안 돼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한돌봄도 합니다. 무한돌봄은 2008년에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청계천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로 몰려 도망가고, 부인이 시부모와 아이를 책임지고 삽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죽이려 하니 너무 무서워서 목욕탕 청소도 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울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취급하는 복지 제도가 140가지가 넘는데, 이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바로 직전까지 집도 있

고 차도 있고 전년도 납세 실적도 우수해서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무한돌봄을 만들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서류 심사 없이 바로 도와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만두는데, 일단은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복지 중에는 일등의 복지가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세금의 절반이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전부 '올 스톱'입니다. 지금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집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집 가진 사람은 푸어(poor), 가난뱅이가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못 받지만 현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면 1~2년 후에 떨어집니다. 그러느니 전·월세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년간 부동산 침체를 겪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의 도심지, 신도시에 다 갔습니다. 일본은 20년간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실제 소비자 수요자에게 맞도록 맞춤형 주택·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매우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위기를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아이를 더 안 낳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핵가족 시대에서 지금은 1인 가족 시대로 변했습니다. 시집, 장가를 안 가거나 가도 헤어집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황혼이혼까지 하다가 요즘은 의

료가 너무 발달해서 여성들은 80~90세까지 정정합니다. 그러니 주택을 갖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원룸이 더 편리합니다. 집이 앞으로 안 팔립니다.

둘째, 경제가 성장 추세가 돼야 집이 팔리는데 연속 13분기 1%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전 세계 성장률 1위를 한 것,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집이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정당 국회는 '부동산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중과세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가진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집에 투자해야 건설 경기가 살아납니다.

경기도는 주택 2020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7년간 경기도는 260만 호의 주택을 더 짓게 돼 있습니다. 1년에 40만 호를 지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요는 100만 호가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남아둡니다. LH공사에서 경기도에만 짓는 게 130만 호가 계획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짓는 것을 빼더라도, 국가에서 짓는 것만 해도 30만 호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으니 집이 비고 폭락합니다. 중과세를 때리고 집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할 게 아니라, 집을 사는 사람은 칭찬하고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열 채를 사도 대한민국의 표창장을 줘야 합니

다.

우리나라 주택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많이 짓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200만, 김영삼 대통령 국민임대, 이명박 대통령 보금자리주택 등등. 경기도는 2,500만 평이 주택 용지로 나왔습니다. 하남, 양주 곳곳에 벌여 놨습니다. LH만 102개를 벌여 놨습니다. 이 과잉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간이 하는 주식 투자는 과세를 안 하는데, 주택은 중과세를 합니다. 서민에게 가장 투자가 익숙한 것이 주택입니다. 서민들은 집 한 채 정도는 내가 살 집, 내 아이 살 집이라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전문성이 큽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집 한 채 사서 내 새끼 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1가구 2주택이 그렇게 나쁘니까. 저는 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노인은 세 채 사서 노후의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게 나쁘니까. 저는 그것을 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집이 없는데 한 사람이 두 채 갖고 있어서 욕했지만 지금은 집이 남아둡니다. 이것을 줄이려고 발표를 했는데, 광명·과천·고양·양주·의정부·성남 전부 LH가 하는 데만 100군데가 넘는데 이것을 줄이려고 하니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 동네 집을 짓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포기하니,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김문수 물러가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과잉 시대에 주택을 규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주택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규제가 없고 수도권 규제가 없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뒷북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북에 가면 경북 사람들은 '당신은 고향을 배반하고 경기도만 잘살면 되느냐' 합니다. 우리 처가도 순천인데, 처가에 가면 '김 서방, 경기도만 생각하지 말고 순천도 생각해 보소' 합니다. 지방에서 저는 역적으로 취급됩니다.

저는 이 작은 나라에서 동서남북 가르지 말고 너무 싸우지 말자 합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에게 다 쥐야 합니다.

부산에도 그린벨트, 해양 규제가 많습니다. 또 전라도에도 섬이 많은데 천혜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전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무인도만 해도 1,000개가 넘습니다. 저는 호텔도 좀 짓자, 두면 뭐 하느냐 합니다.

후손에 준다고 하는데, 후손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저도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도 돈을 별로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결혼 시에 실업자 상태였고 집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해서 얹혀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하니 집사람은 '당신이 키울 것인가' 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낳아야지 하는 자기희생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도 더 낳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아이 욕심 가져서 뭐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낄대, 일반 어르신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권위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만나 기도하실 때 강론하실 때 꼭 아이 많이 낳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하느님의 뜻과 부처님의 뜻과 같다고 말씀해 달라 합니다.

그래도 안 통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급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엄마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냐 합니다.

경기도는 애만 많이 낳으면 (승진) 가점 3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 낳으면 6점이 되니 과장도 금방 승진됐습니다. 애만 낳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우선 보내 줍니다. 아이 낳은 엄마들의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공무원들은 서비스직이라 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 개인의 책임이거나 가정의 책임이거나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도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선생님 위주입니다. 이게 아니고 엄마 말씀을 듣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했는데, 맞벌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경기도청 사무실을 비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만 받아서 그 애들에게 밥 주고 숙제해 주고 과외해 주고 악기도 가르치고 도청 운동장에서 운동도 가르칩니다. 만족도 90%가 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자고 하니 '전교조가 가만히 있겠나'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도 아이가 있는데 집에 가야지' 합니다. 선생님들이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학원, 과외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벌이 엄마가 6시에 옵니다. 학교는 1시에 끝납니다. 학교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만 조금 모시면 이미 거기에는 식당이 잘돼 있습니다. 주방 아줌마들만 교대를 해서 밥을 주면, 최고로 믿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엄마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기숙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자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높아지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살 안 해도 자기의 고민을 풀어 줘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너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도시계획 등은 지방

에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하나 풀려면 중앙에 가서 전부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풀어 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국가에서 밀어 줘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집 짓는 데 풀어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 풀어 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일자리를 밀어줘야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를 통해서 밀어줘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께서 일일이 다 하지 말고 국무총리도 임기제를 두고 장관도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 국무총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최단명, 일주일도 있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소신이 안 생깁니다. 대통령이 총리, 장관 임기를 1년씩이라도 줘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업하는 사람에게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요즘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경기도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있는데 작년엔 1,400억 세금을 때렸는데 올해 1,100억 원을 세무조사해서 또 세금을 때렸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데가 아닌데, 2년 전 판 땅을 도로 물러 줘 10% 계약금 떼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광고신도시 땅값이 20%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세무조사를 무기로 해서 때리니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을 너무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정당히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조사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세금도 별로 안 걷히고 불만이 높아집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 이견희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해서 엄청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류 정치가 맞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심사를 강화하라 해서 국회 202명이 투표했는데 197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돈이나, 화학물질 중에 일정한 위험물질이 수만 가지인데 우리 반도체·LCD·디스플레이 사업 중에는 특히 화학물질을 많이 씁니다. 화학물질은 중소기업이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를 씁니다. 한 개를 등록하는 데 10개월이 걸립니다. 한 개를 심사평가 등록하는 데 7천만원 정도 들고, 100개 등록하면 70억씩 듭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하지만, 중소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LCD·디스플레이가 발전하는 것은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만큼 심사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이제는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LCD, 스마트폰, TV, 노트북, 이런 게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만히 알아보니,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1g만 가져도 모두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화학물질 관리도 굉장히 엄격한데 유럽보다도 경쟁이 안 됩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LCD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로 많은 일자리가 있

습니다. 삼성, LG가 세계 최고입니다. (법이 도입되면) 경기도는 수십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정치가 뭇도 모르고 법을 만들어 이 지경이 됐는데 법을 고쳐 달라' 하니 '시행도 안 하고 고치냐' 합니다. 환경부도 '기업체와 유착돼서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니냐'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를 많이 하는데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일본 전자, 자동차부품 회사에 가서 보니 일본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5가지가 있다면 세계 일등 가는 제품 아닌 게 또 5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온 것 외에 크게 많이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일단 땅 자체가 우리보다 3.7배 넓고 인구는 2.5배 많습니다. 나고야만 해도 노벨상을 탄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독도를 지키려면 우리나라의 공군·해군이 힘이 있어야 하지만,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무장으로 하면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이어도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의 무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압록강 가면 섬이 100개가 넘는데, 이게 전부 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과 필연적으로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섬은 중국 땅이 딱 붙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경하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무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45배가 크고 러시아는 70배 큼니다.

지금도 을지연습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 최전방을 지키는 통합방위위원회 의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없다면 첫째,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UN의 무인정찰기가 있는데 그것이 죽 떠서 보고 미국의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김정은이 어디 가서 지휘하고 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봅니다.

이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도발을 안 합니다. 김정은 하나가 다치면, 우리는 경기도지사 저 하나 없어도 상관없이 잘 돌아가지만, 북한은 체제가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도발을 하면 정점을 때린다고 해야 전쟁의 역지력이 생깁니다. 핵을 때리면 당신의 정점을 정확하게 때려야 전쟁을 안 일으킨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정보 자산이 부족합니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최첨단의 정밀 무기와 정보 취득 체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전시가 되면 한국 내 모든 비행장이 전부 올 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 비행기가 400대가 되는데 (미국에서) 2,000대가 전력 지원됩니다. 한반도 상공 전체에 지금보다 비행기가 5배가 늘어납니다. 이 정밀한 비행기와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와서, 김정은이 개성 도발이든 뭐든 못합니다.

천안함 이후 우리 작전 체계를 다 바꿨습니다. 한 번만 더 돌발하면 끝이라는 것을 중국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한반도 안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주변의 강력한 일본, 러시아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국방 안보에서 전쟁 역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정보와 화력과 국민의 통일된 의지, 국방 안보 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적어도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여야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합의가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국방, 안보, 외교에서는 여야의 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국방 안보가 튼튼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보트 대회나 요트쇼를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12개 팀이 와야 하는데 2개 팀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떠들었는데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확고한 국방 안보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한미 관계도 좋지만 한중 관계도 좋습니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서 굶지 않고, 최소한 중국처럼 중국에 밥 얻어먹으려 안 갈 정도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기업인들, 외국 투자자들도 한반도 전쟁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30%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아베가 잘나가는 게 기분이 안 좋지만, 아베가 잘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일본 국수주의, 애국주의가 강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가는 이유는.

독일은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이고, 히틀러는 자결을 하고 전범이 다 처벌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가서 무릎 꿇고 헌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정말 나쁜 죄를 많이 지었고 짓값을 받

고 있습니다. 그 첫값으로 독일은 분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침범도 학살도 전범도 아 닌데 우리를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일본은 전범이자 패전 국가입니다.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해서 미국군이 2,500만이 몰살됐습 니다. 일본 항공모함 6대를 가져왔는데 군사력 1위였습니다. 일본이 태 평양전쟁 시 일본군만 7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범 국가임에 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나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단되고 6·25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착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나라에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뉘어 흑독한 시련을 겪습니 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로 왔 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이베로아메리카가 있는데, 23개 나라가 모여 교육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우리 사무실에 재작년과 작년, 올해 에 계속 와서 도와 달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 기 나라에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왕복 70시간이라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배우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코리아타운이 있었는데, 한국 농업 이민 자들이 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동정심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총장이 돼서 학습용 컴퓨터를 입찰했는데, 그게 다 코리아 제품, 삼성·LG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소니,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를 다 제치고 모든 계약을 다 독점을 하는데 어찌된 것이냐. 첫째,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굴러다니는 자동차와 TV도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 보더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의 그 형편없는 농업 이민자들의 나라가, 성인이 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강한 나라가 강한 것은 교육(모델)과 감동이 안 됩니다. 식민지에서 분단이 되고 전쟁을 겪고, 땅을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농업 이민을 온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뤘는지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 낙동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의 절망하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표본으로 퍼뜨릴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요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답답합니다. 너무 나뉘어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 의료 기술이 최고인데, 카자흐스탄 보건부 장관·차관이 다 의사 출신인데 경기도 병원의 수술실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소련, 유럽, 미국, 독일 가서 배웠는데 거기보다 장비

가 좋고 손재주가 빠르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 안 받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코리안은 이 세계 모든 나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김창준 의원도 미국 연방의원 삼선을 하셨습니다.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은 전 세계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 대통령부터 먼저 나올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속도로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차도 없는데 왜 짓느냐고 반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도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포항제철도 짓는데, 우리가 왜 제철을 하는가, 기술과 자본이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반대했습니다. 한국자동차를 누가 사느냐, 리어카나 잘 만들고 자전거나 잘 만들지, 했습니다. 그런데 GM도 다 부도 나고 크라이슬러도 부도났습니다.

미시간 주에 갔는데 주지사도 나오고 디트로이트 시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주지사에게 말하기를, '미국 자동차를 살리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 외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 우리와 협약 체계를 하자고 왔습니다.

미국은 만 평짜리 공장을 1달러만 내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동차의 본고장에 가서도 당당하게 부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 환영을 받습니다.

엘라베마 주에도 기아가 가 있고, 중국에서도 삼성전자 와 달라고 하고, 싸이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평화통일과 강국을 위해 여러분이 인류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갈등과 분열이 많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까.

#### 답변

국가적인 리더십으로 보는데, 우리 역사나 우리의 상황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통방식은 권력을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줘야 합니다. 장관, 총리하고 나누고 국회도 자율성을 더 가져야 하고 기업에게도 줘야 합니다. 그 모델이 미국, 매우 앞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나 제도나 언어 등, 일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도 우리 교포도 많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배우면서 국민들의 안목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민족주의입니다.

식민지 때는 민족주의가 최고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주사파, 중북파가 많습니다. 북한이 또 우리 민족인데 나쁜 것이 있습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은 자유와 정의가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서로 다 잘살아야 합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독재 체제입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하는 것은 나누어야 할 가치입니다. 민족 이상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기우회

---

일시 2013년 8월 30일 중기센터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께서 삼국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 다녀온 러시아를 포함하면 산업지, 미국을 포함하면 오국지, 그리고 6자회담의 북한을 포함해서 이 여섯 개의 나라의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병원장님들과 의료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건강 검진과 의료 봉사, 진료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은 150년 전 1863년부터 조선말에 배가 고픈 분들이 이주해서 살았고, 발해의 유적지인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연해주는 한민족이 늘 함께 살던, 한반도와 똑같이 민족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의료 한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의료가 매우 낙후돼, 손가락을 다쳐도 봉합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잘라 버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가 보니 최고'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아직 남아 있어서, 특히 공무원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와 연해주가 우호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 외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공산권에 오래 있었던 나라일 수록 관공서끼리의 관계가 개선되면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상태입니다. 도 세수의 50%는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시·군은 재산세로, 수원시는 작년보다 세금이 20% 더 들어 왔습니다. 또 교육청은 예산이 더 많이 느는 등, 부조화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경기도입니다.

(전체 세수 중에서) 부동산 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대의 타격을 받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올해는 세금이 약 5천억이 안 들어 왔는데,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약 8천억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6천억의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당장 세금이 안 들어오는 만큼 세금을 깎아야 하는데, 추경으로 약 3천 8백 정도 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봉급과 도로 부분을 깎았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 외에는 다 깎자 해서,

그중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도에서 교육청에 학교 급식을 돕는 부분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실 도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도는 형편이 되는 대로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 용지 부담금이나 교육청에 줄 돈이 1년에 약 2조 가까이 됩니다. 이 넘겨줘야 할 돈도 없어서 못 줄 형편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가 아닌 것은 여유가 있으면 주겠다는 것인데, 마치 아이들 밥을 줬다가 뺏어간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욕도 많이 먹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인심이 난다는데 공간이 텅텅 비니 제가 놀부처럼 인식됐습니다.

어제는 농림단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4천만 원을 밀어줘야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공무원들이 천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천만 원 깎는데도 4~5천명은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천주교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님이 오셨습니다. 수원교구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모아온 돈 20억 이상으로 수원도립병원에 치과 병원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립병원 안에 치과 병원을 신축해서, 거기서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환자 및 노인에게 치과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은 재산은 도립병원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복지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습니다. 무한돌봄 할 때도 수원교구에서 1억을 내셨습니다. 그 이후 설립을 해서 운영하면서, 일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어려운 이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가도 세금이 안 걷힙니다. 국가나 도가 어려울 때 민간이 오히려 주도하는 시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세금 받아서 복지에 안 쓰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광고에 우리가 도청을 짓겠다고 4천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안 걷히는데 도청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이게 옥먹을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청을 짓겠다고 하고서 안 짓는다 해서, 광고에 있는 분들은 저를 사기꾼이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도청을 신축하는 데 4천억 이상을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체, 신축해서 짓는 것을 다 스톱 시켰습니다. 광고에 도청 신축하는 데 4천억 이상을 들어서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억의 빚을 내면, 우리 자손들의 출산율이 1.3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아서 우리 후대에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제가 1억을 빌리면 후대에는 2억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빚을 내서 나중에 어떻게 갚겠습니까.

세무조사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경기도는 매우 어려운데, 국세청에

서 세금을 때려 1천 이상을 내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절약하고 공무원들 봉급도 조금이라도 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긴축과 자기희생을 하여 솔선수범이 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훈 주교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가장 어려운 때 좋은 복지를 희사를 하셔서 좋은 의료 복지를 솔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시민사회 포럼

일시 2013년 9월 11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비도 오는데 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변호사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는데, 상당히 큰 희망이 됐습니다.

(과거 교도소에서) 너무 힘들던 때, 빛도 안 들어오고 몸은 묶여 있고 제대로 물도 안 줘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기억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살아야겠다는 온 몸의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어제도 남한 변호사 100명 이상이 모여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북한의 수용소에 알려지면 희망을 갖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민사회포럼 자체가 큰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빛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맞는 동지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작은 촛불이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기 통진당 사건으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은 서경석 목사님께서 상당한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욕을 많이 들으면서 외쳐 온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광야의 빈 목소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쳐 왔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요즘은 해체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떤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을 따라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 옆에 갔습니다. 저는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정보원이었는지 아니면 적의 수장에게 가서 비밀을 맞추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경기도 지구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정보원의 조직이 그나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찾아낸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당시 중앙정보부, 국가 안전기획부, 경찰 대공분실 남영동에 가 보기도 하고, 군에도 장지동의 보안사령부 대공수사단에 가서 고문도 많이 당해 보고 수사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인권 탄압도 많았습니다. 저도 안 당해 본 고문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북한의 간첩의 활동이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다. 저도 북에서 남파된 간첩들, 주사파들, 운동권에서도 가까이서 비밀 활동을 하기에 직접 지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계 공산당의 활동 중에서 비밀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한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국가정보원이고 대공 수사기관들입니다. 공산당은 독특한 공산당의 수법으로 잡혔을 때의 수사 투쟁, 검찰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 경찰의 투쟁을 어떻게 하고, 교신 시 어떤 암호를 쓰고, 증거를 어떻게 없애는지, 목비권은 어떻게 행사하는지, 오리발을 어떻게 내미는지 조직적으로 훈련받습니다.

간첩 집단 중에 중학생밖에 안 되는 학생이 국가에서 내려온 삼촌을 다락방에 숨겨 주고 안내를 해서 생활하게 했는데, 그 어린 학생이 잡혀서 나이가 상당히 들 때까지 저와 광주교도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이 눈물 날 정도로 북에서 내려와 그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살면서 고비를 넘기다 결국에는 나중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루 이틀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석기 사태도 몇 년간에 걸쳐 장기간 관찰하고 감시하고 감청하고 미행하고 주변 동태를 살펴 이번에 뽑아낸 것입니다.

간첩 잡기는 어렵고 간첩이 놀기는 쉽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공산당들의 특수한 활동, 조직적인 활동을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이 공안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랜 군사 독재가 계속돼 공안기관이라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반공안기관의 생각으로 경찰한테 죽창을 찌르고 돌 던지는 것에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을 계속 갖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인권이 잘 보호되는 이 상황에서, 이래도 누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경석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은 계속 인터넷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극우라고 하는데 그게 극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관이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잡히는 순간부터 맞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영장이 있고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맞는 인권의 침해 때문에 그 기관이 전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착한 것만 가지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총을 같은 민족끼리 겨누느냐,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미 제국주의와 앞잡이들에게 겨누자, 이런 선동을 하는데 이게 넘어갑니다. 반미와 민족주의 때문인데, 강한 민족주의 때문에 오히려 반미주의자가 합리화됩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없이 간첩을 다스리기 위해 수용소가 필요하고, 3대 세습·독재가 필요하고,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는 특히, 서경석 목사님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늘 우리에게 반독재, 박정희 나쁘다고 가르쳤고, 후배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반독재, 민족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이승만부터 박정희부터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하는 것을 보니 저도 공직자로서 낮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는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외치는데, 실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보면 어떤 비리에 조금만 연루돼도 끝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대통령만은 제임 중 면책특권이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도 하고 광주민중화운동에서 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저리 많이 갖고 있으면서 경기도에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땅을 다 내놓으면서, 어제 내놨는데 미리 내놓지…….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두 분을 보면서 공직자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그리고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돈이 적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몇 천 억씩을 꼭 저렇게 해야만 결국 내놓을까요. 왜 저렇게 살까요. 저는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꼭 저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렇게 안 살고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의 가치, 정신, 바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이상으로 정신이고, 국가에 중요한 것은 경제 이상으로 국가의 가치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그 과정 자체가 정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정당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감시 기구가 아닙니다. 공직자가 청렴한지 아닌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 총장의 아들이나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검찰 아닌 다른 기관에서 대리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로, 권력 문제로 시간 끌지 말아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12·12 사태로 지금부터 34년 만에 저 돈을 내놓는데, 권력 기관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과감한 혁파가 필요합니다. 찬바람이 날 정도로 대한민국에 (혁파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돈의 액수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신 기강을 세움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재산이 다 김정은 재벌 것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세계 제일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땅도 자기 것이고 북한에 있는 모든 게 다 자기 것입니다.

저렇게 무지막지함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이, 지성이, 정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북한인권을 말하면 말하지 말자고 하고,

말하면 전쟁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인권은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신체적인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자식으로 성스럽고 영(靈)스러운 존재로서,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쳐야 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할 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인간은 고귀하다라는 것, 국경과 인종과 성별을 넘어 인간은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가치를 함께 비추는 나라가 동방의 불빛 코리아입니다.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설교가 시작하는 구나 합니다. 이런 공무원은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일만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늘 공공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공직자의 영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쇄해서 공무원들에게 읽어 보라 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에 헌법도 빠졌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헌법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래서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도 잘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계속 헌법 교육도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국민 개개인의 고귀한 인격을 중시한다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공무원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사 공부를 해 보니 가슴속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우여곡절 끝에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선진국으로 가고 정신이 풍요롭고 인간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구나, 자기의 일의 가치를 느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야기할 때는 표 떨어지는 소리 그만 하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도 여러 가지 책을 계속 봅니다. 보면 볼수록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승만 정신의 핵심이 근대 사상과 반공의식, 자유 민주주의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로부터 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운동권 1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운동권 1세대가 이승만, 김구, 도산 안창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배재학당에 들어갔습니다. 왕조보다는 공화정이 더 중요하고, 근대 자유 민주주의에 들어가야 함을 한성교도소에서 5년 8개월간 있으면서 영혼 속에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미국조차도 당시에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에 나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진주만 폭격에서 미국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소 합작으로

소련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갖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로, 북한이고 남한이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파지만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공산주의를 다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한 반공주의로,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도소 속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갖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획득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반공 생각을 가졌기에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좌파가 많았지만 신탁 통치에서도 반탁으로 갔고, 공산주의는 친탁으로 갔습니다. 또한 UN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역량을 가졌고, 자신의 경험과 고난의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영혼, 인간관계를 통해 매순간 올바른 좌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 독립운동의 과정, 건국 과정의 올바른 과정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의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너무 연세가 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4·19 혁명도 불러일으켰고 3·15 부정선거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도 쿠데타 한 것, 유신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통합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주체 의식, 리더십을 가져야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통일과 위대한 선진 강국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있기 전에 주체 세력이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함이 정당 정치에 맞습니다.

요즘 국사 공부를 하는 게 잘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하는 건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건국, 김구 선생처럼 무조건 '합쳐라' 하고 끝날 것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일본과 잘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경제 살리기를 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는 선진 통일 강국의 궤도에 진입이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멕시코, 필리핀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선진 통일 강국의 주체 세력이 돼야 합니다.

사실 '당신이 그걸 한번 내놔 봐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이다 무상급식이다 하는데 어디까지 누가,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또 말은 하는데 저게 아주 부드럽게 실행이 되느냐, 성남의 보호관찰소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또 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법무부 장관 당신이 찾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어떤 개인 혼자 할 수 없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혼자 영령한 존재라 하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권력의 분점이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집사람에게 당신 말만 듣겠다고 해도 매일 딸그락 소리가 납니다. 부부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이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분권과 자치가 안 됩니다. 지방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국회와 언론 삼자가 매일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사이에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6개월이라도 쥐야 합니다. 전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임명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임명권자만 쳐다봅니다.

또 저 같은 선출직은 표만 보고 있습니다. 복지가 어디가 급한지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급하지만, 장애인 수가 없으면 표가 더 많이 나오는, 밥을 먼저 주는 쪽으로 갑니다. 복지는 선거 때 표 많이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임명직에서는 최소한 임기가 정해져야 합니다. 검찰도 임기가 2년으로 된 게 잘했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 사람을 6개월이나 1년이라도 임기를 줍시다. 저 같으면 2년 6개월 정도는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리가 자꾸 바꿉니다.

저는 도지사를 8년째 합니다. 누워 있어도 지금 비가 오면 농작물의 수확이 어느 정도 줄고 과일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어떤 사과에는 어떤 병이 생길지, 피해 보상 차원에서 농민들이 몇 억을 지원해

달라고 할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계산이 안 나오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도 좀 더 분권이 돼야 합니다. 국회를 독립시키자고 하면 무슨 소리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주 동네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0년을 저도 했지만, 욕먹는 이유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암체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연금이 훨씬 많습니다. 군인 연금, 교원 등 연금이 많습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게 구성돼 더 욕을 먹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면 욕을 덜 먹을 먹을 것입니다.

요즘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심사법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화평법이 일정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경기도에 외국 투자 업체가 많은데 그 업종 중 규모가 있는 사람 5명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 화평법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전부 다 죽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 사업이 국내에서 건널 수 없습니다. 신(新)물질 하나를 만드는 데 만 가지 이상의 물질을 사용해야만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 하나에 100개 이상의 다양한 신물질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만들어 내는데, 그 자체가 1g만 있어도 국회의원은 심사 평가를 다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문 다 닫아야 합니다.

이 법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 세계 업체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부품 업체는 일본이 가장 우수한데, 우리나라의 삼성·LG가 완성 조립으로는 세계 제일이지만 부품 업체는 일본이 아직 제일입니다. 한국 산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202명 중에서 5명 기권 외 197명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도 결재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모처럼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는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통과됐습니다. 양원제 같으면 상원에서 바꾸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라서 안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KBS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을 때, 그 기업 5명 중 아무도 대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세무조사를 할 게 겁이 나서입니다. 기업에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보복성 기업 세무조사는 안 됩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도와주면 해외 테러라고 해서 절대 안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몰라서입니다. 착한 사람은 테러도, 보복도 못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분권과 우리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독일과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독일을 공부하는 단체가 가장 큼니다. 일본·미국 같은 나라를 보는데, 독일 통일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독일은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로, 승전 국가가 그 국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식민지로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뉘었습니까. 패전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소련과 미국이 나뉘야 맞습니다. 국제 질서에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전범도 패전 국가도 아닌데 나뉘었습니다. 일본 왕은 전범 중에 최고 전범입니다. 그런데 일본 왕도 그대로 있습니다.

독일은 전범들이 다 처벌됐습니다. 독일도 분단은 됐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용소 가스실에 가 봤는데 치가 떨리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착합니까.

이렇게 착하고 아무 죄도 없는 나라를 아직까지 통일을 안 시켜 주는 국제 사회에 잘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미국, 일본, 러시아, UN이 대한민국을 신속히 통일시킬 국제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독일은 23년 전에 통일이 됐습니다. 주체 세력이 국제 사회에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통일을 (요구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60년의 숙제를 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으로 만주와 시베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위대한 영혼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역사책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역사책을 만들어서 사회 이적 활동을 합니다. 전교조가 왜곡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사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꿨는데, 검정으로 바꾸면서 이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시간을 늘리고 필수 과목을 지정하겠다고만 하는데 근본적 해결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정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석기 문제는 전교조가 이적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건데, 전교조를 보호하는 세력이 정부였습니다. 이번 이석기 문제를 계기로 전교조 법안을 통과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 답변

국정으로 하면 너무 국사학계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정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국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의 문제가 많은데,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통진당 이석기의 활동 무대가 전부 경기도입니다. 통진당도 대중적 기반이 없어졌는데 선거 때 득표를 위해 민주당과 연합을 합니다. 의석을 확보하는데 한

표로 당락이 됩니다. 5%를 잡기 위해 의석을 막 내서 이들이 국회도 들어오고 시장도 되고 도의원, 시의원으로 다 들어와서 국민 세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세금으로 버팁니다.

독일처럼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사멸을 시켜야 합니다. 그 5%가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이것을 끌어내면 민주당은 집권이 안 돼 할 수 없이 (통진당을) 안고 가는데, 그런 야당을 숙주로 (통진당이) 연명을 합니다.

헌재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정당을 찾아서 해산 명령을 내리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새누리당 정책협의회

일시 2013년 9월 12일 서울 래싱턴호텔

오늘 이재영 도당위원장 및 여러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제가 도지사 8년째입니다. 오늘 가장 단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최근 재정 위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가 어렵습니다. 둘째, 복지가 최근 2년 가까이 1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육 자체가 도가 25%, 중앙이 50%, 시가 25%로 매칭펀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용 재원이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지사의 의지대로 1원도 안 쓰고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하나도 안 써도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1억을 빌려도 후대에는

2억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왔습니다. 후대에 곱빼기로 빚을 져야 하는데 저를 못하겠습니까. 공무원 봉급을 깎는 등 과감한 다이어트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든, 문화·예술, 도로 등 어떤 것을 깎아도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경 3,875억을 깎겠다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동의를 안 합니다. 부동산을 계속 팔아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이 있어도 동의를 받아야 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대안은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중앙의 경제부총리가 안행부 장관을 만나 이야기하셨는데 중앙 또한 대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첫째, 부동산 관련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다주택자 양도증과세 폐지, 취득세 감면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합의가 돼 신속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고통이 완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 재정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도는 IMF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부동산 세수가 50%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부동산이 좋을 때는 경기도도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일시 2013년 9월 24일 골든시네마 아트나인

감사드립니다. DMZ 다큐 영화제가 5년째입니다. 조재현 위원장이 애를 많이 쓰고, 경기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객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관객으로, 이번에 고양으로 옮겼는데 접근성이나 도시 규모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되지 않나 합니다.

우리의 꿈인 통일 다큐 그 자체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 내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영화·예술 측면 외에 통일·평화·화해·상생의 기회를 가지는 데 영화라는 예술이 촉매가 돼 남과 북이 만나서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일시 2013년 10월 2일 수원 경기도당 강당

제가 경기도지사로 나왔을 때 '당신은 경상북도 도지사로 나오지 경기도지사로 왜 나오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말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요즘 미디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인기가 매우 좋은데 무료입니다. 여러 가지로 스피치 미디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더라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출마하실 분들은 시장, 군수 출마하실 분들 혹은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 다양합니다. 선거구 인구가 얼마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요즘은 13일이 주어집니다. 외교부 등록은 3개월입니다. 시도지사는 6개월, 국회는 3개월

인데 그 시간마다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 나눠 보십시오.

시민들과 한 번 정도는 손을 잡고 눈을 맞춰 보는 것은 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만져 보고 사는 게 더 낫듯이 여러분과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는 약속 단 몇 초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선거 운동 기법은 저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섯 번 선거를 해서 다섯 번 당선됐습니다. 한 번 떨어진 것은 지난 경선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떨어졌는데 워낙 세터라고요.

제가 처음 나온 곳은 부천 소사구입니다. 저는 사실 그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 지역은 호남이 30%, 충청이 30%, 경상도는 10%였습니다. 그 지역은 소위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박규식 씨였는데 국회의원 중 재산등록 1위였습니다. 그 지역 토박이로, 그 집안이 박재완 장관의 집안이고 부자였는데 너무 돈이 많아 출당이 됐습니다. 박지원 씨가 호남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로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가니 '당신은 3등이야, 뭐 하러 나왔냐'고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의 뿌리는 옛날 민정당, 공화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자유당 때부터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이고, 민자당은 삼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한국당, 그다음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입당한 지 20년인데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런 전통적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저를 전부 빨갱이로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민자당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제가 별종이었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하고 무기정학을 당하고, 유신을 반대하고 교도소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 등 다 가 봤습니다. 군의 보안대대중에서 장지동의 보안군실에도 가서 죽도로 맞았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등 안 당해 본 고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빙고 보안대 지하 비밀 수사처도 갔었습니다.

저를 평생 경찰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민자당을 반대했고 민정당, 공화당도 반대했었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도 2년 이상을 했고 공장 생활만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색깔이 달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이 당에 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고 난 후 공산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김일성·박헌영파, 공산국가는 안 되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립을 주장한 이승만·김성수파, 통일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중도 통합론의 김구·김규식 선생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최초로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자유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없으니 제헌 국회의원을 만들자는 것이 1948년이었습니다.

이 때 김일성·박헌영은 이런 선거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이승만·김성수파는 출마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동대문구에 출마해서 9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습니다.

김구 선생도 같이 이 나라를 세우자 했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나라를 세우면 분단이 되어서, 합친 후 하자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70세 때 북한에 가서 젊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끝까지 통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4·3 사태가 일어났는데 5·10 선거 반대로 폭군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처음 세웠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련이 바로 위에 있고 중국공산당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공산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5·10 선거를 해서 국민들의 90%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분열해서 이 나라는 안 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식민지를 벗어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왕조 시대에 살았고 투표를 언제 해 봤겠습니까. 투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별떼같이 모여서 투표했습니다. 해방 직후는 국민들의 문맹률이 70%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몰려와서 투표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문맹자들조차도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식민지 하던 사람들이 뭘 알겠냐 싶어서 신탁 통치를 해서 독립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공산당은 신탁 통치를 찬성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및 김구 선생은 독립을 주장하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1948년 7월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보면 얼마나 잘됐습니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조선왕조 시대를 거쳤는데 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헌법에 의해 대통령제를 주장하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헌법에 의해 이 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는데 2년도 안 돼 침략이 됐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탱크를 가져올 수도 없고 물에 빠지게 된 판에, 미국과 UN이 참전해서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많은 호국 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로 성남비행장에 갔습니다. 국군의 날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희미하게는 알지만 뚜렷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희미하게 알면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또렷하게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은 9·28 서울 수복을 한 후 우리 국군이 10월 1일에 최초로 3·8선을 뚫고 나가서 북진 통일을 위해 앞으로 나간 날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3·8선을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전부 '3·8선을 넘지마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 해서 밀어붙였는데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어제 성남비행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막강한 세계 강군이 됐습니다. 미군보다도 오히려 환경 수준,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높습니다. 미군과 우리와 같은 과제를 주면 미군이 48시간 내에 푸는데 우리 군은 24시간 안에 풀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적으로는 적고, 미군은 무기도 많고 부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병사들 개개인의 자질과 장교들의 자질은 (우리 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련과 북한과 중국이 선제 기습을 해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전쟁 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 아래 포항제철을 만들고, 자동차·전자회사 등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 교수들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만들어도 누가 사 주겠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스코가 세계 제일의 제철

회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자동차도 누가 사겠는가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겠는가, 고무신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나 했습니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영국 기자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도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좋은 귀족 집안입니다. 우리는 평등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모든 과정의 우여곡절 끝에 일관되게 올바른 길을 지킨 당이 새누리당입니다. 공산주의로는 대한민국을 번영·행복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68년 전 이미 알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아셨습니다. 옳은 길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끈 정통 주체 세력이 새누리당입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서 마음을 얻을지 알아야 합니다. 악수를 할 때도 1초 만에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손만 잡으면 짝어 쥐야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도민들이 서울로 출근을 많이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간명하면서 감동적인 스피치나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체 세력으로 당의 자부심을 높이는 아카데미가 일 년 내내 있어야 하는데, 꼭 선거가 다가올 때만 이런

것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스피치를 위주로 하는 아카데미를 연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각 정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공부해야 할 것은

첫째, 선거에 나가면 국가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국방 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가 저 사람에게 맡기면 나라 경제, 살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셋째, 청렴,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어느 자리든지 가시면 겸손하지 않은 선출직은 100% 망합니다. 뽑히지도 않지만 뽑혀도 망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입니다. 이 말은 도청에 제가 붓글씨로 썼습니다. 표가 떨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청렴청문위원이 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할 사람이 없었고 저도 처음에는 땀뺀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고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외쳤습니다.

처음에 경기도는 워낙 땅이 커서 청렴도가 늘 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가 돼서 일등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청렴도가 최상위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의 여성 총리가 돈을 몇억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비리로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심판받을 것이라 욕을 하더라고요. 유죄라면 가만있으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독선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부는 심판하고 무너뜨리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평택에 있는 가스도 폭발시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누가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야당 중의 3분의 1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늘 긍정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다 죽일 놈이라 합니다. 그래서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할 것은 해야 합니다. 뿌리를 흔들지 않고 잡는 사람이 국가의 주체 세력입니다.

새누리당 없이 이 나라가 건국이 됐을까요. 새누리당 없이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새누리당 없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대답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대동

강, 압록강, 두만강,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 나오실 때, 새누리당이 싫지만 표라도 더 얻  
고자 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다른 당으로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을 지키는 주체로서, 어려울 때 목숨 바쳐 이  
당을 지키고, 나라의 땅을 외국에 뺏기지 않고 지키고, 위대하고 신  
성한 주권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전까지 희생을 한다는 각오를 한다면 필승을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1,250만 도민은 서울과 대전·세종시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  
습니다. 경기도 땅은 서울 땅보다 17배 큼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애국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  
주민을 비롯해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리, 부정, 건방 안 떨겠지'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야 합니다. 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와서 하고,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모습을  
비추다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나올 때 생긴 것도 별로, 돈도 못 벌고 연고도 없었습  
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정  
성을 가지고 뜨겁게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하더라도 대충하는 게 아니  
라 한 번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악수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붕대 감는 작전, 즉 내 손이 부서지도록 받들어 모시겠다는 전략으로

하세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독일은 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유테인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도 다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졌습니다. 패전국, 전범 국가로서 승전국에 의해서 미국·소련·영국·프랑스에게 네 토막이 났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히틀러는 자살하고 나치 전범은 처단했습니다. 요즘 독일이 겸손한데 당연합니다.

일본은 식민시대 위안부를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왕도 멀쩡하고 분단도 안됐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분단됐습니다. 독일은 23년 전에 통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통일이 안됐습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침략도 학살도 한 적이 없이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착하고 좋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나뉘었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나뉘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UN은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국제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보다 우리는 통일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이베로아메리카 오가니제이션 사무총장이 경기도청에 찾아왔습니다. 이베로아메리카 오가니제이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식민지 국가 23개가 모여 있는데, 교육용 컴퓨터를 입찰해서 삼성이 다 됐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코리아타운 옆에서 살다가 잔칫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코리안이 가난해서 농업 이민을 남미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동정심이 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었는가 정말 놀랐고,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남미에 가면 36시간, 왕복 7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청에 와서 계속 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미국, 유럽에 가서 배우라고 했더니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농업 이민을 왔던 배고픈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자동차를 만들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50대 초반인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에서도 한강의 기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아무리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체, 그러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지사님이 악수할 때 비법이 있습니까?

## 답변

악수할 때는 그 사람만 보되 눈을 봐야 합니다. 악수하되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바쁘더라도 마음을 다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억지로 뿌리치고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다면 표 두 개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힘이 세니 힘을 쥐야 합니다. 여성들이 먼저 청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먼저 악수를 못하게 됐는데, 후보가 되는 여성들은 여성이 아닙니다. 여성이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봉대 감는 전략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몸을 아끼거나 사리거나 자기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 질문

경영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실은 정치가 경제발전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의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 답변

제가 후진국에 가 보면 뇌물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를 끄는 데도 뇌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후진국입니다.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입니다. 기업인들을 등쳐 먹으려는 그런 나라는 어느 누구도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세계가 누가 더 깨끗이 기업을 모시느냐 합니다.

지금 기업인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공무원은 기업인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고 물을 대 주고 소독을 해 주는 시장의 마켓 롤의 역할, 시장의 질서와 투명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기업인이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즘 화학물질평가법이라는 안 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문 다 닫아야 합니다. 삼성 불산 터지고 하니 아예 꿈쩍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외국 나가면,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법으로 기업을 못하게 하는데,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와서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500만으로 우리의 10분의 1인데 소득이 5만 2천 달러로 우리보다 두 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효율적인 나라입니다. 공무원들도 기업도 앞서고 교육도 의료도 앞서 국가 평가가 상위권입니다. 나라가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 질문

지사님의 좋은 말씀을 새누리당 아카데미 교육생만 듣는 것이 아깝

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세요.

### 답변

새누리당을 선입관으로 보고 저보고 끈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親기업 아니냐, 親삼성 아니냐 합니다.

저는 親삼성, 親현대, 親LG, 親노동자, 親노숙인, 親인간입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왜 反삼성을 하려고 합니까. 삼성이 경기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래서 수원은 법인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잘못된 反대한민국 정서, 反군인, 反경찰, 反제도, 反여당, 反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스피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에 설교가 없다면 가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도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시와 도와 국가가 가야 할 길의 전도사가 돼야 합니다.

## 10월 월례조회

일시 2013년 10월 2일 경기도청

지난주 경기도 대표단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조지아 주의 기아자동차를 방문했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연수원을 건립해서 직원 훈련도 하고 훈련비용을 주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초기 3,500명을 채용했는데 시의 시민들은 3,400명밖에 없어서 조지아 주 끝 경계선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오고, 앨라배마 주에는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주 사이에는 하나의 벨트가 형성됐습니다. 협력 업체 105개가 들어왔는데 한국이 29개고 미국이 76여 개가 됩니다. 미국의 한 회사인 자동차 시트, 문을 만드는 존슨 콘트롤 사가 있는데 대외비를 위해서 공개는 안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회사가 주변에 들어서는데 앨라배마 주의 현대자동차와 조지

아 주의 기아자동차 사이에 105개의 회사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지역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아자동차의 임원들과 같이 식당을 갔는데, 식당인들이나 누구나 기아·현대자동차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면 'sir'라는 칭호를 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세상 어디를 가도 자기들은 그런 호칭을 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음식점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도시 자체가 3,400 명밖에 없었는데 기아·현대자동차가 들어서면서 1만 5천 명이 생겼습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지역은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노예를 시켜서 목화밭을 운영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노예를 시켜서 면화를 가꿨습니다. 거기에 숨을 타서 실을 짜며 생활해 왔는데, 직물이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기아·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이 지역 주민들은 너무 고마워합니다. 지역 주민과 식당 주민들은 너무 고마워서 집집마다 글귀를 '하느님, 기아를 우리 조지아 주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붙인 곳도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했는데 미국 노조, 특히 미국 자동차 노조가 UAW로 세계 최강의 노조입니다. 그런데 UAW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직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주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많은 시도를 하지만 노조

가 없고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더라고요. 야간작업을 저도 오래해 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하더라고요.

봉급을 합치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75%밖에 안 됩니다. 땅은 공짜로 주고 연수원도 다 지어 주고 연수비도 자기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또 노조도 없고 3교대 야간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직원은 43명만 파견돼 왔습니다. 나머지는 현지 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 중에서도 제네시스 라인에 그랜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인 자체에 만들고 있던 것을 다른 품종을 생산하는 혼합 차종 생성을 하면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소득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넘는 소득에 노조의 역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의 5월 1일의 노동절도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이 파업을 하다가 경찰이 발포를 해서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그날을 기념한 것이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많은 파업과 희생으로 생긴 날이 노동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아베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위안부 사과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글렌데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구 20만의 도시인데 LA의 시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시고 교육도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구, 서초구에 해당합니다. 그 시에서 몇 년 전 9월

30일에 김문수의 날을 지정했고 이를 지금도 기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는 20만 명이 코리안인데, 위안부 소녀상을 중앙도서관 공원 안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글을 써 놔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위안부가 너무 고난을 받고 어떻게 희생을 받는지 일목요연하게 잘 썼더라고요. 이것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이 일본 식민시대 위안부 동상을 세운 첫 사례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의원이 다섯 명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네 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80%는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반대하는 이에게 제가 영문 자료를 줘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위안소 일기(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위안소에서 일한 사람의 일기가 매일 적혀 있었습니다. 위안부 시설은 일본 군사시설의 일부로 병참시설 전투를 도와주는 지원 부서였습니다. 그 책에 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자료를 발간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책이 나왔는지는 한국 교포나 미국 의원들, 대사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쳐서 나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교민, 총영사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영역(英譯)을 해서 다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시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알고 일본이 잘못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의 정정에 몰두하고 정력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깥의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분단될 이유가 없습니다. 분단된다면 일본이 전쟁 범죄 책임을 지고 전쟁에서 이긴 소련과 미국에 의해 나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진 독일의 영토는 전승 국가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의해 4개로 나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전쟁에 참여도 한 적이 없고, 학살도 한 적이 없고, 누구를 해코지 한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청정 도덕 국가입니다. 우리가 화교를 독일이 유대인 죽이듯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신선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더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과를 이룬 나라입니다. 노래, 자동차 기술, 학력, 도덕성, 청렴,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기 것은 안 배우고 이승만, 박정희 전부 나쁜 것으로 몰고 한국 군인은 다 엉터리고 경찰은 나쁘다 합니다. 정작 자기 것은 다 부정합니다.

저는 독일 갈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임을 매번 느낍니다.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히틀러를 뽑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일

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위안부 아니라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이승만, 박정희 욕할 힘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싸워야 할 바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위안소 일기'의 명백한 증거를 영역을 해야 합니다. 일본 대사관도 이것이 국내에서 출간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본이 꿈쩍 못하고 한마디도 반박을 못합니다. 몇 년 치 일기를 다 써 놨는데 그들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전 세계인들이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세상은 넓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내서 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 배우고 있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삼성도 소니를 능가하고 자동차도 능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겁이 나는 것은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자살률이 높는데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보다 자살률이 더 높고 아이도 더 안 낳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부동산 침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침체되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낮습니다. 우리는 문제 자체를 모르고 합의가 안 되지만, 일본에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일본의 노조는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본의 공산당과 좌익은 괴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통진당의 이석기부터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김정은이 잘못됐다고 한마디도 안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합의가 안 됩니다. 지금 북한에 충성을 할지 대한민국에 충성을 할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 국정원 전부 그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핵심,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일본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통합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본부를 통해서 아베가 직접 실행을 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소통 시간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제가 민간과 간담할 때 민간이 저에게 말하면, 세무조사를 할까 겁이 나서 공개적으로 인터뷰할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화평법이 잘못됐다고 바른 소리 말하는 것도 세무조사를 할까 봐 못합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공무원, 민간, 중앙, 지방 다 비슷합니다.

어제도 언론 보도 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창조지식단지를 만들자 했는데 수도권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젊은이들이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창조지식단지를 못 만듭니까. 그럼 어디 가서 만들 것입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도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 폐지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다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은) 폐지했습니다. 아베가 하는 것이, 중앙과 지방을 통합하고 민간을 통합하는 3자 통합과, 규제를 혁파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국내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싱가포르와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집니다. 의료, 교육, 관광이 모든 게 우리가 그보다 아는 것이 없습니까? 역사가 짧습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쓸데없이 수도권이다 뭐다, 전부 다 부서별로 나뉘어 딱 이야기만 합니다.

야간에 반월시화단지도 깜깜한데 음식점까지 나가려면 30분 걸어야 합니다. 택시도 버스도 없습니다. 나가서 차 마실 데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서 기숙하려고 하겠습니까.

만들어 줘야 하는데, 특혜라고 합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땅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알팍한 근시안적인 생각, 부처 이기주의의 칸막이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도 매우 어려운 처지지만, 과거에 식민지 때도 우리가 살아남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전쟁 중에 아버지·어머니는 사랑해서 저를 낳고 길러 주셨습니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 하니 못하는 것이지 지금 합의를 해야 합니다. 빠른 일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 밀리면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면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칸막이를 넘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소

신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감사를 당할까 봐, 세무조사를 당할까 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불필요한 족쇄를 풀고 기업인들이 떨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정직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합의하고 함께 손을 잡고 뛰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북부기우회

일시 2013년 10월 10일 과주출판단지

과주의 출판도시에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출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셨습니다. 출판단지 하나에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같이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문화부 장관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지금 대통령에게 이 출판단지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또 한마디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출판단지에 공식적 회합을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식당, 유락 단지 등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특혜로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가는 낮고 상업단지는 높게 분양해서 상업단지로 용도전환을 하면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늘 이것이 문제가 있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다릅니다. 공장지대에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이유가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노래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일하면서 자기의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경기 북부는 공장이 많은 지대입니다. 특히 파주는 LG를 비롯해서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입니다. 이것을 융합시켜야 하는데 가장 큰 지장은 국토부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공장을 하게 돼 있는데 왜 호텔을 짓고 상업 지역을 유치하느냐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북부 지역은 파주만 해도 9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 것보다 큰데, 군사시설로 파주출판도시나 LG가 들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 이유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출판단지나 들어오고,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 첼시, LG 등이 들어오면서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오히려 이런 것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되기 위해서도 찻집과 노래방, 음식점, 영화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인들이 있는 곳은 민간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나, 지금은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곳으로, 그런 곳은 오히려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 도시입니다. 산업 도시라 해서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학교, 문화시설이 가까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학교, 상업, 레저 시설이 한 자리에 합쳐진 것이 최고의 도시입니다.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도시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떼어 놓는 도시가 아니라 합쳐서 편리하게 서로 융합되는 도시가 가장 앞선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장과 산업단지에도 문화를 입혀야 합니다. 공장 안에도 그림도 붙이고 사진도 걸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오신 한우승 선생님처럼 이런 작가들도 모셔서 강의도 듣고, 공장 안에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도 들으며 같이 융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지 않고 산업단지와 상업 시설, 주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처럼 아파트는 많은데 일자리는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헛갈릴 수도 있는데 문화부 장관 말씀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허용해야 출판단지도 살고, 사람이 꼬이고, 밤에 유령 도시도 안 되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개념의 전환, 정책의 대전환을 박 대통령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제안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경제 활성화, 경제 선진화를 위한 통합 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본부에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국토부 장관도 앉고, 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청장과 산자부 장관도 같이 앉고, 문화부 장관도 앉고,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이 앉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인들도 앉아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보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통합 본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해야 대한민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중국보다도 늦고 싱가포르, 홍콩, 심지어 일본 아베노믹스보다도 더 늦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늦어서야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경제 살리기 통합 본부를 직접 지휘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의 한강의 기적처럼 새로운 제2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얼마든지 좋은 땅이 많습니다.

앞으로 무한하게 대륙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웅장하고 신속한 한국의 흐름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판단지가 시발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귀농귀촌대학 명사초청 특강

일시 2013년 10월 12일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좋은 꿈을 안고 귀농귀촌대학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품종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 농사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1명 정도밖에 안 돼 사람농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등이고, 특히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두 배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남성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집에 있다가 본인이 암에 걸리거나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신감

이 위축되면 외로움을 타서 자살을 합니다. 경기도는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들에게 김치도 담가 드리고 찾아가 뵙기도 합니다.

자살률은 과거 일본이 제일 높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두 배 더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 합니다. 사람농사가 세계에서 가장 안 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왜 결혼 안 하나 물어보면 남편 스펙도 별로,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생명이 물질보다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스마트폰도 애플을 꺾고 전자제품도 소니를 이겼습니다.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제철, 조선 등 기술과 물질 생산에서 세계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은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눈을 적출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눈 빼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이 눈을 빼 가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지도자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요녕성, 광둥성, 산둥성, 하북성, 천진시 등 6개 지역이 자매도시입니다. 저는 중국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나라가 땅은 크고 경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당신들이 세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가 당신들을 존경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는 절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를 글로벌 리더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핵이 많고 돈이 많고 땅이 넓어도, 그것만으로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생명 경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농사 중 공부는 잘 시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시험을 그것밖에 못 보냐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장애가 있든,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기본 인간애가 파괴되는 사회는 더 이상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짓는 농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인장 농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카타르에 버티컬 팜(수직농장)을 수출하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인장 수출의 70% 이상을 수출한다고 카타르 왕세자 직속자에게 말하니, 경기도에는 사막이 몇 평이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막은 놀이터 몇 평밖에 없고 물 위에서, 온실 속에서, 전자동으로 선인장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버튼만 누르면 온실 문이 열려서 햇빛이 생기고 추우면 그늘막이 생기며 비료와 LED와 바람과 물과 온도, 습도를 자동 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 선인장을 비롯한 화훼 농업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선인장 한 그루에 55센트로 수출하고 그 가격은 1달러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선인장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땅이고 사막도 없지만 상상할 수 없이 선인장

수출을 합니다.

선인장은 유럽 네덜란드의 농업 도매시장에서도 바로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등 각국의 사막국가와 수직농장 경쟁을 했는데 우리 선인장 가격이 일본 가격의 반이 안 되더라고요.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품질 및 IT 부분에서도 우리가 단연 앞섭니다.

해외 나가서 인터넷을 하면 아무리 좋은 호텔일지라도 대한민국 인터넷만큼 빠른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모텔만 가도 인터넷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미국 맨해튼 호텔에 가도 경기도 모텔 속도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인터넷은 완전 무료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LED 등도 값이 매우 쌉니다. 로봇, IT, 자동화 기술도 우리가 가장 앞섭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농업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이 자꾸 안 된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농업은 강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연해주를 다녀왔는데 그곳의 농업을 위해 우리 농민들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땅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땅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날씨 좋은 곳에서도 젊은이들은 농사를 안 지으려 합니다. 일반 농민들은 연해주까지 가기에는 멀고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땅이 많습니다. 제 고향에 가도 땅이 그냥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국제기구 중에서 남미의 이베로아메리카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를 지낸 23개국 나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무총장이 경기도청에 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왕복 72시간이 걸려 갈 형편이 못 되니 미국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은 미국도 중국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어릴 때 코리아타운 옆에 살았는데 코리아타운은 1960년대 한국 농업 이민자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아타운 잔치가 있으면 초대를 받아 가서 보면 사는 게 참 형편 없는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한국은 땅이 없고 가난하고, 농사 지으러 아르헨티나까지 와야 하는 나라구나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베로아메리카 오가니제이션에서 23개 나라가 사용하는 교육용 컴퓨터를 입찰하는데, 삼성과 LG가 다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소프트웨어도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삼성, LG 컴퓨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농업 이민을 왔던 가난한 코리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됐는지 궁금하니, 저에게 그 비결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나라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현대기아차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미국이나 스페인·중국·일본·독일처럼 원래 잘살던 나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기 어릴 때 못 먹고 살던, 배고프고 가난하고 땅이 없었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대역전이 일어났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남미에 가려고 했으나 경제 형편이 나빠 못 갔습니다.

이것이 코리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한강은 가난과 전쟁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한강 하구는 비만 오면 9.2m나 물이 올라와서 밀물과 썰물이 가장 큰 곳으로 잘 잠깁니다. 김포, 파주는 대표적으로 물난리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요즘은 경인 운하를 파서 나아져서 여기는 물이 잘 빠집니다.

이렇게 이 일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홍수로 잠기고 쓸려 나간 나라가 지금은 기적을 이루어 잘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 관광, 농촌 등 여러 가지 바이오에 관한 과학적인 기반과 교육, 체험, 연구와 실험, 그리고 관광 등이 전부 한꺼번에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농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황우석 박사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여 욕도 많이 먹곤 했습니다. 경기도에 구제역 때 소·돼지가 많이 죽고 우수·우량종자가 많이 죽었는데, 가장 우수한 한우를 품종 개량해 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일본의 와규를 먹으면 매우 부드럽고 맛있어서 한 마리에 1억이 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놈을 품종 개량을 해 보자고 제의했습니다.

경기도는 농업, 축산도 많이 하는데 당뇨가 있는 돼지를 만들어 사람의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 혈압 높은 돼지를 만들어 사람의 혈압

을 치료하는 방법 등, 인간과 가까운 척추동물을 활용해서 의료·생명·바이오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팀과 한 연구들이 아직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예로 시베리아 북극 근처에 섬이 있는데, 거기를 파고 들어가니 매머드의 살점 중에서 그대로 보존된 것을 우리가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서 체세포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머드가 잘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 외로 몇만 년에 죽었던 매머드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살도, 피도 그대로 있고 세포가 그대로 살아 있는 매머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코끼리 난소를 이용해서, 매머드를 잉태해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도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워낙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보고 난자와 정자를 착상을 시키는데, 손이 매우 발달돼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손이 서양 사람보다 작고, 젓가락을 쓰는 데도 나무가 아닌 쇠를 써서 젓가락질을 매우 잘합니다. 손 솜씨는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외과 수술도 단연 으뜸입니다. 러시아, 중동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장관도 의사 출신인데 분당 서울대 병원이나 각 병원에 직접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장관들이 한국의 병원 수술실을 들어가 보고 놀라기를 한국이 수술 솜씨도 제일, 수술을 마치고 나서 병실을 가도 병실에서 간호하는 것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암 진단과 수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료 보험이 없어서 미국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값싸고 좋은 의료 보험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이 발달했는데 한국 사람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하기도 가장 부지런합니다. 한번 하자 하면 팀워크가 세계 최고입니다.

요즘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하는 시위도 많이 하는데 송전탑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송전탑을 완전 지중화 시키려면 지금보다 6배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몽쳤다 하면 밀양 할머니들까지 다 나와서 드러눕습니다. 한번 마음먹고 하면 우리나라 팀워크는 최고입니다.

판교에 파스퇴르 연구소가 있는데 파스퇴르 박사는 공익 연구만 했습니다. 파스퇴르 박사 무덤이 프랑스 지하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위 곳곳에 무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파스퇴르 연구소가 20개 이상 있는데, 그중에 판교 파스퇴르 연구소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한국의 컴퓨터가 가장 발달됐고, 한국 근로자들이 일을 가장 잘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연구소는 지방에 다 가져가지만, 민간이 하는 것은 역시 우수 인재가 많은 경기도에 가장 많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 수원의 삼성 연구소는 세계 최대 전자 연구소입니다. 이런 연구소가 경기도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연구원들은 가장 머리 좋고, 손재주 좋고, 밤잠을 자지 않고, 팀워크가 좋고, 목표 의식이 높는데 이런 우수한 인재를 다른 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은 파내면 광물 자원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북한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는데 남한에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미국은 셰일가스가 나오는데, 바다나 사막 돌 속의 기름을 빼는 에너지 부분에서 자신감이 높더라고요.

우리는 암만 파도 기름도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런데 옆에는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3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척박하고 가진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피와 땀과 눈물과 마음을 모아서 해 낸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제는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압록강의 기적으로, 두만강의 기적으로 (승화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고 선진국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국 상해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품도 전시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LA나 뉴욕·샌디에이고에 경기 농산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쌀이 미국 쌀보다 두 배 이상이 비싸도 교포들이 사 먹습니다. 거기다가 신라면도 매우 인기입니다.

우리 농식품은 세계 인류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의 한인회장이 와서 말하기를, 자기도 지금까지 일식당을 했

는데 지난번에 싸이가 바람을 타고 난 후 일식이 안 되고 한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식은 슈퍼마켓에 가서 플라스틱으로도 살 수 있는데 몇 달러 안 줘도 다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싸구려화가 됐는데, 반면 한식이 고급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식을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서 한식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한식이 인기가 매우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물건도 잘 만들고 세계 일류 호텔에 가도 삼성, LG TV가 구비돼 있습니다.

농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우유라 하면 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도 농약이 많아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방사능 때문에 일본 제품도 불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제품은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분야에도 더 관심을 갖고 양심적으로 농업을 하면, 코리아의 위상도 높아지고 코리아 농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사회에서 많은 성취를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경험이 많으시기에, 경륜과 실력 등 여러 가지가 접목되면 우리 농업에 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신화를 쓰는 데 여러분들이 함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서초포럼 특강

일시 2013년 10월 18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아베뉴웨딩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서초포럼입니다. 서초포럼에 장관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서초포럼이 한국의 포럼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적 포럼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사진 찍는데 서로 찍으시려 하느라 지연이 좀 될 정도로 회원 모두 굉장히 자발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아닌가 합니다. 모두가 나서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 세력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통일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통일이 되면 당장 DMZ 일대 땅값이 오릅니다. 경기 북부는 도로, 철도 분야에서 꼴찌입니다. 통일만 되면 TSR 시베리아 철도, TCR 중국 거쳐 유럽 가는 철도, 전 대륙국가로 향하는 철도와 도로 등 이 모든 것이 모두 열리는 곳이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통일이 되면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연천이 한반도 정중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일 꼬트머리입니다.

제 개인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통일과, 선진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더 이상 식민지로 살지 않고 더 위대한 나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진 통일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당장 건설·교통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SOC나 건설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경기도는 독일과 자매 지역인데 동독에 가 보면 그곳에 주로 고급 주택 및 고급 호텔 등이 집중돼 있습니다. 신기술로 새롭게 지으니 서독보다 더 좋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에 활성화가 되고 국제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경기도와 중국은 요녕성이 자매도시인데 요녕성장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용 공단을 요녕성에 만들어 줄 테니 기업을 보내 달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이 입지를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은 도지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편리하면 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장님이 북한에 이야기해서 철도만 다니게 한다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단동으로 가는 게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 기업이 왜 바다 건너 산동성으로 갑니까. 산동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요녕성이 있습니다. 고속철도 타면 2시간 이내 단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녕성장이 하는 말이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해도 더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와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연해주에서는 코리아가 그냥 한류가 아니라 '의료 한류'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기계에 손이 끼어 병원에 가면 그곳에서는 손가락을 그냥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치료도 매우 잘하고 암 생존율도 가장 높아 한국 가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크더라고요. 연해주에는 (한국의) 의료 분야에 대단한 신화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통하는 길목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분단됐습니까. 독일은 분단된 흔적의 장벽을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어서, 생태와 생명이 살아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녀 봤고 유태인 학살 장소도 가 봤습니다. 독일인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키고 학살도 매우 잔혹합니다. 독일은 정말 찢값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전 국가이니 승전국이 네 토막을 낸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분단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고 누구를 학살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는데 우리는 왜 분단이 됐습니까. 죄 많은 독일도 23년 전에 통일이 됐는데 죄 없는 대한민국은 왜 통일이 안 됐습니까. 정말 나뉘어야 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41년 진주만을 폭격해서 수많은 미군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육·해·공군력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때리고 많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이 분단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은 패전 국가, 전범 국가로 분단이 됐으나 일본은 왜 분단이 안 됐습니까.

저는 국제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일본 왕은 폐위가 안 됐습니다. 나치 전범들은 모두 처형이 됐습니다. 국제 사회는 국제 질서의 잘못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나눠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식민지를 겪고, 6·25와 분단을 겪어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정도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들이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으로 인한 취득세가 우리 세금의 50%를 차지합니다. 서울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세금이 뚝 끊겼습니다. 이런 부동산의 대침체가 왔는데, 이런 것이 왜 왔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전 세계 210등도 안 됩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기대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40살을 못 넘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문도 많이 당하고 많이 약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기대수명이 80세입니다. 그런데 모은 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급속한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한국의 자살률이 높는데, 일본보다 두 배는 높습니다. 그중 노인 자살이 가장 많고, 노인 중에 남자의 자살률이 더 큼니다. 할아버지들은 조금만 아프거나 자식이 잘못되면 견딜 수 없는 좌절감으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상대로 전화를 한다든지 김치도 담가 갖다 드리고 말벗도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살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홀로된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저는 8남매고 자식은 딸아이 하나입니다. 저는 당시 워낙 돈도 없고 쫓겨 다녀서 집사람이 장사를 하며 먹고살았습니다. 교도소를 두 번 갔다 온 후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게 어떠냐 하니, 집사람이 '당신이 키울 자신이 있냐'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별어먹일 자신이 없어서 그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으니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1인 가족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합니다. 저희 집 제사를 지낼 때 5~6가구가 지내는데, 모이면 한 명의 아이도 잘 없습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명절에 세뱃돈을 줄 아이가 없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핵가족이 아닌 1인 가족 시대에 과연

집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냥 원룸에 살지 아파트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종교인들을 만나면 설법할 때 아이 많이 낳아 달라는 말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저출산 극복 위원회를 만들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설법을 해도 아이를 더 안 낳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아기가 없는 상태, 그리고 서로 사랑 안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집, 직장 스펙을 너무 따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열여섯에 시집와서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집사람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눈이 맞아도 안 삽니다.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물건 생산하는 것은 일등입니다. TV, 냉장고, 핸드폰, 모두 1위입니다. 그러나 사람 생산은 꼴찌입니다. 생명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100명이면 1학년은 7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선 건축, 건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도 팽창 도시에서 위축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큰 흐름 속에서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이 우리 사회 분위기에 일대 혁신의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과거에 경제성장을 말하면 성장해서 뭐하느냐, 분배하고 복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장 만능주의는 끝대로 취급당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는데 뭘 갖고 나옵니까.

미국도 어렵지만 땅이 넓고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셰일가스로 큰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암만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북한의 무산 철광석(광산)에 가 봤는데, 위에서 파면 전부 철광석 이더라고요. 한국은 여러 가지로 땅을 아무리 파고 바다를 파도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차라리 주변 나라라도 만만한 나라라면 괜찮은데 주변 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만큼 덩치가 비슷한 나라가 주변에 없습니다. 손잡고 의지할 만한 나라는 없고 늑대 아니면 호랑이 나라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북은 분단돼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전 불모지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한계입니다.

중국은 6% 성장, 러시아는 4% 성장, 일본은 3% 성장, 우리는 성장이 없습니다. 코리아 스피드가 차이니즈 스피드보다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지금 20년 이상의 저성장 침체를 딛고 아베노믹스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계, 기획, 분양, 관리 다 따로입니다. 일본은 기획, 설계, 시공, 분양, 관리를 한 회사가 책임지고 합니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만들 때 서울에서 멀리 짓는데, 젊은이들은 직장과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도시는 분당, 일산, 부천 등의 일자리가 없는 신도시였습니다. 집만 짓고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합·융합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안 될 때는 대형마트도 박아야 합니다. 마트를 갈 때 전통시장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마트와 전통시장이 떨어질수록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안에 다이소를 박아 놓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이소의 싸 물건 사러 오면서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러 올 것입니다.

호텔과 주택도 가까워야 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옆에 엠블호텔을 지었는데, 밤만 되면 호텔 주변이 캄캄합니다. 택시도 대중교통도 가로등도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래서야 호텔이 되겠습니까. 호텔에서 나가면 바로 볼거리, 먹을거리, 아이쇼핑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도시로 모이는 이유는 뭔가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경기 북부의 염색·도금 공장은 사람이 모자랍니다. 불법체류자를 써도 모자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염색 공장을 하려고 해도 아들은 가업을 이

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의 채소 장수나 음식점도 안 갑니다. 그런데 CJ에서 하는 뷔스 이런 곳은 아르바이트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기업에서 한 것을 전부 막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의사를 하려고 하고, 변호사를 하려고 하고, 공무원·대기업·문화·예술 빼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책은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모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안 가는데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균형발전으로 멀리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도심을 고밀화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분당은 연세 들어서 출근 안 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출근하려면 교통이 막히고 시간이 듭니다.

저는 GTX로 고속급행철도를 만들자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주부들이 많은데,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만들고 가까운 거리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여성과 은퇴자들이 가까이 일할 수 있게, 자발적 역량을 끌어내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제조업 중에서 3D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광은 중국 관광이 먹힙니다. 쇼핑, 성형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면세점도 훨씬 늘려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쇼핑을 쉽게 해야 합니다. 중국에 가면 대형 마트와 유통업체가 얼마나 대형화되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중국 현지의 쇼핑 관광이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국공립은 국가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만 사립학교는 안 됩니다.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꾸면 외국에 유학을 안 가도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 있으면 카지노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2년 전에 그랜드 오픈을 했지만 우리는 땅 계약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늘려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클린 시티'에서 '핀 시티'로 국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관광객이 싱가포르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카지노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동북 대지진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데, 너무 절차가 많고 시간이 걸려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민간이 한 자리에 모여 윈스톱으로 스피디하게 정책 결정·집행·실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화평법을 하면 많은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듭니까. 지금 대기업과 재벌은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경기도 거버너'라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삼성 공장, LG 공장, 현대기아차 공장이 있다고 하면 다 알고, 소개 좀 시켜 달라고 그럽니다.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이것을 범죄 취급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제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하는데,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해야 하는데 '하우스 푸어'라 말하면서 아직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집은 국토부에서, 연구는 미래창조부에서,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해서 합의가 안 됩니다.

과주출판단지에 가면 밤 되면 캄캄합니다. 찻집도 호텔도 음식점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와 산자부는 해 주자고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다 죽어도…….

반월시화단지에 가서 보면 저녁에 버스도 택시도 없이 캄캄합니다. 일하다가 문화생활도 하는 (방향으로) 도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인구 팽창 시대에 하던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도 쓰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 짓는 것 이상의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해서 기존의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할 수 있게, 과감히 길을 터야 합니다.

상해나 북경에 가 보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속도가 이래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묶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린벨트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대전환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선진국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 주체가 서초포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숙명여대 특강

일시 2013년 10월 30일 숙명여대 창학관

### < 특강 : 대한민국 - 좌절한 인류의 희망 >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숙명여대의 예쁜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지만, 저도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딸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아이를 하나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길과 여러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국제학부에서 오셨습니다. 4학년 박수지 학생은 생명과학 전공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쟁률은 매우 썩니다. 저도 공무원인데 공직에는 보건복지과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독일은 1990년대에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저서 패전 국가입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범 국가인가 패전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될 이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켜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고 인류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대 전승 국가가 패전한 독일을 네 조각을 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분단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죄 없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세계 인류를 학살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공격한 적도, 러시아나 일본을 침략한 적도, 전쟁을 일으킨 적도, 학살한 적도 없는 착한 나라입니다. 다만 힘이 없어서 식민지 국가가 됐고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학부생인데 외국 학생들이 오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명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족보를 여러분이 설명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숙명여대 글로벌 학부에서 설명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별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 힘든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44살에 졸업했습니다. 왜 졸업을 늦게 했습니까. 데모를 했고 시위를 해서 대학 다니면서 두 번 제적당하고, 두 번 교도소에 가고, 7년간 공장 생활을 했고, 44살에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두 번이나 가고 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 고춧가루 고문, 여러 가지 맞는 고문 등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을 이미 세 번을 하고 도지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저는 8번째로 가장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도소도 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를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숙명여대의 석은옥 씨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배이십니다. 강영우 박사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의 아내가 석은옥 여사이신데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13살에 축구를 하다가 각막이 손상돼 실명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나는 청계천의 봉제 공장에 다니고, 여동생도 보육원에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심부름 일을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5년 늦게 서울맹학교를 갔습니다. 중1 때, 숙명여대 학생이었던 석은옥 여사가 거기서 봉사를 왔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맹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을 만난 것입니다. 나이가 숙명여대 학생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석은옥 여사가 강영우 박사를 6년간 뒷바라

지를 하다가 6년 만에 맹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맹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박사가 됐습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됐고, 사모님도 함께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대한민국 역사상 맹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됐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차관보가 됐습니다. 미국의 코리안 중 최고 고위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이니 아버지를 눈 뜨게 해 준다고 미국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다시 변호사가 됐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대 걸쳐 차관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맹인이 아니라 눈이 보였다면 청계천 공장에 가서 미싱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눈이 안 보여 맹학교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미국의 박사가 돼서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맹인이기에 미국의 명문 집안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참모님이 얼마 전에 양평의 그림 그리는 곳에 왔습니다. 맹인들만 모여서 사진 찍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진을 매우 잘 찍더라고요.

거기 와서 여러분 선배 석은옥 여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맹인과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과 세계적인 명문가 집안이 됐는데 이게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저도 늦게 결혼을 한 편인데, 저는 보시다시피 험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살아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혼을 31살에 했고 집사람은 29살에 했습니다. 집사람은 구로공단 세진전자의, 키보드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면도날 만드는 도루코의 노조위원장이었는데 노동조합 하면서 만났습니다.

집사람은 전라도 순천 출신이고 저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왜 하필이면 전라도 여자와 결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기에 물으니, 남자도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만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로 봉급이 적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데 축복을 해야지 왜 걱정하냐고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저는 가능하면 결혼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는 만약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무슨 행복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혼자서 도지사라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제 행복의 절반입니다. 저는 아내 없이 저 혼자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합니다. 저는 말하기를,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쁨·행복·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태석 신부처럼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의 성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210등도 안 되고, 의료가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고 조금 있으면 90세를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로 가면 100세가 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과 과학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빨리 발달해서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안 낳아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운동도 같이 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딸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딸 하나가 우리 두 부부를 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너무 중시하는 것입니다. 돈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가장 잘 만듭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1위입니

다. TV, 냉장고,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물건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데, 아이는 안 낳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분은 어머니이시고 여성입니다. 스마트폰과 아기의 값이 같습니까. 이 세상의 무엇을 만드는 사람도, 생명을 창조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창조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을 만드는 데는 남녀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2억 이상이 들어서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보육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돼서 친인척이 다 모이면 과거는 아이가 20명이 됐는데, 지금은 어른이 20명이 넘어도 아이가 5명도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늘 싸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미국도 상원, 하원 등 양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 하나만 가지고 미국의 양원을 합친 것만큼 힘이 셉니다. 단원제가 양원제 국회보다 훨씬 파워가 큼니다. 우리 국회는 힘이 큰 데 비해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잇속만 생각하고, 너무 정치 투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중 (청렴이) 가장 중요한 미덕인데, 제가 만든 구호가 '청렴영생 부패즉사'입니다. 청렴한 공무원은 영원한 미덕이고, 부패한 공무

원은 바로 즉사입니다. 공무원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은 청렴이 (세계) 40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강한데, 특히 교육열이나 공부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많은데, 교육 분야도 매  
우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앞으로 통일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통일이 될 때 여러 역할을 많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는데, 도지사의 역할은 8천 가지 이상의 법정 사  
무가 있습니다. 대학을 지원하고 도로, 철도, 보육, 교통 등 여러 가  
지 일상생활 관계 업무를 합니다. 행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365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언제든지 도청에 오시면  
언제나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서울수도 외교부도 6시 지나면 만들  
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와도 여러분들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휴 명절인데 외국에 빨리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경기  
도청에 오면 즉시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아르헨티나를 아십니까. 이베로아메리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조직  
이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옛날 남미와 여러 나라를 지배했  
는데,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나라가 모여서 그 조직  
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의 사무총장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입니다. 약 25개국이 그 조직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남미에 한 번 와 달라고 요청하는데, 왕복 72시간이 돼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저보고 오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총장이 어릴 때 코리아타운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1960년대 남미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민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초대받아서 가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무총장이 돼서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공동으로 컴퓨터를 입찰을 하는데, 전부 삼성과 LG 제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애플이나 일본의 소니가 될 줄 알았는데 한국 제품이 다 휩쓸었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자기 나라에 대부분 굴러다닌 것도 현대기아차, TV·냉장고도 삼성·LG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어릴 때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코리아가 자신이 커서 3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런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우라고 했는데, 미국은 원래 잘사는 나라여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코리아는 일본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을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농업 이민을 온 나라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반전을 일으킨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요즘은 바위 속에서 기름을 뽑는 오일이 셰일오일인데 셰일오일로 미국은 호황을 누

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짜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자원도 없는 속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머리와 젊은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좁고 분단되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죄 없이 남북의 허리가 잘렸습니다. 독일은 네 토막이 났지만 전쟁이 안 났습니다. 우리는 두 토막이 나고 전쟁이 나서 깃더미가 됐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코리아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일으킨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들이 백악관 보좌관을 하는데,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가 앓을 못 보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는 그 마음,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과 의사보다도 그 아들이 위대한 안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해코지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는 착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남북통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륙국가로 가야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 연해주도 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러시아 연해주와 자매관계인데, 우리는 정말 답답한 섬인데 북한은 반도입니다. 통일이 되면 진짜 반도국가로, 중국·러시

아·유럽으로 자동차·열차 타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큰 역전의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마음껏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중에 무엇보다도 멋진 남자들도 사랑해 주실 것이죠?

사랑은 위대한 창조, 위대한 대성공을 이룰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뜨겁고, 꿈이 높고 몸이 매우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 위대한 열매가 열립니다. 숙명여대는 바로 여러분들의 꿈을 높이고 실현하는 훌륭한 역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남미의 이베로아메리카를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과거 노조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착취를 하는 구조로 성공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7년간 노조 활동과 국회의원 활동을 한 지식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오가니제이션에게 한국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어떤 꿈을 제시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캔 두(can do)' 정신입니다. '캔 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캔 두'를 말하지 않고 '해서 뭐해'라며 하지 말자는 지도자, 해도 안 된다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과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영국의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역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가능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위 캔 두(we can do)'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젊은 이베로아메리카 사무총장은, 자기는 어릴 때 코리아타운에 살아봤기 때문에 결혼 피로연을 가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는데 지금 와 보니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자기 나라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는데 '메이드인 코리아'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해 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학을 위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서울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시골에 라디오도 TV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듣는 공부도 하고, 어떨 때는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젊을 때

배워야 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면 치매 예방도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못할 게 없습니다.

### 질문

도지사님은 젊을 때 한창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심했던 시절을 사셨습니다. 요즘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커서 돈이나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속에서 돈 이외에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 답변

깜깜한 밤이라면 빨리 불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가장 문제가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화돼야만 우리나라가 더 위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택시 기사를 하는데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려면 운전면허 외에 택시 기사 자격시험을 봐야 합니다. 힘들니다. 그런데 해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왜 합니까. 저는 지금 택시 면허나 택시 회사나 택시 기사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전하면 이 도로는 너무 좁아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신호등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님 중에 외국인에게 그 나라 말을 잘 못해서 불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탄 엄마, 친정어머니 모시고 탄 어머니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받고 가장 잘나가는 젊은이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북한 주변부터 찾아서, 여러분의 좋은 뜻을 펼쳐 주세요.

### 질문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개발이 빨리 됐지만 행복지수는 줄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까지 같이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또 지사님은 강연을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는데 젊은이들이 행복하려면?

### 답변

행복은 물질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가 4만 내지 5만이 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2등보다도 두 배가 많습니다. 그중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또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자살하려고 하시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찾아가 뵙고 김치도 담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들은 죽고 싶다가도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자살을 안 합니다.

요즘 경기도도 무한돌봄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전화만 하면 다 도와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제도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극빈층에게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에 있는 친구들은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기약을 먹는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울증 약이 많이 좋아졌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미국보다도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도 잘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우울증도 다 낫습니다. 물질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쉬쉬하지 말고, 경기도에만 도립병원이 6개가 있는데 데려오세요.

혼자서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밤에 누우면 고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내와 이야기하면 행복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학부 중에서 UN 사무총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유학생의 아들입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여성 대통령이 된 것도 대단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처럼 케냐 유학생의 아들, 이혼 부모의 아들이 대통

령이 된 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통일이 됐습니다. 저는 독일대사에게 통일이 돼서 돈도 많이 들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일이 돼서 독일이 나빠진 게 뭐가 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숙명여대에서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11월 월례조회

일시 2013년 11월 1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실이 아주 밝고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규선 연천군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경기도가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김규선 연천군수께서도 철도, 도로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국민들의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사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는지는 합의가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역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침략했는지에 관해,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을 누가 침몰시켰는지조차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합의가 안 돼 해방 이후의 역사는 가르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는, 저만 하더라도 거의 살았지만 거기에 합의가 안 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등 현재도 합의가 안 되고, 미래는 더더군다나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풀자 말자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전혀 거래가 안 돼도, 합의가 안 됩니다. 이제는 부동산에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한 법을 내놨는데도, 합의가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자국의 국사에 대해 합의가 안 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원래 좌익이 썩습니다. 일본 교조는 왕과 일장기에 대해 경례를 안 합니다. 그것은 공산당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일본이 왜 그리 됐습니까, 일본이 우경화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위기 시 합의를 해서 자국 위주의 생각으로 과거도 다 잊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아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나쁘게 위안부 문제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합의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성장률이 제로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0.1%였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니 아무도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니 물건도 안 만들고, 안 팔리니 고용이 안 됩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베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 중심으로 뭉칠 수 없는 의원내각제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1인이 담당하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특이하지만, 우리는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치 욕만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워 합의가 안 돼, 부채 한도로 완전히 재정이 위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국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사 가지고 싸웁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건국됐는데, 어떤 사람은 3·1 운동 이후 임시정부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 왜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친미

파와 지주 반동분자에 의해서 세워진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 하여 대한민국의 수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박헌영 등 자기들만 정통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승만과 한민당, 김규식, 김성수가 세운 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합니다. UN은 Republic Of Korea만 정통성이 있다고 그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UN이 암만 인정해도, 우리 내부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인정이 안 되고, 6·25를 누가 침범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통일할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로 통일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지도를 놓고 고민을 하자는, 지도가 우리 국기라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깃발이라는 제 3의 방식으로 가자는 맥락입니다. 통일을 하지 않고 남북이 합의 안 된 국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고구려·신라·백제가 나뉘었지만, 서로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통일신라에 의해 통일이 됐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인정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적 합의가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해방 이후 가장 역사적 대전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적 합의가 상당한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통일은 태극기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싫어하는데 그

런 말을 왜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에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 지역, 특히 연천군의 3분의 1도 북한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고토(古土)가 회복이 되고, 우리 경기도도 개성이 라는 의미에서 경기 북부 지역은 영토 내지는 경기도 땅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연의 지형을 매우 중시했기에, 자연의 지형과 속성에 맞는 경기도의 지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연천은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중앙이 아니라 완전히 변두리에 위치하고 철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꼬트머리가 돼 섬처럼 나뉘어 우리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천이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으로 가장 좋은 중앙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회령 같은 경우 정말 꼬트머리지만, 거기는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가깝습니다. 우리 연천은 그 철책을 넘을 수가 없어 완전히 딱 막혀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는 다리, 철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신의주시의 황금평은 중국 단둥과 붙어 있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무산 사람들이 아침에 중국에 가서 설거지해 주고 밥 한 그릇 얻어서 온다고 합니다. 한 마을이니까 말도 통하고, 간판도 중국말과 우리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중국의 만주 지역의 상당 부분은 북한과 비슷하게 많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분단이 됐지만 반도국가고, 우리는 분단이 돼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지만 북한은 도로나 철도 등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이 된 피해가 북한보다 훨씬 크고, 그중에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큼니다.

통일이 되면 경원선 철도, 시베리아 철도가 전부 연천으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도로, 철도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중국 시베리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자동으로 늘고 자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강화·옹진 지역은 통일이 되면 가장 수혜를 입을 지역입니다. 통일이 되면 최전방 DMZ, NLL 중립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상해의 푸동을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공산국가로 사회주의 경제를 하다가 시장경제 개혁·개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특구입니다. 광둥성의 신천이 특구고 개방됐습니다. 이 특구가 하나씩 성공하며 넓어져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중국의 상해 푸동을 특구로 해서 제조업 외 금융을 개방해서 어떤 외화도 쓸 수 있도록 완전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개방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해를 특구로 개방함으로써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부산항입니다. 상해항이 세계 1위가 돼서, 중국의 내륙 화물이나 대부분 부산항으로 오던 화물이 이제는 다 그리로 갑니다.

둘째, 인천항이 완전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자 없이 마음대로 모든 항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상해 특구가 인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나 병원 등 다 그리로 오라는 것입니

다. 무관세로 무비자로 다 여는데, 이거 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상해의 디즈니랜드를 100년간 무상 임대를 해 줬고 도로, 철도를 다 깔아 줬습니다. 내가 디즈니랜드 회장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철도, 도로 다 깔아 주는데 그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평당 100만 원인 여기로 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기업이 상해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미 너무 복잡해서, 밤새도록 휴일 없이 일해도 밀려오는 기업의 상담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인천 외 최전방인 용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그리고 그 옆의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최전방 일대 지역을 완전히 평화특구로 지정한다면 상해와 맞먹는 정도로 자유화돼 전 세계 기업과 문화가 그리로 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정도 이상으로 상당한 정도로 국제 평화특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북한이 대포를 쏘고서는 북한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DMZ, NLL 일정 부분을 특구로 공동 선언한다면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낙후된 최전방 지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전 세계에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해 특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합의가 안 됩니다. 제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과 몇 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하나라도, 백령도 하나라도 수도권에서 떼자는 이야기를 제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함께 건의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서울은 답답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백령도를 왜 빼느냐 합니다.

안보는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서울은 군부대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의 수준이 낮아서 특구가 안 됩니다.

중국도 특구 발표를 하니 공산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상해는 경기도보다 훨씬 잘사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1인당 GDP가 1만 6천 달러가 안 됩니다. 상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사는데, 왜 특구를 하느냐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자체는 균형발전으로 같이 잘살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공산당이 하는 것보다 더 진도가 안 됩니다. 여야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국민들 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에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는가' 합니다.

통일이 되면 도로, 교통, 물류, 인구, 경제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최전방에서 특구를 하자는데 관심을 가집시다.

특구를 중국은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에 점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특구로 천진시·대련·단둥 등 섬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면으로 왔습니다. 점, 섬, 면 방식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일대가 점차 자유롭게 가야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중국의 특구 정책과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한다고 되겠는가'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산이 너무 없어 현장에서 많이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엄청 시달립니다. 예산 조금 깎으려면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빚을 낼 수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1억을 빚을 내면 우리 후손은 2억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도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가 근검절약하면서 벌어서 써야지, 빚내서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힘들지만 맡은 임무에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일시 2013년 11월 6일 서울 팔래스호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첫째, 통일이 돼야 하고 둘째,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말해서 되겠느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은 전범 국가입니다. 독일은 경기도와 자매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가 동독, 서독에 갈 때마다 독일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점을 매번 느낍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이자 전범 국가로서 나라가 네 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벌써 23년 전에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

를 지어서 이렇게 분단이 됐고, 독일이 통일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통일이 안 될까요.

우리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학살한 적도,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1941년 여러 나라, 특히 미국 영토인 진주만을 습격을 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인들을 전부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몰살이 안 됐고 왕도 멀쩡합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분단될 이유가 없고 반드시 미국, 러시아, 중국, UN,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한 일본 등 국제 사회가 모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나뉘는 후 그 효과를 보니, 북한은 분단이 됐지만 반도국가라서 육지로 러시아와 중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 돼서 완전히 섬이 됐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나 배 없이는 다른 국가에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을 얼마든지 육로로 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단의 위험이 가장 큰 곳은 남한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인데 DMZ가 경기도로 지나가고 연천, 장단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 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군사보호시설이 45% 이상이고, 외곽순환도로 외에는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갈 때마다 도로를 깔아 달라고 합니다.

한반도 정중앙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입니다. 한반도 정중앙이기에 당연히 그곳을 통해서 철도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그쪽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애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금의 꼬트머리가 중앙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실제로는 땅값이 낮지만 통일이 되면 저절로 오를 것입니다.

다만 DMZ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주거지와 일치가 안 됩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이기에 소유권 분쟁이 있겠지만, 미래에는 잠재적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교통, 물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국의 요녕성 단둥, 대련, 광둥성, 하북성, 천지시 등 여섯 개 성과 자매관계에 있습니다. 요녕성장은 저를 보면 늘 하는 말이, 요녕성에 경기도 중소기업이 3분의 1이 있는데 경기도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 줄 테니 투자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요녕성장에게 김정은을 만나서 철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녕성장은 자본주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설국열차'처럼 '밀봉열차'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단둥 가는 길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중국이나 공산권은 철도가 매우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요녕성으로 가지, 우리가 광둥성까지 뭐 하러 가고 산둥성까지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요녕성장이 하는 말이, 김정은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김정은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만날 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단동 황금평이라는 섬에 갔는데 그곳은 실제로 섬이 아니라 단동에 붙어 있는 육지입니다. 황금평과 단동시는 도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북한입니까. 섬도 아닌데 북한에서 가려면 상당히 큰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물길이 계속 바뀌면서 하구에서 섬이 아니라 저쪽으로 붙어버린 육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압록강 안에는 섬이 거의 100개가 넘는데 분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제가 중국과 러시아 마을 답사도 많이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다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산은 도랑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우리말이 다 통합니다. 중국말도 물론 합니다.

연해주도 우리와 우호관계에 있는데 그곳도 고려인이 많습니다. 거기 가니까 북한에서 온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북한 노동자를 공항에서 만나서, 전세기를 타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철도로 안 다니고 비행기로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연해주와 동북 3성 일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는 스탈린 대에 강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코

리안은 일본인과 비슷해서 일본이라는 적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여 스탈린 때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보다 코리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와서 농사지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농사지를 사람은 없고 땅은 남아둡니다. 이 추운 데에 누가 오겠습니까.

농사 부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이 되면 하나의 생활 구역으로, 영토와 활동 무대, 교역, 마켓 자체가 획기적이 될 것입니다. 확 퍼지면 최하 2억 이상, 3억 이상의 내수 마켓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가스를 가져오면 에너지 강국도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은 합의가 안 됩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보면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법안에 나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동네 복덕방 가면 이런 법안에 대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됩니까. 국가적으로 목표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살아 보세' 해서 경제성장, 수출 모두 합의가 됐습니다. 요즘은 경제성장 해 봤자 분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률이 1% 떨어지면 경기도 세수가 2,500억 떨어지고 국가는 2조 이상 줄어듭니다.

세금이 안 들어오면 복지는 어떻게 하고, 노숙인은 어떻게 하고, 급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뭐 하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를 얼마나 안 낳습니까. 같은 학교에 6학년이 100명이면 1학년은 60명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령자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입니다. 현재 기대 수명이 80.9세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90세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매우 유능하고, 웬만하게 아픈 것은 다 고칩니다. 심장도 간도 다 잘 끼워 넣습니다. 노인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지면서 돌아가시지는 않는데, 노인들의 낙이 없습니다. 오래 살게 되면서 준비도 부족합니다. 예측 못할 삶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는 대학도 4년제에서 1년제 내지 2년제로, 실버들과 은퇴자들을 위한 정규 코스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공부해서 나가서 일하는 인생 삼모작을 할 수 있게 학교를 대개혁하자고 제안을 많이 합니다. 다만 노인들이 늘면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만 해도 세수 결손이 4천억 이상이 되고 내년에는 8천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레저세가 있는데 과연 경마장이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때 빚을 내면 누가 갚겠습니까. 저는 빚을 내면 미래 세대를 향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세수가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수가 50%가 넘고 레

저세가 20%인데 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1.2명밖에 출산율이 안 되는데 우리 부부가 1억씩 빌리면 우리 딸 세대는 2억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미래를 위해서 빚을 내면 안 됩니다.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텍사스가 가장 잘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와 협력 관계입니다. 미국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유타와 자매 관계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아이스퀘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주 지구가 경기도에 와 있습니다.

그 지구대에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미국에 수출을 원하는 우수 아이템을 심사 후 뽑아서 미국에 납품을 해 줍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상을 받았습시다. 중소기업이 바로 미국으로 직수출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텍사스가 왜 잘나가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소득세가 없고 둘째, 멕시코 등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셋째, 기업가 정신이 많아서 특허권 수가 많고 넷째, 세일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요건이 맞아서 요즘 미국이 잘나갑니다. 미국은 개방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우수 인재가 많이 와서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어렵지 않고 출산율이 2.0이 넘습니다. 인구도 늘고 세계 각국 우수 인재들이 몰려옵니다. 코리안도 250만 이상 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이 50만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와 있는 사람만 상당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니트·염색 공장, 양주·동두천·포천의 염색 공장이 잘나갑니다. FTA 체결로 관세율이 27%까지 없어지는 품목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중국의 잘나가는 섬유와도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합니다. 사람 못 구해서 비어진 3D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경기 북부 공장들이 외국인을 많이 뽑아 달라고 요청하는데, 불법체류자를 다 뽑아도 모자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민 국가가 아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인력 부족이 최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는 아이 많이 낳으라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위원장을 종교 쪽에 있는 성직자를 모셔서, 설교할 때마다 아이 많이 낳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명품은 한국의 핸드폰, TV, 냉장고 등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고서 누가 쳐다보겠는가 합니다. 물건 잘 만드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났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안 하니 이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대학에 가면 무조건 결혼하라,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16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8남매 중에서 저는

7번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끈대라고 욕을 먹기도 하는데 시집, 장가 안 가서 애를 안 낳고 뭘 하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것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조사해 봤습니다. 일본도 20년 이상 내리막길을 걸어 왔는데 저는 일본 현장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습니다. 가서 보면 일본은 이미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되고 인구도 많고 기술 수준도 앞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은 기획, 설계, 시공, 분양, 관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수요자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일본 동경에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은 밖으로 안 나가서 일본 동경 신도시는 공동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GTX입니다. 제가 GTX 창안을 처음 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도지사 처음 될 때 경부고속도로를 둘러싸고 분당, 수지, 화성, 동탄 일대가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주차장에서 고속도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2층 도로를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서 땅 밑으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50m로 내려가면 지장물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터널 파는 솜씨는 세계 1위입니다. 워낙 산이 많아서 터널 시공 경험이 많고 KTX도 거의 터널입니다. 그래서 시공비가 확 떨어

집니다.

GTX에 대해 민간이 50% 이상 내겠다고 합니다. GTX가 완공이 되면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8분 만에 갑니다. 지금은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래 가지고는 도시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는 획기적인 방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타면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갑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창안한 시속 200km로 가는 것입니다. 국고도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외국에서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도권처럼 좁은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합치면 북경시 면적의 70%입니다. 그만큼 좁은데 인구는 2,500만 명 이상 삽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주택 260만 호가 계획이 됐습니다. LH에서 하는 보금자리주택만 102개가 됩니다. 260만 호 신주택 공급은 계획돼 있는데, 예측 수요는 90만 호입니다. 아이만 많이 낳거나 이민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다시 1인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팔리는 것은 원룸밖에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젊은이들이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 정책은 중앙에서 다 합니다. 경기도 가평 강변에 별장형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집을 짓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진을 찍을 데가 없이 전부 집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자체가 상해보다도 뒤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상해 무역자유특구를 만들어 상해는 15%까지 법인세를 확대시키고 거기다가 무비자입니다. 홍콩보다 쌉니다. 첫 번째로 타격을 받을 곳이 부산항과 인천공항입니다. 상해는 지금 1등인데 거기다가 완전히 홍콩 이상으로 세금을 낮추고 무비자 개방을 하면 과연 부산항에 들릴 화물이 있겠습니까. 인천공항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센토사는 우리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만 평을 하기로 하고, 센토사는 땅을 60년 무상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카지노를 박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땅이 서해안 매립지인데 땅값 더 내라고 하고 아직 계약도 못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짜로 주고, 상해는 디즈니랜드를 100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철도·고속도로도 다 깔아 줍니다.

지금 대기업은 안 됩니다. 중국의 시안에 삼성전자가 갔는데, 그냥 거의 무료로 다 줍니다.

이번에 제가 조지아 주에 갔는데, 그곳에 나가 있는 기아자동차에 1년에 270만 평을 1달러에 빌려 줍니다. 근로자들의 봉급이 우리나라의 75%밖에 안 됩니다. 공장 밖에 사람도 안 보이는데 세 번 무단이탈하면 바로 해고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분위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곳은 노조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조가 강성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제조업도 그린벨트 풀어 줄 테니 여기 계속 있으라고 해도 안 있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땅값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공장 자체가 만주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심는 게 가능하나, 지금 처럼 섬나라로는 어렵습니다.

관광 분야가 발전해야 하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카지노도 좋습니다. 싱가포르도 굉장히 강한 클린 시티였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카지노를 하는데 정말 싱가포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운영 방식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싱가포르 카지노를 방문했었는데 여권 다 찍고 통제를 매우 엄격히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도박에 못 빠지게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의 영종도, 백령도, 연평도 몇 개는 묶고 제주도와 영종도 두 개 정도는 자유 구역으로 풀어 주자고 제안합니다. 제주도는 요즘 잘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거기 땅을 5만 평 이상을 샀는데, 무를 심어서 상해에 팔면 8배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현지인들이 한국 제주도는 청정한 지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농산물도 상해에 판매하는 쇼룸과 매장이 있는데, 고급으로 소량을 팝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량이지만 중국 시장은 큰 마켓입니다. 의료와 관광이 복합적으로 융합돼 호텔과 카지노, 병원이 합친 메디텔(medi-tel) 호텔과 같이 복합적인 관광 레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가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LH에서 경기도만 102군데나 집을 만들고 보금자리를 지으면 다른 일반 주택이 미분양입니다. 지금도 3만 호 이상이 미분양입니다. 자꾸 집을 짓지 말고, 일자리 만드는 곳, 이것을 짓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주출판단지나 안산 시화공장 등은 젊은이들이 즐길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공장 근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숍을 짓고 한잔하고 노래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특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젊은이들이 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와야 돌아가서 세금도 받을 것 아닙니까? 왜 일자리 만들면 특혜 시비로 안 줍니까. 그린벨트 푼 것을 주택 짓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자 이겁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 땅이 남습니다. 경기도는 홍콩의 9배나 넓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풀고, 일자리에 관해 세금도 깎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합시다.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경제를 먼저 살려야 민주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대전환하고, 주택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 꿈은 통일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돕는 것입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지사님은 왜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 답변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하고 공장을 7년 다니고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는 도루코라는 곳에 다니고 집사람은 세진전자에 다녔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딸이 생기고 저는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교도소에 나와서 집사람에게 아이 하나 더 낳자고 하니,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키울 자신이 있냐고 묻기에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건달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 가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도망 다니고 했습니다.

남영동, 중앙정보부, 보안대, 다 잡혀가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 제가 교도소에 가면 오히려 생활이 폼습니다. 저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발언권이 없어서 집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매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둘 낳는 게 형편상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딸 하나도 없었다면, 집사람도 없었다면 제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집사람이 있다는 게 도지사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결혼 안 한다는 젊은이들 보면 그

게 행복할 것 같으나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사는 맛을 잘 모릅니다. 사랑은 서로 맞춰야 합니다. 사랑이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쁨인지 알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질문

저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에서 토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처음 16조 예산을 했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결국 22조가 넘었고 앞으로 거의 30~40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GTX도 마찬가지로 예상 비용 12조 중에서 국비는 6조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조금씩 사업 변경이 돼 초기 계획 예산보다 더 들 것입니다.

국가 SOC 사업을 하는데 대학 교수 말씀을 많이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는 전문가가 축이 된다면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가 반은 줄었을 것입니다. GTX를 한다면 사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대학 교수 중 건축 토목 분야는 실무와 많이 연계돼 있습니다. 관계 되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연구자, 교수, 공무원, 국민 이야기를 듣는 융·복합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공무원 출신, 교수 출신이 많은데 서로 비판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융합·복합되는 거버넌스가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GTX가 매력 있는 게 역세권 개발을 잘하여 이왕 파는 김에 그 일

대를 다 파면 엄청난 새로운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이익이 상당할 것입니다. GTX, 일반 도시철도, 버스, 그리고 택시 환승이 같이 이뤄지면서 쇼핑 관련 각종 복합적인 물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정도의 역사 건축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당, 판교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역세권 환승 복합 시설 등을 많이 짓고 주변 개발을 많이 하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자를 60%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50%로 낮추라고 해서 낮췄습니다. 전 세계에서 좁은 거리에 이렇게 밀집된 유동 인구가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좋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일시 2013년 11월 13일 건설회관

안녕하세요.

요즘 박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시고 계십니다.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오셨는데 우리나라 통일과 북방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는 통일이고 또 하나는 선진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계속 나뉘었다면 지금처럼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통일 비용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강국이 됐습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이자 전범 국가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때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웃나라를 폭격하고 습격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승 국가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전쟁에서 진 독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 때문에 나뉘었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패전한 적도 없고 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뉘었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독일은 23년 전에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대한민국은 나뉘었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필리핀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까지 부대를 끌고 가서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몰살시켰습니다. 일본은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범죄를 일으켰으며,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했는데도 왜 나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말입니다.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고 착한데 많은 시련을 겪었고,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죄 없이 분단됐고, 이 책임은 국제사회, 무엇보다 일본의 책임이 큼니다. 당연히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8년째 하고 있는데,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8년째로 가장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북쪽에 가면 주민들이 도로와 철도를 깔아 달라고 합니다. 경기 북부는 도로율, 철도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통일만 되면 첫째, 자동으로 경의선이 신의주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고양, 파주, 평양, 신의주, 단동까지 가는 경의선이 대륙 간 첫 번째 철도입니다. 또한 경원선은 의정부, 연천, 철원, 금강산을 거쳐 원산, 나진·선봉,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까지 갑니다. TSR, TCR 철도는 유럽으로 가는데 경기 북부로 해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둘째, 경기 북부 지역은 완전히 반도의 정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꼬트머리가 돼 있습니다. 북쪽의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이 한반도 정중앙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금은 꼬트머리가 돼 있지만, 통일이 되면 사람들의 출입량도 많아지고 땅값도 오를 것이고 교통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대가 경기 북부 지역에 4,500개 이상 있습니다. 육·해·공군, 미군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모든 부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사단장 도장이 없는 집을 고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거기에 뭐 하러 있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북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통일로 인해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분들이 큰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땅을 사 두면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 대륙과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완전한 섬이 돼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삼면밖에는 없는 섬이 됐습니다. 피해는 남쪽이 북쪽보다 더 큼니다.

남한 중 북부 지역인 경기도, 강화도, 강원도 사람들이 통일이 돼서 국경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단동까지 가는 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단동, 요녕성이 경기도와 자매 지역인데 성장 왈, 경기도 전용 단지를 만들어 줄 테니 투자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성장님이 김정은에게 이야기해서 철도만 통과시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기업인이 뭐 하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경기도 자매 지역으로 중국의 광둥성, 허북성, 산둥성, 천진시, 요녕성이 있는데 우리는 요녕성에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철도만 되면 잘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철도가 지나가면 자본주의 바이러스가 깔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처럼 밀봉을 해서, 서울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연해주까지 가는 동안 그냥 밀봉해서 지나가면 자본주의 바이러스가 안 깔리지 않느냐고 해도, 북한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863년 함경도 사람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150년 됐는데 그리로 가서 이민을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두만강 일대나 압록강에 가면 다 한국말을 씁니다. 간판도 한국

간판과 한자가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실 생활권이 같습니다. 도랑만 건너면 중국의 마을과 통합니다. 아침에 중국 마을에서 설거지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곤 합니다. 통일이 되면 땅과 도로, 철도 등 경제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로 통일에 이어) 둘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될 것입니까.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에는 아베의 파벌도 없고, 민주당도 공산당도 통진당도 없습니다. 일본은 좌익이 심한데 미국은 일본의 좌익을 막기 위해 왕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좌익도 조용합니다. 일본은 위기를 겪으면서 국론이 단합됐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석기 재판 받는 것을 보면 다 아니라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잡혀서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두 번 가서 2년 6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저는 주로 공안 사범으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 무조건 뺨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맞다 보면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권 때문에 패지도 도청도 못하니 간첩들이 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잡아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석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뿌리에는 지하당이 있고 또 노동당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북한의 노동당이 있습니다. RO 위에 혁명적 대중조직이 있고, 이렇게 몇 층의 조직이 있습니다. 들키면 계속 뿌리가 있어서 나중에 그 뿌리가 안 다치게 돼 있습니다. 세계 공산당 조직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코

민테른, 중국공산당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요즘 조용합니다. 우리는 노사, 여야가 다 안 맞습니다. 취득세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1년에 5천억에서 8천억 원의 세금이 줄고 있으니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이 살 것 아니냐 해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말로만 되지 실제로 합의가 안 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데 답이 있습니까. 안 되니 헌법재판소로 간다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국회 선진화법 등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노사 간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조도 잘 압니다. 공무원 노조도 골치 아픈 게 많은데, 경험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합의가 되는지를 조금 아는 편입니다.

미국의 UAW가 있는데 이 노조가 세계 최강 노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왕창 무너졌습니다. GM, 크라이슬러가 무너지면서 다 넘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조지아 주 웨스트포인트 시에 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목화가 많은 곳으로, 목화를 따다가 실을 짜는 도시였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목화 따서 실 짜는 게 다 망했습니다. 인구 3,500명 되는 조그만 시인데, 거기서 기아자동차에게 270만 평을 단돈 1달러로 빌려 줬습니다. 다른 주도 이런 게 많습니다. 270만 평을 1

년에 1달러 주고 빌리는데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봉급은 우리나라 기아자동차의 75%밖에 안 됩니다. 웨스트포인트에 1만 명이 일하는데 공장에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안에서 다 일하고 있는데, 복도에도 밖에도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무단이탈 3회면 자동 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하는 동안은 안 돌아다니고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아자동차 경영자에게 고마워해서, 기아자동차 유니폼을 입고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Sir'라고 경칭을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항에 가자마자 한국인이라고 하니 굉장히 존칭을 하며 예우를 갖추더라고요.

그 옆의 앨라배마 주에 현대자동차 공장 등 부품 공장이 102군데나 있습니다. 그 일대가 다 공장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현대 정몽준 의원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당 1백만 원을 줘도 그 땅을 못 살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상해를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상해는 홍콩보다도 더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홍콩의 법인세가 16%인데 상해는 더 싸입니다. 비자 없이도 상해에 체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해는 과거의 개혁개방 이래로 최고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시화호에 103만 평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7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이미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싱가포르는 30만 평이 안 됩니다. 싱가포르 전체 땅 넓이가 경기도보다 작는데, 싱가포르는 그 땅을 60년간 무상 임

대해 주고 거기다가 카지노를 박았습니다.

싱가포르 국가 정책은 '클린 시티'에서 '편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유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검을 뺏어서 곤장을 맞게 될 상황이 오자 클린턴 대통령이 탄원서를 낸 일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편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싱가포르를 갔는데 호텔 꼭대기 옥상에 수영장을 다 깔아 놨더라고요.

한국은 코리안 스피드가 세계 최고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2% 성장이 안 됩니다. 중국은 1년에 7% 이상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3%, 러시아도 4%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가 더 안 열리니 나눠 줄 것도 없습니다. 복지도 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이는 점점 안 낳고 노인 평균 수명은 점점 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은 80세인데,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도 건강하지 않고 고문도 많이 당해서 4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건강해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도 하나입니다. 제가 38살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교도소에 나오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키울 수 있느냐' 해서 더 이상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만나 하나밖에 안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빚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살림을 알뜰히 했는데, 공무원들이 더 빚을 내자고 해도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1억 빚을 내면 다음 세대는 2억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당황하며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특히 할아버지들의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무기력하고 자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혼율은 세계 2위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지금은 1인 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원룸에서 많이 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7년 내에 260만 채의 집을 더 짓기로 계획돼 있지만 90호밖에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중과세를 하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부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노후에 월세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주택 정책 때문에 증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증권이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을 빌려 주는 것은 서민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자고 법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 두 채 가지면 부자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바꿀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인구가 많고 집이 부족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집은 많고 사람이 적은 시대, 애는 적고 어른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특별법을 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LH 공사에서 풀어 놓은 땅만 수천만 평이 됩니다. 여기에 집을 다 하면 원래 있던 주변 집값이 다 폭락합니다. 새 집이 1억 하는데 현 집을 1억 5천만 원 하는 데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스톱을 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묶으면,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 용도는 서민 주택이지만, 서민 주택 짓는다고 주변 서민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그 땅을 묶으려고 해도 땅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농지를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생산해야 하는데, 농지를 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도 이 땅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지가 남아둡니다. 대한민국은 농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는 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농지도 풀 수 있는 것을 풀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 하면서 죄 지은 대기업 회장들이 많이 구속됐습니다. 이 상황에선 큰 투자는 못합니다. 기업 운영은 하지만, 큰 투자는 회장이 석방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철근, 삽질, 도배, 이사를 하는 분들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건축도 살리고 주택

의 과도한 정책을 다 바꿔야 합니다. 싱가포르, 러시아보다 더 잘사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텍사스 주가 현재 가장 잘나가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잘나가는 이유는 첫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캘리포니아, 멕시코 등 외부에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텍사스는 원래 기름이 많은데 요즘은 셰일오일이 많이 나와서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넷째, 창업 특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 북부의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이 지역에는 염색 공장, 가구 공장, 도금 공장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은데 외국인들 50만 명을 채용해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런 데는 젊은이들은 아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깨끗하고 근사한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 보호로 그런 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사 될 만한 것은 다 막습니다. 전통시장 가라고 해도 젊은이들은 안 갑니다. 젊은이들은 놀면서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커피숍이 돈은 더 안 쥐도 그런 데만 갑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출자도 못하게 하고 도둑놈으로 취급합니다.

미국에서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은 최고라고 찬사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대기업도 좀 하게 해야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외에 외국의 대

기업도 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 대기업도 끌어와야 합니다. 판교에 가면 1층에서 6층까지 거의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소가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커피숍도 짓게 해야 합니다. 그걸 다 막고 전통시장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중국인들도 한국에 쇼핑하러 오는데, 복합쇼핑몰을 짓고 전통시장도 옆에 있게 하고 프리미엄아울렛부터 값싼 아울렛까지 다양각색의 쇼핑몰을 한 자리에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복합 기능을 하는 게 되지, 이것을 떼서 나누면 요즘 사람들은 차 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입니다. (경기도가) 러시아 연해주와 자매 관계에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농기계로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지면 그냥 절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봉합을 깨끗하게 합니다. 러시아는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의료 시설과 장비도 매우 우수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죽을 사람도 수술 잘해서 살려 낸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도 앞으로 먹고살 것은 의료고 약입니다. 여기다가 호텔도 같이 하는 메디텔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식당도 잘 지어서, 한 끼에 돈 십만 원 씩 받아서 돈을 벌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 제약은 매우 우수합니다. 미용, 성형, 건강 등 모든 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먹고, 놀고, 영화 보고, 학교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유학생이 오면 학생들은 공부하고, 부모가 학생 만나러 와서 학교 안의 호텔을 이용하게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파주출판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라서 커피숍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의 한길사라는 출판사 안에는 커피숍을 못하게 하는데, 이유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지으면 책도 팔리고 돈도 벌고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호텔도 짓고 안마도 받게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하면 인기가 있어서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만들었으니 상업단지 유치는 못하게 합니다.

학교 안에 무슨 호텔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학교 안에 왜 커피숍도 안 됩니까. 반월시화단지에서 30분을 걸어도 커피숍 하나 없고, 밤이 되면 너무 캄캄하고 택시도 버스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하고 놀이하는 게 전부 어우러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하는데 왜 노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판기 커피도 안 먹습니다. 밥 한 끼보다 더 비싸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십니다. 시대에 맞게 가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서 선진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강국을 이끄는 세력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나라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는 한심한 나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애국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뜨거

운 교육열을 갖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열정,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뭉쳐서 대한민국 선진 주체 세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통령 혼자 선진국을 못 만듭니다.

선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주체가 되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 모임은 '나라미래 주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쉬지 않고 잠들지 않고 우리 머리를 짜고 지혜를 내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 청중과 질의응답 >

#### 질문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 분열이 국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에 중북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중북 세력을 척결하는 방안은?

둘째, 대한민국에는 정치는 있어도 정치가가 없다는 일반 시민들의 탄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자고 나면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자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 답변

공안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군이 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임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갑론을박하다가 망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원이 자기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김정은이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고), 김정일이 러시아로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도 안 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북한의 모든 권력이 김정은 1인에게 다 있어서 우리가 꿰뚫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특히 적의 우두머리를 알아야 합니다. 종북 세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약합니다.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반민주라고 합니다. 북한이 퇴보인데, 언론도 (북한을 보고) 다 진보라 합니다. 저는 퇴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수 세력이 많은데 북한은 퇴보세력이 많습니다.

군은 요즘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누가 적인지, 누가 국가 주체 세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공안 세력 중에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석기 사태도, 법원 안에서도 사실 내통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안 기구 체제를 정비해서, 국가가 적들의 교묘한 위장 술수에 농락당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의 전문가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둘째, 정치가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정치가를 길러 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봐도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누가 진보인지 누가 퇴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부터 가리는 기초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보좌관들이 표 떨어지는 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는데……. 건국의 정신이 그때 시작했는데, 지나간 과거 역사도 합의가 안 되는 대한민국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사 뿌리 교육, 우리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위대한 선진 통일 강국으로 만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이 이렇게 이 시간에 한숨도 안 주무시고 이 연세에 도시락 하나 잡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우회

일시 2013년 11월 29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파티는 끝났다는 말을 얼마 전 재경부 부총리가 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파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황식 前 총리께선 어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뻔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꾸 다른 것을 덧붙여 일괄 처리를 하려다 보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옆의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국제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긴밀한 찰떡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딜레마가 많습니다. 미국과 너무 가까울 수도 없고, 중국이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해서 우리는 과연 이어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어떤 방향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수원에는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당선 연장철도가 오늘 수원역까지 개통합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토부 장관과 함께 개통식을 합니다. 이 철도는 국비 66%, 도비 12% 1,692억, 시비 8%로 개통합니다. 수원, 용인, 분당, 강남, 서울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좋은 철도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철도 시대가 열려, 그동안 경부선으로만 가던 철도에서 분당선 그리고 광교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또 동탄과 신갈 쪽으로 가는 GTX가 연결되면 획기적인 철도망이 될 것입니다.

철도망은 단순히 교통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가 앞으로 인구 감소로 위축되는데 이를 도울 것입니다. 신도시가 줄어들고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출산율이 1.3이던 것이 올해 1.1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져 세계 220위 밖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너무 아이를 안 낳는 상태에서, 과연 신도시에 누가 살겠습니까. 매우 어두운 전망입니다.

출산이 안 되는 상태이고, 의료 발달로 고령화는 급속히 발달합니다.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를 안 낳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복지 대상인 노령인구만 늘어가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도심과 신도시의 공동화를 막고 서울 중심의 교통을 신속히 확장하지 않으면 경기도 공동화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경기도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곳곳하게 경기도 각 분야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일을 안 하고도 잘살 수 있지 않겠느냐, 세금을 안 내고도 복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국방을 하지 않고도 제주 해군기지 등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평화롭게 잘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망상, 잘못된 인식이 계속 퍼지는 것입니다. 공짜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퍼져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경기도는 일부 살림을 축소하더라도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빚을 내면 갚을 후손이 없다는 생각 아래 올해도 초긴축 재정으로 내년 도정을 설계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경기도는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살림을 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기는 없습니다. 빚내서라도 파티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더

이상 빚내서 파티를 계속할 순 없습니다. 고통의 목소리가 도처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리더십, 희망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는 지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일시 2013년 12월 26일 용산전쟁기념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경기도 향군에는 자주 갑니다. 경기도에는 군부대가 600개 이상 있고 DMZ, 한강 중립 지역, 최전방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 와 보니 역시 스타가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서울 향군의 대단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여성 회원분들 많이 오셔서 부드럽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올해는 변화가 많습니다. 내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51년 전쟁 중 대한민국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꿈은 시골에서 먹을 게 없어서 밥을 한번 실컷 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이어트 중이므로 꿈을 다 이뤘습니다.

또 다른 어릴 때 꿈 중의 하나는 나이 40세 이상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목숨 자체가 워낙 길어져서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인 꿈은 다 이뤘습니다. 먹는 것도 실컷 먹어서 꿈이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아직 못 이뤘습니다. 이제 통일에 제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1970년에 입학해서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사실 골치 아픈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대학에서 제적을 두 번, 공장 7년 생활 중 해고를 두 번 당했고, 교도소를 2년 6개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장성택보다 훨씬 빨리 총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고모부까지 다 죽이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남아 있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해서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와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운동권으로 데모를 했고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최장수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면 다 총살될 저 같은 사람도 안아 주고 받아 주는 관용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저에게 베푼 은혜와 아량과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포용하는 관용을 생각하면 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즉시 생명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좋은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모든 꿈을 이룰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받아 주고 반대 세력도 다 안아 주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빔밥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태극기를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지금 무슨 통일이냐, 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대사에게 통일 비용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대사는 '독일이 통일이 안 됐으면 지금처럼 유럽연합의 훌륭한 리더가 됐겠느냐' 하더라고요. 독일은 통일이 돼서 유럽의 강국, 중심국, 유럽의 동서를 잇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과 경기도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의 분단선에 가봤습니다. 독일은 정말 죄 많은 나라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한 나라입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고 패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승전한 네개의 나라가 독일을 나눴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전쟁에 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을 학살한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만큼 착하고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뉘었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시 군사력이 워낙 세서, 태평양을 건너 진주만을 습격해 미국 군인 2천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일본의 왕이 전범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본이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나뉘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나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일처럼 전범 국가가 아니고 죄 없이 분단 된 나라이기에 국제 사회가 당연히 통일을 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UN 등 국제 사회가 당연히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내입니다.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에는 북한도 포함되고, 북한 주민도 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밥을 굶고 수용소에 끌려가도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북한의 주민을 학살, 학대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중심에는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재향군인회가 모금을 하고 앞장서서 시위

도 하고, 중요할 때마다 중복 세력을 척결하자는 운동과 활동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 된 국민이 되는 게 최상의 안보입니다. 이렇게 실천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특히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말하는 게, 경제가 중요하고 통일도 비용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안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경제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첫째는 국방 안보,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은 이미 있고, 국민도 있지만, 주권이 있기 위해서는 무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최근 방공식별구역을 넓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쳤는데 육군은 우리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해군, 공군력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방비를 늘리는 데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 자체를 위해 강력한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데 한미동맹 없이 과연 그 강대국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양키 고 홈!' 합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고도, 경기도 도로 사고로 명백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도로를 못 넓혔습니다. 그 도로는 오르막길 산골짜기 도로고 명백히 길이 좁아 피할 곳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인데, 반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뿌리를 지닌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사책을 보면 한국은 친일파 청산도 안 하고, 친미 세력이 많고, 미군이 주도해서 한국은 나쁘고, 외세 의존적인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북한 민족은 순수성을 지닌 주체 세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무역을 많이 의존하게 된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력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려워진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약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바로 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무원도 국사를 잘 몰라서 저는 훌륭한 역사학자와 함께 공무원을 위한 국사책을 저술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3분의 2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이 국사책은 친미 세력이고 이승만, 박정희, 미국을 미화하는 책 아니냐' 하면서 폐기처분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상적인 혼란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에서는 국사 교육을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를 건국한 그 중심 세력, 6·25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킨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 낸 호국 세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배워 가면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배웠던 삼성이 지금 일본의 소니와 미국의 애플을 이기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을 배웠던 현대차도 미국, 일본 차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재미교포 260만 명이 미국과의 교류 속에서 경제, 국방,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도 최고여서 각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를 배우러 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호국 세력,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미국식·다당식이고, 언론의 자유 보장, 자유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 모두 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방식인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해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헌법과 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것을 다 읽게 해서, 정신적으로 바르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북한의 금강산, 개성공단에 가면 다른 것은 없고 김정은 개인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련이라는 우리나라보다 45배 이상 큰 나라가 한반도에 붙어 있었고 광활한 중국 대륙이 한반도에 붙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반은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꽃을 피워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미리 질문을 던져 놓고 존경하는 정치인 두 사람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니 참모들이 '왜 그러시냐, 그러면 표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고 물었더니 링컨, 케네디, 대처를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 존경하지도 않는, 잘 모르는 외국 사람을 대는 걸 양심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쪽이라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1948년 5·10 선거를 하고,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어느 학자보다도 세계정세를 잘 아셨습니다.

너무 권력을 연장하려고 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공산 침략을 막고 평화선을 그어서 '독도는 우리땅'이라 외친 부분은 그분 아니면 누가 했겠습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없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부터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지금은 1인 가족 시대가 왔습니다. 나 홀로

노인, 결혼 안 한 1인 가정이 전체 가구의 25%가 넘습니다.

이래서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는 1.3이었습니다. 그나마 흑룡띠라 해서 그 정도였지만 올해는 뱀띠라 애를 안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출산율은 220등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말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많이 안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딸 아십니까? 말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말띠 딸을 낳아야지만 그만큼 앞으로 크게 사회 활동을 잘할 것입니다. 말띠가 나쁘다는 것은 일본의 미신입니다.

출산율을 높일 책임은 저에게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말해도 안 됩니다. 신부님, 목사님, 스님의 설교 시에도 아이 많이 낳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성탄절에도 아이 많이 낳으라고 설법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안 먹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은 표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절에 세뱃돈을 준비해 가도 세뱃돈 줄 아이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내수가 점점 안 됩니다. 집을 사지 않습니다.

경기도 주택단지만 106개고, 동탄 신도시만 해도 800만 평이 넘습니다. 지금처럼 애를 안 낳는데 누가 신도시로 가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도심으로 몰립니다. 그나마 서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신도시는 위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신도시로 나가다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갈수록 도심으로 몰립니다.

이것을 뚫어 보려고 하는 게 GTX입니다. GTX가 생기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동탄 신도시로 오겠지만, 동탄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걸려서 삼성역 가라고 하면 안 올 것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을 하는데, 철도가 왜 파업을 합니까. 정부는 수서에서 호남선 KTX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의 자회사로 만들어 독점에서 벗어나 경쟁 체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노동법에서도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파업의 명분은 해고를 하지 말고 봉급을 올려 달라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노선에 별도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 파업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했는데도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비판해야 합니다. 요즘 경찰이 정보가 없습니다. 전부 너무 간섭을 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5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한 명도 못 잡은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만약 간첩이 이북에서 내려오는데 1만 명의 경찰력이 동원돼도 한 명도 못 잡았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공권력은 한번 동원되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존엄성이 없습니다. 이게 튼튼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군, 경찰, 검찰, 정보기관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경기도에는 이석기부터, 통진당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놀고 있는,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정확하게 사전에 알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공안 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상임금법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월급이 5% 내지 10% 올라가는데, 이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 지금 대기업의 상호투자를 금지합니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절반 있습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에 가면 염색·도금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냄새 난다고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중소기업은 좋지만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신세계, 롯데, 이마트, 프리미엄아울렛에 서로 가서 일하고 구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시장 가서 창업하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옆에 큰 대형마트를 만들어서 업종을 분화한다면 괜찮습니다. 서로 두 개가 보완점으로 상생해야 둘 다 잘될 수 있습니다. 그 주변 도시가 안 되면 큰 대형점포를 만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게 해서 전통시장에도 가게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대기업을 막으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잘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회사의 투자를 막으면 전부 국내 투자를 안 하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봉급이 올라갈수록 인원은 줄이고 기계를 들입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집값이 더 떨어져 망합니다. 그린벨트를 이미 푼 데는 보금자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공장 용지로 값싸게 줘야 합니다. 아이들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특별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을 잡는 경제민주화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을 도우려면 대기업이 잘돼야 합니다. 정책 자체를 경제 살리기로 바꾸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을 전 세계가 보고 배우려 합니다. 남미의 이 베로아메리카 23개 연합의 사무총장이 저에게 와서 자기 나라에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왕복 72시간이라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남미로 오라고 하느냐 물으니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자신이 어렸을 때 한국인들이 농업 이민을 오곤 했다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 불쌍했던 나라였는데, 지금 컴퓨터 입찰을 하는데 전부 한국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 LG 제품들이 전부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자국에 굴러다니는 차도 현대기아차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매우 못살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살게 됐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험벗고 가난한 나라, 남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나라, 배고픈 나라,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아무리 깊이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오직 사람만 사는 이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인류 사회에 위대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사무총장은 원래 잘사는 강대국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이룬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피와 땀과 눈물로 절약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이룬 코리아의 기적은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지켜 주신 재향군인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4년 1월 2일 부천상공회의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성만 회장님 외 부천상공회의소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새해 대박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오늘 특별히 새누리당 출신의 정병국 의원님과 원유철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부천을 특별히 많이 생각해 주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부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대곡~소사 철도를 비롯해 GTX 예산을 200억 이상 증액 확보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의 지역구 일을 열심히 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가적으로 여야가 화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야 의원님들이 다 오시고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지사를 8년째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천을 다녀 보면 가장 좋은 점이, 접근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오기가 좋습니다.

땅이 넓은 정병국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여주, 양평, 가평으로 경기도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주, 양평, 가평이 각각 부천시의 최하 12배가 넘습니다. 팔당 지역이라 규제가 많고 기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천은 규제도 없고 접근성이 좋아 교통비도 별로 안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기를 안 낳는 문제가 큽니다. 재작년 출산율은 흑룡띠로 1.2인데, 작년은 뱀띠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말띠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비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천은 걱정이 없습니다. 부천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교통이 좋아 인구는 별로 안 줄 것입니다. 이제는 땅이 넓어서 경쟁력을 가진 시대는 갔습니다. 좋은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부천시가 김만수 시장님의 리더십 하에 경쟁

력을 잘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은 훌륭한 인재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천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젊은 기상으로 크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저도 도지사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4년 1월 2일 수원 캐슬호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 수도가 수원이니 많은 주요 기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모두 여러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작년에 기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다 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경제 침체가 심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보다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낮습니다. 말은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시원스러운 정책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지방까지 모두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역시 경제는 서민 경제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젊은이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인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를 만드십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신 여러분, 전 세계가 놀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경제를 살려 주시고 많은 일자리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

## KBS 광주방송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특강

---

일시 2014년 1월 13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전남 광주에서 최고위과정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에 기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광주, 전남 지역과 인연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교도소에서 살 때 목포교도소에서 1년 이상, 광주교도소에서 1년 이상 살았습니다. 마침 저를 이리로 보낸 이유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야 하는 교정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향은 경북 영천이지만 전라도 쪽에 보내면 사람들이 많이 못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 처가는 전라도 순천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전라남도 중에서 여

수, 순천, 광양으로 1년에 두 번은 집안일로 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집사람으로부터, 여기 오는 데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하고 오라는 말을 받고 왔습니다. 장인은 교장이셨는데, 그 제자가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은 광주, 전남 친구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장도 순천 출신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은 경기도 간부들도 많습니다. 저는 일절 지역 차별 인사는 안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출신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저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부정·비리 등으로 선거 출마를 해서 부정 출마를 한 사람들을 향해 저와 동료들은 시위를 했고, 계엄이 한창이었던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청학련으로 유신시대에 제적을 또 당했습니다.

제적당한 후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공장 생활만 7년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을 했고, 같은 지역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집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에 프러포즈했을 때 집사람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도소에 갔다 나왔습니다.

그 후 5·18 광주학생운동 때 저희들도 노조에서 다 잘렸고 제가 삼청 교육대상자가 됐습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친구 집에 숨어 있으면 그다음 날 아침에 친구 와이프는 잠을 못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누구를 숨겨 주면 범죄(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부인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만 자면 이들은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어느 날, 집사람이 당시 동생들과 마포에서 조그마한 빵집을 했던 게 마침 생각이 나서 그리로 갔습니다. 사정이 있으니 숨겨 줄 수 있느냐 하니 집사람이 승낙을 했고, 빵집 다락방에 저를 숨겨 줬습니다. 제가 몇 달 간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계엄이 풀린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돈도 집도 직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몸뚱이 하나 가지고 봉천동 산꼭대기에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집사람은 공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계속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이를 낳고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아내와 잘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두 번 제적당하고, 공장에서 두 번 해고당하고, 교도소에 두 번 갔다 오다 보니 대학 졸업을 24년 6개월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민청학련 수배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제 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44살 때까지 반정부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 민중당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요즘 말로 진보정의당 같은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산됐습니다. 해산 후, 구로공단 오거리에는

노동인권위원회 권인숙 소장님이 유학을 가니 저에게 그 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함께 일해 보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부천 소사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3등 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토박이였던, 지역 유지였던 박규식 의원과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의원 등 쟁쟁한 인물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잘것없어서 모든 여론 조사, 언론 기관, 동네 사람들까지 저보고 '3등, 열세'라고 하더라고요. 발표만 나면 무조건 저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올라가더니 역전을 했습니다. 저는 불자동차 소리가 나면 바로 나가서 다친 사람 없는지 살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인데, 지하 단칸 셋방에 물이 차면 즉시 달려가서 괜찮은지, 도울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이 통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그 지역의 상습 침수 지역을 다 고쳤습니다.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해서 침수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연속 두 번 당선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당 대표가 '정치는 고향에서 하는 게 재미있는 거야. 고향에 공천을 줄 테니 고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하니 집사람이 '부천 지역 주민들의 은혜를 갚아 줄 생각은 안 하

고 더 좋은 데를 찾아갈 생각을 하나, 그래서 어떻게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의 제의를 사양하고 계속 열심히 뛰었습니다.

재선 때는 당시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굉장히 실세였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를 하기 몇 달 전에 박지원 장관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 빼고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를 합쳐서 최고 수치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비교적 쉽게 당선됐습니다. 제가 두 번 당선되니 일종의 신화가 됐습니다. '김문수는 돈은 없고,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매우 열심히 일 하더라' 하고요.

세 번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했습니다. 당시에 도 경상도 역량이 썩습니다. 저는 표준말을 구사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에게 나가니 사람들이 경상도 말부터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표준말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두 번, 재임까지 했습니다.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 제가 최장수입니다. 저는 단체장을 두 번 하고 있는데 세 번을 하는 것은 조금 길게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경기도지사 3선을 안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 조사를 하면 제가 제일 많은 지지를 얻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단체장이 경기도 저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서울도 인천도 어려운데, 당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저더러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체장은 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를 오래하니,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경기지사가 열심히 하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유치할 공장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경북에서도 LG가 파주에 온 것에 대해 '자네는 경기도지사인데 경상도에 있는 공장 다 뺏어 가면 되겠나,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를 더 하면 수도권은 안 그래도 잘사는데 지방들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한 수준입니다. '저 사람이 잘돼야 나도 잘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되는 것은 내 것을 빼어가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를, 냉정히 말하면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2할 자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80%, 즉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언론이 80%의 권한을 갖고 시장, 군수, 지방언론은 20%의 권한으로 2할 자치입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4할 자치입니다. 미국은 6할 정도입니다. 주지사 와 시장은 절반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 방위군, 주 경찰, 주 검찰, 주립대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방에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도 우리는 100% 중앙 권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 변화는 지방 자체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지방의 조례만으로는 지방의 세율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방의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그린벨트를 다 풀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에 산지법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 광주 주변의 그린벨트를 전남 광주에서는 풀 수 없고 중앙에 가야 하는 시스템이니, 힘이 계속 중앙에 쏠리는 현상이 유지됩니다.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내란, 형사상 문제 정도는 중앙이 갖고 나머지 국민의 소소한 생활 관련된 부분, 도시계획, 토지 이용, 교육 분야는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주의적입니다. 지방에 권한과 돈을 더 줘서 2할 자치를 4할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한민국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일과, 둘째 선진 강국입니다.

어릴 때 제가 생각한 꿈은 쌀밥 한번 원 없이 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밥을 제대로 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정말 제가 다이어트를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미 그 꿈을 이뤘습니다. 명절에는 새 양말 한 켤레만 신어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말이 오십 켤레 이상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골라서 신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꿈은 다 이뤘습니다.

다만 통일이라는 꿈을 아직 못 이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등 갈등이 심합니다.

저는 비교적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남북이 분단돼 있는데, 개성은 원래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라져서 휴전선 위에 있습니다. DMZ가 전부 경기도에 지나갑니다. 615개 군부대, 육군 비행장 31개, 공군비행장 3개, 해군 2함대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미군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력의 7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대박이 날 곳이 경기도라고. 통일이 되면 군부대가 거기 있을 필요 없이 압록강, 두만강 위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한 도시, 경기도 전 면적의 22% 이상이 군사시설입니다. 경인선, 경원선 등 철도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도로, 철도가 가장 잘 안 된 곳이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제가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경기도가) 독일의 바이에른 주와 자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분단돼야 할 마땅히 나쁜 나라입니다. 유테인을 학살하고 1·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에 가면서 느낀 점은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 죄값으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독일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범 국가도 패전 국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다만 힘이 없어서 식민지를 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눠졌습니다.

독일은 24년 전에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24년이 지났는데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국제 사회, UN·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완전히 섬나라가 됐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륙성을 회복해서 북경, 유럽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연결하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4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연해주는 자매관계에 있는데, 연해주 땅 규모와 자원은 어마어마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곳의 가스를 쉽게 끌어올 수 있고 지금보다 30% 이상 싸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인데 통일이 돼 북한과 합치면

8,000만이 되고, 만주·시베리아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일자리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좁은 섬나라와 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회복시켜 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일본·태평양 일대의 기운, 위로는 중국·시베리아의 기운을 받는 접점이 바로 한반도로 명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올해는 말띠 해인데, 딸이 말띠면 팔자가 세다고 해서 저출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말띠 여자가 팔자가 세다는 말은 일본에서부터 전래된 미신입니다. 조선시대 왕비 44명 중 원숭이띠가 6명으로 가장 많고, 말띠가 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용띠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말띠를 매우 선호했습니다. 말고기, 말가죽, 말기름 등 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동물입니다. 특히 말띠 딸을 낳으면 왕비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출산율이 낮은데 이런 미신이 끼어서 문제입니다.

경기도도 가구의 25%가 1인 가구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였고 이제는 1인 가구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설날에 세뱃돈을 준비해 가면 줄 아이가 없습니다. 어른이 20명이 앉아 있으면 아이는 5명이 안 됩니다. 제가 시집, 장가들 가라고 하면 집사람은 표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집·장가 안 가고 자살률 높고, 이혼율 높으면

과연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사람과 결혼을 안 했으면 제가 도지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또 된다 한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업무를 마치고 가면 진돗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 준다고 하는데, 사람이 반겨 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돈이 좀 없고 집이 좀 작더라도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것, 집에 사람 사는 정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집 안에 좋은 가전제품이 많고 집에 가면 클래식을 듣는다 해도, 베토벤 열 번 듣는 것보다 저는 손자들 울음소리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를 안 낳으니 집이 안 팔려 주택 경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수는 건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혼을 안 하니 원룸 외에는 집이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 사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 줘야 합니다.

주식보다는 소규모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서민들에게 안전합니다. 주택 경기가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삽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동차,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도 아기를 잘 낳고, 잘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건 잘 만드는 것보다 사람 잘 만드는 게 최고 아닙니까?

경기도에는 세계 32개국의 기업이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국 기업으로 판교의 파스퇴르 연구소, GE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한국인이 머리가 가장 좋고, 손재주 좋고, 팀워크도 좋고, 근면성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년 걸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 몇 개월 만에 똑딱 해결하는 나라가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세계 파스퇴르 연구소 중에서 한국 파스퇴르가 가장 임무를 잘 수행해 내는 훌륭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봉급이 싸지도 않아고 임금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진 우수한 지적 수준과 열정이라는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기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인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병원 사업은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집도 사고 소비도 살고, 내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더 아기를 안 낳습니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요즘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895년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때는 청나라가 어마어마한 대국이었는데, 청일 전쟁에서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115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중국이 경제, 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 앞섭니다. 일본인들은 완전히 위기의식이 큼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공산당, 사회당, 민주당, 야당, 자민당 간의 파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지고 오직 아베 하나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단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2위, 노사관계 복잡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좋다는 정당과 의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합의가 안 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당한 23개의 나라가 모여 만든 이베로아메리카라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무총장이 저를 해마다 찾아와 자기 나라에 방문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왕복 72시간 걸려서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국에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나 중국, 스페인은 원래 잘사는 나라라 배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코리안들이 농업 이민을 왔는데, 사는 것을 보니 너무 가여울 정도로 못사는 모습을 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무총장이 돼서 컴퓨터 입찰을 하는데 전부 삼성, LG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보니 길에 굴러다니는 차도 한국산인 현대기아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서 보니,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잘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못살아서 농업 이민을 왔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살게 됐는지 그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중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는 원래 남을 지배하는 강국이라 배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민지를 겪고, 해방되자마자 전쟁이 나고, 아무리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배고파서 농업 이민을 왔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전 세계에서 절망하는 배고픈 나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전 세계의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야 할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 KBS 정치커뮤니케이션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해 봅시다.

##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일시 2014년 1월 15일 서울 팔래스호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각종 이념적 스펙트럼을 겪어 본 사람입니다. 대학을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하여 무기정학을 당했고, 대학에서 두 번 제적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골 선비 집에서 태어나 옳지 않은 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배웠습니다.

집안에 14대 동안 제사를 모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임진왜란 때 순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쟁에서 특별히 이긴 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선비셨지만, 전쟁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개와 절개, 나라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영남지방에서 같이 돌아가신 순국 의사들의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왜놈 냄새가 나는 것은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이 잘못됐다고 나와서, 저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으로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청계천의 염색·도금 공장 등 공장 생활만 7년을 했고, 한일도루코라는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두 번 해고되고 또 두 번 구속되는 과정에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사람은 전남 순천 출신인데, 구로공단에 있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을 때 같은 지역 노조위원장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 5·17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에서는 왜 하필 전라도 여자냐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삼청교육 대상자로 쫓겨 다녔는데, 친구들 집에 숨어 지내면 하룻밤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사람이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틀 이상을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친구들 집에 떠돌아다니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집사람이 동생들과 운영하는 빵집이었습니다. 집사람은 계엄이 풀릴 때까지 저를 빵집

다락방에 숨겨 뒀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풀린 후 우리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고 보살펴 준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제 은인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으로는, 아내가 없었다면 도지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도지사를 한들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습니다. 제 삶의 절반 이상의 기쁨이 집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제가 명절 때 세뱃돈을 준비해 가면 줄 아이가 없습니다. 어른이 20명 모이면 아이는 5명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집·장가 안 간 아이들이 많아서 결혼하라고 하면, 집사람은 표 떨어지는 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낙이 남녀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쫓기고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봉천동 산꼭대기 월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 딸아이 손이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집사람은 '꼰대 소리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은 자유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결혼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 이혼율은 세계 2위,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작년은 흑룡띠로 출산율 1.2에서, 작년은 뱀띠라 1.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말띠라 해서 아이를 더 안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성직자들을 만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설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만 해도 안 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올해는 말띠 해인데, 여자가 말띠면 팔자가 세다는 이야기는 일본으로부터 전래된 잘못된 미신입니다. 조선시대 왕비 44명 중 6명은 원숭이띠, 5명은 말띠, 그리고 지금 선호하는 용띠는 고작 1명밖에 안 됩니다.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 여성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말띠 딸은 왕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도피, 수감 생활을 많이 했는데 교도소에서 나와서 아내에게 아이 하나 더 낳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키울 자신 있나'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기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못 돼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같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 두 명이 만나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남자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가장 기본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아파트·스펙 위주로 결혼하면 과연 인간이 행복할까요. 딸아이는 지금 결혼했고, 아기 낳고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아이 낳고 잘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고령화가 빠르고 저출산이 심합니다. 저는 내일도 일본에 투자 유치를 하러 갑니다. 다만 일본 투자 자꾸

액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마(多摩) 신도시에 가서 부동산 건축 산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깔보는 경향이 많은데, 일본은 장기 침체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거대한 청나라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청일 전쟁 120년 만에 다시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아베밖에 없다는 일념 하에 더욱 응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산당, 사회당, 민주당 등 자민당 이외의 정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자민당 아베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국가적 위기를 단결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핵심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우리처럼 경제민주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적 완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베가 직접 지휘하는, 규제 혁파를 위한 경제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지휘하고 그 밑에 장관, 지방 기업과 민간, 이렇게 3자 통합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윈스톱으로 이야기를 듣고, 바로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1년 지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임 후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은 다 잡혀갔고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버티기

힘듭니다. 경기도 도시공사에도 천억 이상을 세무조사로 때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건축경기가 어려운데 세무조사까지 때리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한 이유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엄선된 세원을 찾아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결국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세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도 10개월 이상 세무조사를 계속하는데 그동안 투자를 안 했습니다. 화성 130만 평에 동양 최대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를 하기로 돼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CJ는 한류월드 아레나에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재현 회장도 잡혀가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잡혀간 판에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기도에는 18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몇억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인근 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동원하여 창업을 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3년 이상을 해 봤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젊은이들은 전통시장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경향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해도 카페나 마트, 백화점 같은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전통시장 옆에 오히려 대형마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가 되면서 마트나 백화점에 왔던 손님이 한복을 맞추러, 떡을 맞추러 가게 됩니다. 일단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람을 끄는 힘은 전통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주, 이천, 파주 같은 곳은 매우 오지입니다. 팔당 상수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최대의 쇼핑몰이 들어섰고, 관광객들이 그 구석까지 쇼핑하러 대거 옵니다. 서로 상생해야 둘 다 삽니다.

여주 아울렛에는 여주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기왕에 전통시장 품목을 몇 개 넣으라고도 했습니다. 또 거기 들어가는 기업은 기존 상가에서 점포를 철수하지 말고 두 개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통시장도 살고 대형마트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기업이 세계로 나가야만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편승해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며 같이 손을 잡고 세계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는 동경 시내 안에 있습니다. 과거 동경 중부에 너무 많은 주거가 몰려서 외곽에 다마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리모델링 중입니다. 노인이 많고 출산율이 낮아서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낮고, 고령화는 더 빠릅니다. 저는 집사람과 노후에 누가 우리를 돌봐 주고 소비를 어떻게 할지 걱정합니다. 노령화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의 핵심은, 과거에는 신도시가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으니 서민들은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주택을 지어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자체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니 다시 서울로 도심 회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외곽 신도시가 공동화 되면서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교통과 의료, 쇼핑이 편리한 서울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도시계획을 과거의 주택 위주의 신도시로부터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제야 제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융·복합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단지, 아파트가 다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일자리와 잠자리, 병원과 문화 시설이 융합해서 가장 가깝게 생활이 편리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디자인 따로 건설 따로 운영하는 '따로'가 아닙니다. 일본은 다 합칩니다. 처음부터 빌딩을 이용할 사람이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융합적인 설계, 건설, 관리 운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모든 정책이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나고 도시로 자동으로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구 추세, 저출산 고령화에 맞게 다 고쳐야 합니다.

창조경영이라 하는데, 누가 창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플랜이 현장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도지사를 8년 하면서 느낀 게, 말로 되는 게 도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주와 경기도는 자매관계에 있습니다. 독일은 1·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이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끔찍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입니다. 진주만을 습격해서 미군 2,500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켰습니다. 독일은 췌값으로 승전한 나라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우리가 분단됐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뉘는 이유 없이 나뉘었습니다. 전쟁과 식민지 제국주의의 역사적 췌값을 힘없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죄 많은 독일도 24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외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세계사적인 필연이지만, 상당히 늦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도로, 교통, 철도율이 현재 가장 꼴찌입니다. 경기도에는 육·해·공군, 미군 등 전력의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은 철조망으로 국토, 바다가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변화한 도로가 북경으로 가는 도로이고 그곳이 대동맥이었습니다. 경부선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의선 등은 대박이 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면 그쪽에 투자하세요. 통일이 대박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DMZ 근처에 투자를 하시면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체로 경기도 평야 지대로 가장 좋은 땅입니다. 6년근 인삼, 장단 콩 등이 가장 우수합니다. 땅도 좋고, 경관도 수려합니다. 역사 문화재도 많고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앞으로 연해주로부터 가스를 끌고 오기 쉽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무궁무진한 대륙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양으로 물리지만, 대륙성이 회복되면 시베리아·만주·중국·몽골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바다, 남해로 휴가를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통일은 지금처럼 침체하고 사랑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물질 만능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대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배가 고파서 남미까지 농업 이민을 갔던 나라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기우회

일시 2014년 1월 24일 중기센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경제를 살리자 해서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규제 철폐 등 좋은 화두로 새해를 열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통령 취임 준비 내내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부동산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경제 민주화 논란 등으로 일 진척이 잘 안 났습니다.

작년 한 해 저는 절대 빚을 내지 않겠다, 빚을 내면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해서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수당도 깎았고, 작년에 4천억 원의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 좋은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청 청사를 새로 짓자 하는데, 공무원도 짓자, 주민도 짓자 하더라고요. 저는 관공서, 청사 새로 짓는 것은 무조건 '올 스톱'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청사를 짓지 못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청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급식비까지 깎으면서 도청부터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부터 많은 것을 새로 짓자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세수의 53%가 취득세입니다. 세수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부동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속 정책으로 노력을 한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면에서 호전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작년 이러한 와중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수원시에 내는 세금이 1천 5백억입니다. 좋은 기업 하나가 이익을 남겨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국방 안보를 하려면, 복지를 하려면 기업이 잘돼서 세금이 잘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좋은 재정에 좋은 복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키워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기업 혼자 덕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문화,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모든 시민이 함께 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대박'이라 했는데, 진짜 대박은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경원선, 경의선, 만주로 가는 철도, 고속도로가 모두 경기 북부를 지납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의 도로, 철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예부터 경부선보다 경의선, 신의주 가는 길이 우리 한반도의 최고의 도로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자동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도로, 철도 부분에서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한반도의 융성을 위한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월 월례조회

일시 2014년 2월 3일 북부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AI 방역에 애써 주신 축산 관계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경기도 의정부 북부청을 방문해, 축산산림국 국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황우여 대표에게 AI 방역에 대한 확진 판결을 중앙의 검역원만 하고 있는 것을 고단위 지방에서도 확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께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번 구제역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확정 판결은 안양의 중앙검역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료를 채취해 갖고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기도 외 전국에서 다 안양의 중앙검역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고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구제역은 고쳐서 경기도에서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는 진단·연구 시설을 작년엔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AI는 아직까지도 전국 딱 한군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상교 국장은 수의사 출신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서상교 축산산림국 국장

재난으로 따져서는 크게 구제역과 AI가 있습니다. 구제역은 (권한) 지방 이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시설과 인력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검증을 거쳐서 구제역 연구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AI는 별개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반적 검사를 하지만, 고병원성으로 나오면 우리가 만지지를 못합니다. 검사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검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각 지역에서 밀려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도 마냥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AI를 지방에서도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님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이 분야의 문외한입니다. 사람에 관한 전염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전염병은 보건소에서든 진료하고 종합병원에서도 진료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정은 중앙검역원 한군데에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 돼지, 닭 등의 동물은 더 쉽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구제역 (권한 지방 이양을) 할 때 왜 AI는 하지 않았습니까.

### 서상교 축산산림국 국장

중앙에서는 (지방 주도의) 검사를 꺼리고 있습니다. 통제와 전파 방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AI는 그때 아마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 지사님

중앙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AI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닭, 오리 많이 키우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가 경기도에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지난번 구제역 때 당연히 AI도 해 줘야 하는데 권한을 안 줍니다. 그때 공문서를 여러 번 보내서 노력했으나 안 됐습니다.

시설을 한군데에서만 하면 이런 위기 상황, 한꺼번에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양계를 하는 사람과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속도와 전파의 방역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해야 함이 전염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단위 검사로 진단을 하거나 확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쉽고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신속히 대처를 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권한을 중앙은 안 내줍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위에서는 절대 안 고칩니다.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은 모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고쳐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신속히 현장에 바로 투입돼 판단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제역이 한번 퍼지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빨리 막기 위해서는 수의과학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는 여러 가지 면역 검사 체계를 모든 생화학자와 일반 의사들에게 공개해서, 누구든지 구제역을 잘 막는 백신을 개발하거나 확진 판결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발명할 수 있도록 현상금을 걸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 AI 백신 확진 판결을 잘하는 사람은 상금 100억 원을 주자고 해도 피해로 인한 손실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칸막이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과학적인 발명은 꼭 박사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공무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권한 때문에 인류의 진보를 막고 있습니다. 과학 발명, 진보를 가로막는 권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중앙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독점적 지위로 인해 많은 국민과 인류가 피

해를 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중앙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분명한 정신이 중요합니다. 중앙의 눈치를 보고 중앙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공무원의 정신이 아니라, 국민에 신속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신입니다. 공무원의 'Public Service Mind'가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AI, 구제역 있을 때 백신 확진 판결을 하는 것도 다 서비스입니다. 그런 공적 서비스를 국민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요즘 국민정신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저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에 대해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베의 정신세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주변이 우리나라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곳에 바로 '정한론(征韓論)', 한국을 정복해야만 아시아의 공영 평화가 온다는 생각이 그 지역에 뿌리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스물아홉 살에 요절한 쇼인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 사

람은 신으로 숭배 받고 있습니다. 아베가 늘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 쇼인의 제자는 이등박문, 야마구치 출신들입니다. 그들 중에 수상이 8명 있습니다. 이등박문이 수상을 네 번 했습니다. 가쓰라, 사토, 에사코 등 많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들이 다 야마구치 출신입니다.

시모노세키는 일본의 외곽이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대륙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징검다리를 항상 한국으로 생각하는 정한론의 정신이 짙 차 있습니다. 그 화신이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등박문부터 아베까지 내려오는데, 그 정신 세계를 그 사람들이 짙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일본은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는데 핵심이 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신세계는 신사 참배가 불교 숭배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신이 많습니다. 쇼인도 신으로 숭배되고 왕도 신이고 나무, 바람 등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은 조상도 신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와 국민들이 하나가 됩니다. 단순한 물질 중시가 아니라 정신세계가 단결돼 있습니다.

일본의 특공대가 미군 함정에 부딪쳐 죽을 때, 죽으면서도 '천황 폐하 만세'라 부르며 죽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며 죽습니다. 자기도 죽으면 신의 세계로 살아서 영생한다는 새로운 위대한 삶의 출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 정신을 이해 못하

고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내도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본의 해군, 공군력은 중국보다 더 셉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일본의 침략을 방어해야 합니다.

일본은 쇼인이나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며,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공부도 안합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우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책을 만들었는데도 안 봅니다. 공짜로 줘도 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신도, 혼도 빠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 혼이 있습니다. 아베는 혼이 있습니다. 일본을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분명한 혼의 정신이 있는데 그게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복하는 게 좋다는 뿌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베 위의 야마구치, 쇼인이라는 젊은 명치유신의 정한론을 확립한 스승들의 정신이 다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는 뭐가요.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정신이 없으면 세금이라도 더 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확실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군력, 정신도 약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임진왜란 식민지를 겪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혼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도 안중근 의사에게 총 맞아 죽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이등박문 절을 만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었지만, 단순히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일본은 아직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에 가면 그 사람을 모시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현에 가면 그 신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신으로 모시고 있고 일본인들이 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지금 교회에 가면 '하느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남북 간 통일이 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봉사하는 좋은 국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절에 가도 그런 기도를 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가 일본보다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분단되고 식민지를 다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이런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가르칠지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약해져 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미군으로 약한 군사력을 보충하고, 중국이 쳐들어와도 한미동맹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본과 한국이 붙으면 미국이 누구를 돕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이상으로 일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일본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붙으면 과연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입니까.

그런데 언론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외교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 정신. 대한민국을 어떤 정신으로 지킬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혼, 우리나라를 어떤 혼으로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중북파도 있고,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치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국가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난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정신, 위대한 나라 사랑의 정신, 주인 의식,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지킬 사람은 공직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역경 속에, 식민지까지 겪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미국과 우리의 관계, 중국과 일본의 관계 등 외교 관계도 공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백 년 만에 최고의 급변기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고한 국가 정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가 정신, 마지막까지 공(公)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정신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道 -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일시 2014년 2월 10일 국회

### < 인사 말씀 >

새해 첫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눈도 오는데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재정 위기 상황에 봉착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 확보를 1조 가까이 하여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야 힘을 합쳐 경기도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도를 운영해 보니 재정이 중요함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특히 도 재정이 작년에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지방재정 상태는 과거에 비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국비 확보에 대

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법률 중 지방소비세율을 원래의 5%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6%로 인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소비세율이 올라갔고 취득세율도 경기도가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비세 인상은 경기도에도 도움이 많았고 좋은, 행정적인 세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여러 가지 법안이 정리가 돼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는 취득세 감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이 가장 악영향이 됐습니다. 작년은 정부는 미리 발표했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돼서 모든 거래가 대기 상태로 정지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법 및 수직증축법을 정리해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신속한 정리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경제 행위를 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련 입법에 신속한 정리를 해 주세요.

올해도 지방소비세율에 관해 5%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담배 일부 소방세원화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확대, 소방은 국고가 2%가 안 되고 98%가 도비로 부담하고 있는 매우 잘못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지방법인세를 공동 세

원화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난 연말 예산 확보로 지원했지만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 신속하게 도와주세요.

그 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 특히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는 가장 심한 16종 규제입니다.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습니다. 군사 규제, 그린벨트 규제는 세계 유일한 규제로 최악입니다. 수도권 내 팔당 상수원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과천 청사를 (세종시로) 다 옮겼는데, 약속된 그린벨트 정비발전 해제 부분은 이미 약속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차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국비 확보와 각종 입법 활동을 통해 경기도를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마무리 말씀 >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결례를 보인 점 죄송합니다. 경기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선 도지사로 일했는데 일하는 동안 사심 없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초당적인 경기도지사로서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지역에 편중되거나 당에 편중되는 등 사적 이해를 우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가 가까워져 요즘 선거법이 어려운데, 자칫하면 훌륭하게 선전한 후에도 불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진짜 경기도가 최하위가 되었다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분명히 작년 재정 위기를, 최초 감액 추경 (실시하고), 공무원 봉급을 깎으면서 부채를 한 푼도 더 내지 않으면서 재정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현실과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끼친 데 죄송합니다. 국회 의원께서 국가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경기도를 도와주셔서 경기도민의 삶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규제도 지난 30여 년 이상 민주화되기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경기도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팔당 북부 지역은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국정을 맡으셔서 경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애정을 갖고 애써 주세요. 저도 계속 경기도 발전을 위해 초당적 발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이 복잡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이 부분 도와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일시 2014년 2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또 선거를 누가 치릅니까. 지방 주민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치룹니다. 모든 것을 중앙이 정합니다. 지방 의제 자체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여론을 조사하면 50% 이상이 교통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로 가는 버스가 가장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주변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로 가는 교통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문제로는 20% 이하가 교육이고, 그것은 국가 공통의 과제입니다.

여론 조사의 50% 이상이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데, 교

통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와 당선되는 자치단체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통에 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려고 마음먹으면서 교통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GTX,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를 많이 해서 약간의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GTX는 도민들의 희망, 그리고 교통 전문가들, 철도학회·도시공학회·토목학회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으로 착안했고 제가 주창했습니다. GTX는 광역으로 지하에 40m 이하로 파서 고속철로 가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가 재정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GTX를 하려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이 승인을 안 합니다. 자기 땅까지 지하로 땅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계획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국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지방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수도권만 해 주냐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GTX는 워낙 타당성이 있기 때문인데, A노선인 동탄~삼성~킨텍스 구간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할 힘이 없고, 중앙은 하려고 해도 균형발전 때문에 안 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 문제가 우리처럼 현안이 되고 출자하겠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라도에 섬이 2천 개 이상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 환경위원을 6년 이상 했지만, 섬의 상당 부분은 국립해상공원으로 해 났기에 사실 국립공원은 거의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뭇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 수천 개를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남은 섬은 많고 인구는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전남지사를 만나면 이야기하기를, 섬에 별장도 짓고, 마리나 시설도 하고, 요트도 탈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가 보면 섬 주민 민원의 1번은 '배 좀 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배를 못 대는 섬이니 더욱 무인도화 되거나, 전통적인 어선 외에는 접안(接岸)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비행장이 있거나 버스나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사람이 오고 돈이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압니다. 몇천 개의 섬이 있지만 쳐다보는 섬이지,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활용이 안 됩니다.

경기도도 30개 넘는 섬이 있는데 6개가 섬이고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 농업 땅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합니다. 이제 농지는 남고 농민은 없습니다. 노인 외에는 농민이 없습니다. 젊은 영농후계자가 농촌에 안 오는 게 농업의 1번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농지를 보전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장관까지 가서 섬의위원회 도장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농업 부분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농지가 없어진다면?

경기도는 선인장 수출에서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선인장 수출의 70% 이상을 경기도가 합니다. 카타르에 버티컬 팜을 수출하러 그 나라의 농업기구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기도에 사막이 몇 평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온실 위에서 수경재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은 과학입니다. 우리는 신개념의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좋지만 품질도 최고입니다.

화성에 매립지가 있는데 농사지를 사람이 없습니다. 화성의 동부팜 화옹에서 일본 수출용으로 토마토를 농사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농업단체에서 와서 이 공장을 가동 못하게 전부 들고 일어섰고, 거기에 농협도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가서 보니, 비닐하우스의 유리 온실 안에서 키우는 토마토는 최고 좋은 1등급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농업이 노지에서 하듯 쳐다보고 태풍 막고 기다리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현장에서 느끼고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서는 모르고, 알더라도 자기 권한을 안 줍니다.

AI인지 아닌지는 간이검사로 (먼저) 알고, 그다음 확진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는 도에서 하고, 확진 판결은 안양의 중

양검역소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안양 한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국에 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AI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확진 판결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하루 늦어지는 동안 전파 속도는 빨라져 더 많은 닭들을 살처분 해야 합니다.

지난번 구제역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설을 갖춰 확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하나만 광역지방단체 중 시설 갖춘 곳에만 허용하더라고요. 결핵 진단도 동마다 있는데……. 경기도에는 의사만 120명이 넘습니다. 얼마든지 장비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중앙이 독점하고 내주지 않습니다. 규제에서 중앙이 갖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도 광주광역시 50%가 넘습니다. 부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린벨트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전부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산지 규제도 많은데, 거기다 그린벨트 규제를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수원 규제, 그린벨트 규제, 군사 규제, 문화재 규제 등이 경기도에 많은데 상수원, 그린벨트 규제는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문화재 규제도, 제가 도지사 돼 보니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이런 중복 규제, 비합리적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규제를 중앙이 독점해서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서민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과감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83%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 공급 과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에 제1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과천은 미래창조과학 연구단지로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써야지, 서민 임대주택으로 쓰는 것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세계 해서 막았습니다.

과천 땅은 그래도 90%가 그린벨트로 비었습니다. 그것 빼고도 하남, 광명, 시흥, 고양, 부천의 83% 보금자리주택이 다 (분양) 안 돼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있고), 나머지 민간 땅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이 안 되니 다 미분양입니다. 사람들은 보금자리주택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다 안 삽니다. 부동산 문제의 주범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러니 전세로 살더라도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집 문제, 도시계획 문제는 당연히 지방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 진행은 52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 직속입니다. 경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의도 있고 통보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협의권만 있었으면 좋은데,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보니 경기도는 특히 도시계획권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기에 없

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도권이라서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방을 발전시킬 계획권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제가 주장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필요시 국가가 하겠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상명하복입니다. 시민단체도 이런 것은 모르고 말해도 관심 없습니다.

도시계획, 각종 주택, 토지 이용 계획은 100%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수도권 규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다 해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단순히 지방 권한을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중앙 계획으로,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성남 철거민을 광주에 버려 광주 달동네가 생겼고 서울의 위성도시가 됐습니다. 그곳에 교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도시계획, 토지 이용, 주택 정책 부분에서 100%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기 자생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언론에 보면 동탄 2신도시가 8백만 평이 넘는데, 서울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저는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

자, 공장을 만들자 억지로 싸웠습니다. 그곳은 공장 부지로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가 과밀돼 과밀을 막고 지방 인구가 서울에 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한 것인데, 가장 인구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과잉 공급하며 국가가 짓습니다. 호텔 같은 일자리와 교육은 못 짓게 하고, 인구 유발 시설인 아파트는 짓게 하는 이런 모순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와 교육 자치를 분리시켜 놔습니다. 교육감 선거 따로 하고 도지사 선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는 학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갖는 생각은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있어서 높여야 하고, 맞벌이 엄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를 통합해야 합니다.

학교에 빈 교실이 많습니다. 그 빈 교실을 생후 2개월 이후 아기부터 받게 하면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공립이기에 거의 무상입니다. 학교가 책임지고 엄마가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엄마가 애 낳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하이닉스는 365일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새벽에 나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아이를 못 맡깁니다. 그래서 시·도비로 '아미 어린이집'을 만들어 어머니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시·도가 하면 안심하고 맡깁니다. 인기가 많아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왜 지방이 이런 걸 지어서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며 안 도와줍니다.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인다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교육과 행정 자치를 합쳐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 들어왔을 때 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학교 문밖에 나서면서부터가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학교 문밖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돌봐주는 곳이 다릅니다.

교육 이기주의가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선생님들만큼, 전교조만큼 잘되고 조직화·성역화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많고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 외에는 아동 납치, 유괴, 방과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제주도와 같은 경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 CCTV, 건널목에 줄 긋는 것 하나도 경찰과 우리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습니다. 학교 앞 건널목에 줄 긋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공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의원·군의원의 공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군구의원은 국회의원의 비서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비서입니다.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살여탈권을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똑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폐지는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합니다. 전국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당원이 당협위원장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투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제가 개발한 말은 국민공천입니다. 지금까지는 당 공천이었습니니다. 국회의원 공천으로부터 국민공천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소수의 한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합니다.

정치 개혁의 제일 중요한 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시장이 자기 최하급 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왜 단속 안 합니까. 제가 문자메시지, 이메일 보내려고 하면 이런 것은 다 간섭하면서 출판기념회 돈 봉투는 하나도 간섭 안 하더라고요.

당내 경선은 당내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해서 온갖 비리가 난무합니다. 당 내부로 과감하게 선관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와 정당을 고치는 게 지방자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도 점잖아서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반응이 없어서 저도 좀 열의가 식었습니다.

선거에 헌법이라도 한번 읽어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 기우회

---

일시 2014년 2월 28일 중소기업센터 1층 광고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에 경기도 60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와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올해는 600년 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600년 간 무엇을 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00년 전 태종 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 지금은 1,255만 명이 된 것입니다.

경기도를 전부 나눠야 하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매도시인 중국 광둥, 산둥, 요녕성을 가면 모두 인구 1억이 넘습니다. 잘게 나누는 것이 능사만이 아닙니다.

경기고법을 위해 변호사계, 법조계, 시민이 노력한 끝에 정식 법령만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GTX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원래 기재부에서 정식 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동탄~삼성~킨텍스의 A노선을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1.34로 나와서 우선 착공하고 있습니다. KTX와 노선을 공유하며 타당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머지 송도~청량리 노선, 의정부~금정 노선은 타당성이 1.0이 조금 안되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3개 노선 동시 (추진) 요구를 해서 기재부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GTX는 수도권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GTX를 빨리 해 달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B·C 노선은 수정한다는데 그대로 해 달라는 게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의 열의로, 반드시 빠지지 않고 계획된 모든 지역의 노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에 기재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치올림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화성시청 박승희 선수가 금메달 둘, 동메달 하나를 획득하고, 고양시청 조해리 선수가 금메달 하나를 획득했으며, 군포 출신 김연아 선수도 은메달 하나를 따는 등 훌륭한 연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경기도 소속 킬링 부분도 선전했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많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자본인데, 김포 아라뱃길 끝나는 지점에 호텔을 짓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최대 규모의 호텔이 될 것입니다. 각종 쇼핑, 레저, 의료 등의 메디텔 개념입니다. 약 700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추가 투자도 계획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국 투자를 잘 유치해야 하는데 이번에 잘 진행됐습니다.

상해 푸둥 공항 옆의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는데 118만 평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와 같은 평수입니다. 이곳은 땅을 40년간 임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디즈니랜드가 43%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는 회장이 디자인도 직접 관여할 정도로 미국 본사에서 매우 주력하는 곳입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과천 서울랜드에 디즈니랜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을 포기하고 상해로 간 것입니다.

상해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디즈니랜드로서 관광 도시로 부상할 것입니다. 스모그 등 환경 문제에 많이 부딪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이라는 막강한 인구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도 되지만 기회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 중국 인들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다고 난리였고 우리나라

에 대한 호감도도 최고조였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나빠져 중국은 열렬히 한국 드라마, 한국 상품,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조였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를 60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월 월례조회

일시 2014년 3월 3일 경기도청

우리 박해순 선생이 지금 (운영하는 고시원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민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32명한테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의료 중에서도 우리 도립병원이 있고 도립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분은 고쳐 준다, 이런 게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도 매일, 제가 그날 갔을 때는 한 150명 이상이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데 150명 중에서 '무한돌봄'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거의 10명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알더라도 대체로 무릎이 아프든지 팔

이 아프든지 이래서 일용잡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고치지 않느냐?' (물으면) '무료라고 하지만 내가 가면 고쳐 주겠냐?' 하며 가지 않습니다. 또 가더라도 온갖 욕먹고 대접 못 받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포기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특히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여기 오지를 않습니다. 악을 쓰는 사람은 오지만, 정말 어려워져 절망하는 사람은 도청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만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17일 경기도 정도(定道) 600년을 맞이했습니다. 600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남북이 분단된 것, 개성이나 개풍·장단·연천 이런 데가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크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1981년에 인천이 나누어진 것, 서울의 또 많은 그중의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이 돼서 경계가 많이 바뀐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심포지엄, 자료 정리, 발간,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오늘을 알기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한 번 새겨 보고, 600년의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GTX가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약 2년 4개월여 만에 발표됐습니다. GTX가 처음보다는, 지금은 A노선만 발표됐는데 B노선 송도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에서는 '자기들을 이번에 빼놓고 발표하면 안 된다, 반드시 같이 발표해 달라'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해서 발표가 조금 지연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나중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 안 하는 게 아니다, 동탄·삼성·일산까지의 A노선을 우선 추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정부까지는, 금정에서부터 삼성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은 삼성~의정부까지 KTX 노선을 공유하는 그런 노선으로 해서 의정부와 서울 노원구·도봉구·중랑구 이쪽을 걸쳐 가는 그런 C노선도 곧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GTX가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사실상 착공되고, 국가적으로 기재부까지 통과돼서 확정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빨리 나머지 A·B·C노선이 다 돼서 우리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광역적인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북경이나 상해, 동경에 비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2019년 3월에 개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돼야 될 일이 지각을 했습니다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재정 위기에서 탈출하는 여러 가지 좋은 청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부분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조금씩 완화가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봄기운이 조금씩 도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가 보니까 그 고시원에 대부분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건설 일용잡부들입니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하러) 갈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밥을 얻어먹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얻어먹는 밥 외에는 자기들이 하루에 나가면 그래도 한 8만 원, 7만 원 이상 버는데, (일거리가 없어) 못 나가기 때문에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나간 사람 또는 못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좀 있어야 이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단되고 난 다음에 가장 비참한 일이 가족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60년 이상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60년 이상 생이별을 하고, 바로 또 옆에 지척에 있는데 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북한 당국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설 면회장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강산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에 좋은 시설도 해 놓고, 이번에도 만났지만 경치도 좋고, 다들 그런 좋은 상설 면회장에서 매일

누구라도 원하시는 분은 상설로 면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북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도 좋지만 우선 혈육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면회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의 맥이, 온기가 흐르는 그런 남북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산도 적은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

일시 2014년 3월 18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에 오니 푸근합니다. 저는 객지에서 국회의원을 세 번, 도지사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구는 경기도 부천 소사였는데 그 지역에는 호남 출신이 30%, 충청도가 30%, 경상도는 10%, 나머지는 경기도 토박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을 나가니 사람들은 전부 '당신은 3등이야. 여기 뭐 하러 왔어'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민주자유당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새누리당에 들어 왔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1994년 3월 8일에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지역의 토박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고 재산 등록에서 국회의원 299명 중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씨가 왔습니다. 부천 소사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反정부 연설을 했는데 그 출발점이 부천 소사구였습니다. 호남의 텃밭이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를 너무 모르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선거 3일 전부터 뒤집어져서 제가 당선됐습니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이변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별로입니다. 그 지역의 토박이도 아니고 전라도 출신도 아니어서, 경상도 출신으로서 당선될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이 되니 다들 놀랐습니다.

그 지역은 비만 많이 오면 침수가 됐는데 단칸방이 젖어서 제가 나타나면 저에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계속 도왔습니다. 불이 나면 불자동차를 따라가서 다치신 데 없는지 도와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출마 시 '김문수는 다릅니다. 첫째,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둘째, 코빼기도 안 비추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저는 코빼기 비추겠습니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는 날 워낙 박빙이어서 밤 11시 넘어서야 개표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날 새벽에 부천역에 가서 어깨띠를 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어젯밤에 투표 안 끝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 인사 드리러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당대표가 저에게 '김 형, 정치는 고향에서 하는 거야. 왜 객지에 가서 고생하나. 대구나 고향 영천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지역구를 옮겨 주는데 대구나 경북 영천으로 옮겨 주겠다고 하더라' 그러자 집사람은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벌써 정치인 티를 내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최대 이번으로 당선됐는데 은혜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지역구를 옮길 생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사람은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부터 열심히 뛰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도중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떨어지고 난 후 당시 김대중 후보를 도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지역구 사람들을 청와대로 계속 불러들이더라고요.

친구들은 (부천 소사가) 새누리당이 안 되는 지역이니 다음에는 저더러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뼈를 여기서 묻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를 하는데 부천의 4명 국회의원 중 한 번도 저처럼 두 번 연속 당선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100% 떨어지게 돼 있는데 열심히 했고, 2월 조사에서 박지원 씨보다 두 배 이상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빼고는 충청도, 강원도를 합쳐서 최고 득표를 얻었습니다. 당선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최고 득표를 얻으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 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어떻게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지사를 하는데 제가 689대 경기도 관찰사 중 최장수입니다.

그제도 군사분계선 안에 태극기 세우는 마을에 가서도 왔습니다. 저는 한센촌에도 전부 찾아갑니다. 경상북도에 한센인이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는 북부 낙후 지역에 주로 삽니다. 저는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자고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공무원만 나오면 단속하는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경계를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수는 저 동네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오기에 저는 당신들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2년에 걸쳐 그곳의 시설을 고쳐 드렸습니다. 임진강은 상류 지역으로 염색 공장을 못하는데, 임진강 지역의 환경 지침을 바꿨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새로 하고 전기도 산업전기를 쓰게 바꿨습니다.

한센인들은 글씨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를 저희가 만들어서, 교수를 보내 글씨도 가르치고 노래·그림·시 등을 가르쳤습니다.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한센인 특별대상을 받았습니다. 한센인들이 볼 때는 역사상 어떤 정치인이 찾아온 적도 없고 단속만 했는데, 당신은 와서 같이 밥 먹고 손잡고 자고 같이 울고 하는 점에 대해 당신에게 상을 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도지사를 세 번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압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빼고는 광역단체장을 하는 곳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경상도 빼고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 관두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한 것도 8년 최장수인데 12년 하면 너무 깁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더 젊은 사람들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안 되면 저는 입장이 또 난처해질 것입니다.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나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경주 김씨의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서당을 다녔는데 한학을 배웠습니다. 우리 집안은 봉건적 집안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았는데 경북중학교에 입학하니, 부모님의 첫마디가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유학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꼬' 하더라고요. 저는 친척집 뒷방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고3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3선 개헌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은 법에 위반하는 잘못된 것이라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년 전체가 2·28탑까지 가서 성명서를 읽고 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 없으니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서당 다니면서 옳지 않은 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면 안 된다, 옳은 것은 목숨 바쳐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이제

너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2주 지나자 학교에서 한 번만 봐줄 테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말을 못 알아 들쑤더라고요. 당시 집에는 라디오도 없고, 학교에서는 서울말 들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참에 당시 청계천에 가서 보니 너무너무 못살더라고요. 제 어릴 적 판자촌보다 더 못살더라고요.

그 후 대학 서클에 들어가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2학년 때 제적당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수배돼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집안에서는 네가 데모를 많이 하셔서 엄마가 화병이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배 중에 임종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품에 안겨 하는 말이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44살 돼 대학 졸업장을 받으니 집사람도 딸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졸업장을 드리면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도소에 두 번, 2년 6개월 있었고 공장에서 해고를 두 번 당하고 대학교에서 제적을 두 번 당했습니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도 제가 늘 데모를 하니 TK에서는 저더러 반역자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자는 것에 저는 환영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들이 도와 드려야 합니다. 큰 원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건 아니다, 이 규제를 풀면 환경이 오염 된다' 등등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실 때는 여기 와서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와서 듣기 힘듭니다. 경호가 너무 많아서, 장막이 너무 커서 생생한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1만 명 되는데 저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공무원들은 나쁜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 되는 대로 늘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요즘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것을 믿고 방심하면, 대구·경북이야 죽으나 사나 일편단심 민들레,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일편단심이 아닙니다.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선동하면 아침저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겪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재야, 운동권, 국회, 지금은 도지사를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살려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가는 것입니

다. 둘째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게 되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이 24년 전에 됐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일본도 패전 국가이자 전범 국가입니다. 일본은 배를 끌고 하와이로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미군과 민간인 2천 5백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한 것밖에 없지,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학살한 적도 없습니다. 전범, 패전 국가인 일본은 분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는 분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진 적도 없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니므로 통일시키는 데 우리를 도울 책임이 국제 사회에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통일 비용이 들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처음 통일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는 가장 큰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크림반도 사태를 보면 한 국가의 존립에는 바로 영토와 국민만 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주권이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하면 수천억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영토에 대한 주권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 적성에는 적군 묘지가 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 묘지가 있는데, 비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전 60년을 맞은 작년에

경기도는 중공군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왔는데 중국에는 누가 6·25에 참여했는지 명단이 없습니다. 작년에 중국인 3명이 왔는데 중국의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군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세 분 중 한 분은 사진기자인데, 그때 군복 입고 있던 사진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진짜 중공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더라고요.

자기 나라 국민이 죽어서 뼈가 있거나 없거나 뼈를 찾는 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써야겠는가 하는데, 돈과 상관없이 찾는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계산하는 나라는 후진 국가이고 계산도 안 하는 나라는 야만 국가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주권의 신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 주체 세력입니다. 영남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주체 세력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유불리와 상관없이 꼭 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쥐고 흔들면서, 미군만 철수하면 여기를 핵으로 위협하고 방사포를 무차별 발사할 것입니다. 특수전도 많이 양성했습니다. (우리와 군사력 측면에서)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핵도 없고 미사일도 사거리가 짧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나라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겁내지 않습니다. 연평도에 아무리 포를 쏘도 반격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만약 우리에게 포를 쏘면 김정은 머리에 즉시 미사일을 쏘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은 빈 라덴을 반드시 쫓아가 목을 뺏습니다. 우리도 확고한 국가 주체 세력과 안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통일이 되면 5천만 시장이 7천 5백만 시장으로 될 것입니다. 단둥,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에는 조선족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민족은 사는데 나라는 중국으로, 러시아로 돼 있습니다. (통일되면) 적어도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요녕성과 자매인데, 요녕성장이 경기도 중소기업인 전용단지를 만들어줄 테니 와서 투자하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기업인들이 나갈 때는 전부 산동성, 광둥성, 상해 등으로 갑니다. 그쪽 경제가 크고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철도가 뚫리면 많은 기업인들이 요녕성으로 갈 것이라 했습니다.

다리 짓는 것, 고속도로·터널을 뚫는 것도 우리 기술 강국입니다.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다리를 현대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과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가지고 대동강의 기적을 압록강의 기적으로, 두만강의 기적, 만주·시베리아의 기적으로, 전 세계의 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0국 중 90% 이상이 발전 모델을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

큼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섬처럼 갇혀서 바다로밖에 못 가던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열차를 타고, 자전거·자동차를 타고 가서 대륙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바다로 연결된 반도와 섬을 확장해서 세계 제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별 그대' 끝나기 이틀 전에 상해를 방문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열광하더라고요. 주인공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DNA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형수술, 화장품, 패션, 노래도 인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 주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대구의 섬유부터 패션 등 우리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도 세계 최고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제가 며칠 뒤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갑니다. 그곳의 이베로아메리카 사무총장이 4년 전부터, 자기 나라에 와서 한국 발전 비법을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이나 중국에 가서 배우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어릴 적 한국 농민들이 농업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잔칫집에 가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못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베로아메리카 연합 사무총장이 돼서 교육용 컴퓨터를 30만 대 입찰을 하는데, 전부 삼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소니가 될 줄 알았는데, 삼성이 무슨 회사인 줄 그때까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도 현대기아차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 너무너무 발전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 놀라운 기적의 비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과 40여 년 만에 그런 변화를 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 두만강의 기적만이 아니라 흑룡강의 기적, 콩고강의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목마르고 절망하는 200여 개국 나라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 새마을정신으로 절망은 없다,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공짜 점심을 준다더니 이제는 공짜 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는 좋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야 합니다. 공짜 점심보다 공짜 버스가 돈이 세 배가 더 듭니다. 학교는 공휴일, 방학에는 쉽니다. 그런데 버스 타는 사람은 3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 대통령도 취임해서 세금을 약간 조정하면 민심이 싹 돌아버립니다. 세금을 안 올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내가 바라면 바라는 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경제는 매우 정직하고 복지도 매우 정직합니다.

지금 독도에서 우리와 일본군이 붙으면 해·공군력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4배 더 막강합니다.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군은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미군이 우리 편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에서 붙는다면 해·공군력이 일본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를 지키는 것은 경북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과 국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방 직전 일본군은 700만이었습니다. 독립군은 7천 명도 안 됐습니다. 일본의 무기도 막강했습니다. 독립군이 싸워서 일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도와서 일본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폭격을 일본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두 방 만에 일본이 손을 들었고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미 FTA를 계속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덕을 많이 봤는데 계속 반대합니다. 반미주의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합니다.

북한을 통일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은 사랑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을 갖는 정권, 북한 주민을 처형하고 기본 인권이 없는 북한의 지배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유와 인권과 번영과 기술과 세계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로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물건도 팔고 도울 수 있는 글로벌리즘이 필요합니다. 내셔널리즘 갖고는 안 됩니다.

안산시에도 다문화 민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코리아의 애국심,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존경할 만한 나라가 코리아라는 명성을 얻을 때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학진학률 70%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6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서 고급 일자리를 얻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공장에 갑니까. 일손이 없어서 젊은이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잘하는 젊은이들은 세계로 뺏어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구 경북이 그러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워싱턴 특파원 만찬간담회

일시 2014년 3월 24일 워싱턴 D.C.

도지사 8년째를 마감합니다. 경기도지사를 8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12년은 너무 긴 것 같고, 나이도 있고 하니 인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꿈이 있는데, 통일과 나라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한국은 2할 자치입니다. 2할 중에는 시군도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실체는 미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중앙언론의 3자 지배체제입니다. 선거는 하지만, 권한은 인허가권과 재정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꼭 20%만 (지방이)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4할까지 가야 합니다.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가져가고 건물을 옮기기보다는 권한을, 재정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규제를 푸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하셔야 좀 되지, 지방이 아무리 해도 규제는 안 풀립니다. 세계에서 규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얘기하던 건데 제 말씀을 써 주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7시간 생방송입니다.

지방에서 말하는 건 일종의 소음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소명으로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기사만이 아니라 책들도 쓰시고 막강한 역할을 해 주시는 특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쇄신이 저의 꿈입니다. 욕먹는 정치가 아니라 존경받는 정치, 최소한 욕 안 먹는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 경기도-이락키스-이랩코리아 투자 MOU

일시 2014년 3월 24일 뉴욕 더블트리호텔

우리 항공산업에 좋은 투자를 해 주시는 이락키스 게리 허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항공산업이 발전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나 IT에 비하면 발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 어연한산단지(평택어연한산)는 외국인전용단지로 다른 외국사들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어연한산단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도울 것이며, 외국인들이 사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될 것입니다.

평택은 주한미군이 모두 모일 곳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 삼성의 가장 큰 공장이 들어올 계획이며 LG도 확장 중에 있다. 쌍용차도 있고, 미공군 기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 이후 도와 시와 중앙정부가 최선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경기도-OEI 증서 전달식

일시 2014년 3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웨라톤호텔

스카소 국장님이 저한테 계속 찾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스카소 국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미국·일본 여러 국가 중에 한국을 찾아오게 됐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국장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코리아타운은 너무 어려운 곳이었는데 지금 너무 잘살고 있는 코리안들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잘사는 곳이 됐는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어렸을 때 봐 왔던, 먹을 것을 찾아 농업 이민을 찾아왔던 코리안들이 이 짧은 시간에 잘살게 된 비결을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였고, 지금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언젠가는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코리안들이 세계 인류에 대해 갖고 있는 빚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해서 잘살게 된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 잘살게 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돕는 온두라스를 보았는데 향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그 도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최근 경기도도 경제가 어려워져 많이 못 도와 드리는데, 마음만큼은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4월 월례조회

일시 2014년 4월 3일 경기도청 남부청사 제1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주 좋은 분들이 상을 많이 받아서 기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브라질은 우리 대한민국 남쪽보다는 한 80배 이상 크고, 아르헨티나도 27배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인구가 2억이 되고 아르헨티나도 거의 4,200만 명,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입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잠재력이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가 모두 다 우리보다 못살았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가, 필리핀부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과거에 우리보다 못살았던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물론 우리보다 잘살겠습니다만. 미국·일본 정도, 이런 아주 최선진국 빼고는 다 우리보다 못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살던 나라,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는 우리나라가 농업 이민을 갔던 나라입니다. 제가 한인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농업 이민을 갔다가 땅이 넓으니까 아직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농사짓기가 뭐하니까 많은 분들은 농사를 안 짓고 봉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모두 다 봉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태인을 밀어내고 봉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봉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절반 이상 거의 우리 코리안들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돈을 좀 많이 번 분들은 미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로 우리 코리안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현지의 폭력단들이 '빨리 문 닫아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의 사람들이 휴일에 쉬면 우리 코리안들도 문을 닫으라는 얘가지요. 문을 안 닫고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폭력단들이 와서 몇 번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거기를 습격을 해 가지고 부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서, 주변의 눈총을

너무 받고 힘들 때는 다시 미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이 나라가 그렇게 잘살다가 왜 이 폭력배 하나도 소탕을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은 아시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이 8년을 할 때는 많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후임 지우마 여성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에서 브라질은 최근에 한 12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서 폭력이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폭력배들이 빈민촌 안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폭력배들이 어릴 때부터 아기들을 마약의 전달책으로 쓴다든지, 그러면서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마약 심부름을 시키고 또 애들을 키워 주고, 이래서 폭력배가 그냥 폭력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 장학금도 주고, 또 그 아이들 뒤도 봐줍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을 하면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부모도 그 아이들이 마약 심부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 오면 그 돈 가지고 먹고삽니다. 이렇게 뿌리 깊이 그 지역에서 아기들 때부터 생활 구석구석을 전부 연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정치인을 길러 줍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들 우호 세력을 마약 밀매 같은 것이나 폭력으로 뺏은 돈을 가지고서 밀어줍니다. 또 무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정부군보다도 더 강력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무력 집단입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폭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말 안 듣는 공무원들은 그냥 가서 죽이는, 폭력으로 총을 쏘서 죽인다든지 합니다. 또 청부살인을 하는 데도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돈 얼마 안 들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말 안 듣는 사람, 경찰 중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청부살인으로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쿠데타가 또 계속 일어나 가지고 쿠데타가 끝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해방 이후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만. 두 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2·12 전두환하고, 박정희 두 사람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또 쿠데타 이후에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쿠데타와 폭력과 부패, 사회의 무질서,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중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페론, 에바 페론과 페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 주지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페론당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페론당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페론당이 아닌 사람이 또 없습니다.

브라질은 룰라가 노동당, 그러니까 노동자 정당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좌파의 그 당을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경제 정책은 완전한 우파 정책을 취하고 복지 정책은 좌파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브

라질은 그래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제가 갔을 때도 선생들이 전부 다, 학교 교사가 27만 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만 27만 명의 선생이 있는데 파업을 17일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때 주지사가 이 선생들과 타협을 해서 파업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주지사를, 바로 그 인터뷰하는 동안에 약속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뷰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우리 대표단하고 만났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를 올렸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봉급 인상을 35%를 요구하는데, '30%로 해서 올렸다'고 그러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기아 이런 대한민국의 잘나가는 기업을 자기네 나라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게 저를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제조업이 그곳에 와서 좀 해 달라 이런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파업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냐고 그러합니다. '우리는 파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 파업을 17일간 하는 이런 나라에 어느 기업이 와서 공장을 세우겠습니까. '

'거기는 그러면 군인은 파업을 합니까?' 저보고 그러합니다. 거기는 군인도 파업을 합니다. 경찰 파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다

파업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파업 못합니다. 그리고 파업을 아무리 해도 한꺼번에 30%나 봉급을 올리면 어느 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또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스페인 소유의 석유 회사가 있는데, 국가에서 석유 회사를 무상으로 몰수해 버린 겁니다. 국유화를 하는데, 돈 안 주고 그냥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서도 석유 회사를 갑자기 뺏겨 버리니까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입니다.

그럼 투자했다가 갑자기 국유화를 시키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국유화를 시켜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은 국영 자동차 공장이 된다' 이럴 때는 누가, 어느 자동차가 투자를 하고 어느 개인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모두 다 이미 1910년, 1920년대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5위권 내에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영국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잘살던 나라인데, 워낙 땅이 넓고 이러니까 세계 대전을 하고 이럴 때는 땅이 넓고 이러니까 곡물이 무궁무진하게 생산됩니다. 곡물과 육류가, 제가 볼 때는 고기도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먹어 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아르헨티나 소고기 같은 것들도 먹어 보니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FTA가 안 돼 있습니다. FTA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을 국유화 시키고 이러는 나라에 FTA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아무

리 자원이 좋고, 아무리 좋은 그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는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이지요. '에비타'라고 여러분 영화나 뮤지컬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에바 페론이 당시에 영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페론의 영부인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건물의 벽에 네온사인으로 에바 페론의 얼굴을 야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습니다. 낮에도 보이고 밤에는 번쩍번쩍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출신도 아니고 죽은 지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벽에,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청사 관공서 벽에 만들어 놔습니까. 대통령 영부인, 우리 육영수 여사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금방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하지도 않았습니까. 그 짧게 있었던 에바 페론의 얼굴을 저기다가 네온사인으로 새겨 놓고 아직도 번쩍거리도록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묘지에 저도 가 봤는데, 묘지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옵니다. 성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빈민과 노동자와 여성의 성녀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33살에 죽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페론주의가 아직까지 아르헨티나의 모든 정치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페론주의, 일종의 포퓰리즘이지요. 포퓰리즘이 아니고는 거기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요즘 공짜버스도 나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거철만 되면 공짜로 뭐 해 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남미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망한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짜로 주면 좋지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뭘 준다고 그럴 때는 그 돈이 있느냐, 첫째, 예를 들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서 준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더 받아 갖고 더 준다', 이것은 사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라면 세금을 올려서 그 올라간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누어서 복지를 해 드리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냥 공짜로 계속 주겠다는데,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 도로 안 닦고, 철도도 안 하고, 필요한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보니까 거기는 철도가 별로 없습니다. 철도가 왜 없습니까. 철도 깔 돈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다 나눠 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나눠 주는 겁니다. 표가 쏟아지는데 왜 철도를 하겠습니까? 도로도 없습니다. 그게 다 옛날에 해 놨던 도로고,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없습니다. 집도 잘 안 짓습니다. 빈민들이 전부 그 빈민촌에서 수십만 명이 사는데, 집을 제대로 안 짓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좀 싸게 준다는, 그런 것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나눠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제일 표가 잘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한 채 1억 주는 것보다야 1인당 공짜 밥을 그냥 1억 원어

치 주면 표가 몇 표입니까? 기분 좋고, 표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표 많이 받는 식으로 정책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게 안 되는 겁니다. 애들 교육시킨다고 학교 짓는 것보다야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나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내일, 모래, 미래를 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은 선거 때 당선이 돼야지만 자기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표를 받아야 됩니다. 표를 받으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씩니까.

좀 냉정한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한 사람씩 달콤한 곳감을 하나씩 나눠 주는 것이, 혹시 투표장 들어가갈 때 곳감을 씹으면서 들어가면 몇 표라도, 한 5%라도 더 얻으면 그것이 당락을 좌우해서 결국은 당선이 된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남미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인구도 많고 땅도 우리보다 다 80배, 27배 넓은 이런 어마어마한 들판에서, 평지가 많고 비옥한 땅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 국민들의 선택인데, 이 국민들의 선택을 항상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달콤한 사탕발림을 통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공짜 바이러스를 퍼트리는데 접니다. 선거철만 돼서 계속 퍼트리면, 국민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 바이러스가 박히게 되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아주 난치병 중의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가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까지 어려워서 1960년 이후부터 1970년까지 남미로 배를 타고 농업 이민을 갔습니다. 그 기록을 쪽 보니까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50명, 100명씩 계속 이민을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지금부터 딱 44년 전 아닙니까? 1970년까지 갔으면 한 44년, 그 이후에도 더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배고파서 남미로 이민 갔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크게 비교가 안 되는 점이 바로 제조 부분입니다. 우리 삼성, LG, 현대, 기아 이 제조 부분입니다. 미국에 이번에도 우리가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가서 부품업체를 하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이 바로 자동차의 고향이라고 해야 되지요.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이러면 가장 잠재성 있고 훌륭한 자동차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협약도 하나 맺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대역전의 스토리,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UN 회원국 200개 넘는 나라 중에 90% 이상은 대한민국이 자기들 성공의 모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살던 나라가 짧은 시간에 역전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배우고 싶다 그겁니다. 미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원래 선진국이니까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들 1960년, 1970년까지 자기네 나라에 배고파서 농업 이민을 오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페루 학교의 학생들이 배우는 컴퓨터 기자재, 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태양광 전기발전을 하는 이런 것들 조금, 한 5,00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 액수가 적어서 미안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도와주던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나라의 학생들이 산간벽지에서 우리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주체 세력으로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청렴하고도 유능한 우리 공직을 이끌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인,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6월 일례조회

---

일시 2014년 6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수많은 희생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조회가 저의 8년 도지사 임기 마지막 조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8년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힘드셨지요?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청렴영생 부패즉사! 듣기만 해도 밥맛 떨어졌죠?  
119 전화로 관등성명을 요구한 저를 보고 당황하셨습니까?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 지겨우셨지요?  
찾아가는 민원버스! 노점행상 같아 서글픈 생각도 드셨지요?  
무한돌봄,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요구한 제가 원망스럽기도 하셨죠?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를 외치는 제가 무슨 전도사처럼 느껴  
지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은 이 별난 김문수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청백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가장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봉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무한돌봄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복  
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센촌에서 함께 손잡고 울던 우리들은 새로운 공직자로 거듭 태어  
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들어 희생하는 119는 국민의 생명안전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넓고도 위대한 경기도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조국의 크기를 가로지른 철조망을 걷어 내고 통일의 대  
업을 이룩할 때까지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저는 위대한 경기도와 깨끗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

여러분을 사랑하는 김문수

---

## 기우회

---

일시 2014년 6월 27일 중기센터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로서는 마지막 기우회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8년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기우회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모임이었습니다. 오시는 강사들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지하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음에 경탄했습니다.

저는 각 조마다 얼마나 애쓰시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아침 그냥 이뤄지는 신화는 없다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기우회와 함께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떠나더라도 남경필 지사와 위대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통일 선진 강국이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보기

주제	행사	쪽수
경기고등법원	기우회 (2014년 2월 28일)	310
	3월 월례조회	314
경기국제보트쇼 · 세계요트대회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경기도 600주년	기우회 (2014년 2월 28일)	310
	3월 월례조회	314
경기북부 균형발전	서초포럼 특강	167
	나라미래 준비모임 특강	220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기우회 (2014년 1월 24일)	282
경제성장 · 경제살리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17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북부기우회 (2013년 10월 10일)	153
	서초포럼 특강	167
	11월 월례조회	195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나라미래 준비모임 특강	220
	서울시재향군인회 울곡포럼 특강	240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6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기우회 (2014년 1월 24일)	282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4월 월례조회	338
관광	서초포럼 특강	167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기우회 (2014년 2월 28일)	310
교육과 인재 양성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주제	행사	쪽수
교통 · 도로 · 철도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서초포럼 특강	167
	7월 월례조회	9
국가 경쟁력	기우회 (2013년 11월 29일)	236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경기도귀농귀촌대학 명사초청 특강	157
국가 비전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3
	4월 월례조회	338
	8월 월례조회	67
국방 · 안보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8월 월례조회	67
	경기도 청년소통한마당캠프 안보탐방 초청특강	7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129
	북부기우회 (2013년 10월 10일)	153
	11월 월례조회	195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2월 월례조회	285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경기도 청년소통한마당캠프 안보탐방 초청특강	74
	2월 월례조회	285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경기도-OEI 증서 전달식	336	
4월 월례조회	338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규제	북부기우회 (2013년 10월 10일)	153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규제 개혁	7월 월례조회	9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10월 월례조회	144
	道 -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295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워싱턴 특파원 만찬간담회	333
	서초포럼 특강	167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2월 월례조회	285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7월 월례조회	9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기업지원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주제	행사	쪽수
꿈나무 안심학교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남북협력 · 북한인도적지원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3월 월례조회	314
노동운동 · 민주화운동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129
	KBS 광주방송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특강	258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노사 상생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10월 월례조회	144
농업 · 축산업 · 수산업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경기도귀농귀촌대학 명사초청 특강	157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대한민국 역사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129
	숙명여대 특강	179
	11월 월례조회	195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2월 월례조회	285
도시계획 · 주택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17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북부기우회 (2013년 10월 10일)	153
	서초포럼 특강	167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기우회 (2013년 11월 29일)	236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도재정위기 · 극복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17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기우회 (2013년 8월 30일)	105
	새누리당 정책협의회	126
	기우회 (2013년 11월 29일)	236
	기우회 (2014년 1월 24일)	282
	道 -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295
	3월 월례조회	314
무한돌봄	7월 월례조회	9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기우회 (2013년 8월 30일)	105
	숙명여대 특강	179

주제	행사	쪽수
	3월 월례조회	314
	6월 월례조회	349
문화·예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128
	북부기우회 (2013년 10월 10일)	153
민관 거버넌스	기우회 (2013년 8월 30일)	105
바람직한 공직자상	7월 월례조회	9
	8월 월례조회	67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2월 월례조회	285
보건·의료·생명공학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경기도귀농귀촌대학 명사초청 특강	157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보육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복지	7월 월례조회	9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기우회 (2013년 8월 30일)	105
	새누리당 정책협의회	126
	4월 월례조회	338
북한독재·세습비판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북한인권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서민·민생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서초포럼 특강	167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소방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6월 월례조회	349
소통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수도권 규제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수도권정비계획법	10월 월례조회	144
언론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유니버설스튜디오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일자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서초포럼 특강	167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자살예방·생명존중	8월 월례조회	67
	경기도귀농귀촌대학 명사초청 특강	157
자유 민주주의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정치 개혁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워싱턴 특파원 만찬간담회	333

주제	행사	쪽수	
지방자치·지방분권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17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KBS 광주방송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특강	258	
	2월 월례조회	285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워싱턴 특파원 만찬간담회	333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청렴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129	
	숙명여대 특강	179	
	6월 월례조회	349	
출산·육아장려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서초포럼 특강	167	
	숙명여대 특강	179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기우회 (2013년 11월 29일)	236	
	KBS 광주방송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특강	258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치안·안전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택시체험	숙명여대 특강	179	
통일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8월 월례조회	67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129	
	서초포럼 특강	167	
	숙명여대 특강	179	
	11월 월례조회	195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KBS 광주방송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특강	258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기우회 (2014년 1월 24일)	282	
	2월 월례조회	285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워싱턴 특파원 만찬간담회	333	
	기우회 (2014년 6월 27일)	352	
	투자 유치	7월 월례조회	9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기우회 (2013년 7월 26일)	61
		기우회 (2014년 2월 28일)	310
경기도-이락키스-이랩코리아 투자 MOU		335	

주제	행사	쪽수
한미 관계	8월 월례조회	67
	경기도 청년소통한미당캠프 안보탐방 초청특강	74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2월 월례조회	285
한센인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한일 관계	6월 월례조회	349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2월 월례조회	285
한중 관계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8월 월례조회	67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현장 행정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특강	319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한국시민사회포럼	110
	새누리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129
	서초포럼 특강	167
화합과 국론 통합	원컴정치커뮤니케이션 특강	34
	8월 월례조회	67
	김창준아카데미 특강	78
	10월 월례조회	144
	11월 월례조회	195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나라미래준비모임 특강	220
365 · 24언제나민원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임원 워크숍	24
	6월 월례조회	349
DMZ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128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Korea CEO Summit 조찬강연회	272
GTX	7월 월례조회	9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17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경기도 현장방문	58
	서초포럼 특강	167
	제9기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포럼	204
	기우회 (2013년 11월 29일)	236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 특강	240
	道 -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295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300
	기우회 (2014년 2월 28일)	310
	3월 월례조회	314

---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

제 8 권

2013. 7. 1 ~ 2014. 6. 30

---

발행처 | 경기도청 대변인실

---

발행일 | 2014년 7월

---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 비 매 품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